연구보고서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보고서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 언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12년 '아랍의 봄'을 거치면서 중동 지역의 산업 및 금융환경은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석유 자원의 고갈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경제 및 산업 다각화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보건의료시설, 학교, 주택 등과 같은 사회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중동 산유국들은 고유가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GDP 대비 재정 흑자 규모의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유럽계 금융기관의 투자 분위기가 위축되면서 프로젝트 시장에서의 다자 개발금융기관이나 수출신용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시공 업체에도 금융 주선 의무가 주어지고, 발전 · 담수화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 독립사업자의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 프로젝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금융 조달 능력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나라와 중동지역 국가 간의 금융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대중동 금융지원 전략 및 사례와 함께 우리나라의 중동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면서,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중동지역 국가 간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체계화하였습니다. 한 · 중동 금융협

력 관계를 기반으로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기구) 지역의 민간 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신흥경제국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정책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부문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중동 진출을 도모하면서 국내외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동 국가들에도 중소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민간 부문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금융협력의 비전 및 정책 목표, 정책방안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중동 진출전략 수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원장 이 일 형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대중동 금융지원 전략 및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내 중동 진출 기업의 금융 조달 능력 강화를 위한 한 · 중동 금융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금융협력'이란 주로 국내 기업의 대중동 투자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및 중동 국가들의 금융기관과 국제적인 다자개발금융기관, 수출신용기관 사이의 금융 지원을 둘러싼 협력관계를 말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 · 중동 금융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GCC 지역의 민간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여타 중동 · 아프리카 지역의 신흥경제국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 부문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중소 · 중견 기업의 중동 진출을 도모하면서 국내외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중동 국가들이 중소제조업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민간 부문을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각 장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 측면에서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산업환경 측면에서는 GCC 산유국들의 석유 고갈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의 강화가 가장 핵심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이 국가들은 석유 부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 부문의 투자 및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자국민 고용 우선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비중과 고용규모를 늘리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GCC 정부는 다양한 인프라 프로

젝트를 추진하면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환경 측면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후의 고유가를 바탕으로 GCC 정부 및 은행의 역내 투자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중동지역의 국부펀드도 역내 개발 목적의 투자를 늘리면서 자회사 등을 통해 투자전략을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계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의 참여가 위축되면서 각국의 수출신용기관이나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참여가 증가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중동지역에서의 산업 및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부펀드나 수출신용기관 및 다자 개발금융기관과의 금융 협력을 통한 금융 조달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전략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세계은행 그룹에 속해 있는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는 민간부문 위주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으로 중동지역에서도 민간부문 육성 및 기업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IFC가 주도적 역할을 한 요르단의 퀸 알리아 국제공항 프로젝트는 중동지역 내 최초의 공항 부문 민관협력사업(PPP) 프로젝트로 IFC가 장기 대출에 참여함으로써 프로젝트의 국가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자금 조달의 촉매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ADIC(아부다비 투자공사)와 누르(Noor)는 각각 UAE와 쿠웨이트의 투자회사로서 지분 투자를 실시하여 GCC 이외의 국가에 공동 투자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IDB(Islamic Development Bank, 이슬람개발은행)은 이슬람 회원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이슬람금융 방식을 활용

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인프라 건설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대한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의 개발펀드와 다자 개발금융기관과의 금융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슬람개발은행의 주요 투자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지부티 도랄레 컨테이너 터미널 프로젝트는 두바이 국영기업인 DP 월드(World)와 지부티 정부의 합작투자로 이루어졌으며, 이슬람개발은행과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두바이 이슬람 은행 등 다양한 은행이 이슬람 금융 방식으로 대출에 참여하였다.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본국제협력은행)은 일본 기업의 수출입금융이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신용기관이다. 주로 자원 및 에너지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이 늘고 있으며, 중견 · 중소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일본국제협력은행의 기본 전략으로서 민간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분투자, 현지 통화 조달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수단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카타르의 바르잔 가스전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총비용이 102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차입금 중 1/3 이상을 수출신용기관이 담당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EPC(설계 · 조달 · 시공) 업체와 수출신용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4장에서는 중동지역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국내 기업의 진출 시장은 주로 건설 및 플랜트 시장으로 1970년대 초반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비중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부문에서는 전체 투자진출 금액 대비 1.5%의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주로 해외건설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3~4년 동안 국내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 상업은행의 금융지원 역량 강화, 중동자금 활용 확대, 사모펀드 설립 등에 관련된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으나 아직도 전문인력 부족, 시중 상업은행의 참여 한계, 펀드 활용도 미흡, 제3국 공동 진출 여력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5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중동지역에서의 산업 및 금융환경 변화,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사례 연구, 국내 금융지원 정책의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향후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관련 정책은 주로 국내 기업의 수주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중동지역 간의 금융협력에 기반한 중동지역으로의 투자진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5장에서 제시된 정책 목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금융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중 글로벌 금융역량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이 기관들이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국내 글로벌 금융역량을 제고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반면 민간 금융기관은 해외 프로젝트 시장 진입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경험, 네트워크 등이 크게 부족한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반적인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발금융이나 지역연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은 물론 금융 및 지역 전문가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 · 중동 금융 네트워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현지에 진출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만으로 현지 진출이 어렵다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현지 은행과의 합작 또는 공동 인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에서 발주되는 민관협력사업이나 국내 중소 · 중견 기업의 투자 진출사업에 관련된 정보 공유와 전문인력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현지의 산업 및 기술 수요와 국내 기업의 공급 역량을 매칭시킬 수 있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보다 구체적인 부문별 투자 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GCC 국가 이외의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신흥경제국을 대상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공동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GCC 국가들의 풍부한 유동성과 국내 기업의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신흥경제국의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흥경제국에 투자 진출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 회수 위험 등을 포함한 국가 위험이다. 이에 대비하여 투자환경 구축을 위한 법적 ·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참여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수출신용기관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상업은행의 프로젝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차 례

▌서언 ····· 3

▌국문요약 ····· 5

▌제1장 머리말 ·····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 23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 26

▌제2장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 ····· 29

1. 산업환경의 주요 변화 ····· 30
   가. 산업다각화 및 중소기업 정책 ····· 30
   나.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시장의 특성 변화 ····· 36
   다. 민간부문 참여의 확대 ····· 39
2. 금융환경의 주요 변화 ····· 43
   가. 고유가 기조의 유지 ····· 43
   나. 역내 은행의 성장 ····· 45
   다. 국부펀드와 연기금의 역할 증대 ····· 52
   라. 다자 개발금융기관 및 수출신용기관의 역할 증가 ····· 61
3. 소결 및 시사점 ····· 64

▌제3장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전략 및 사례 ····· 67

1.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68
   가. 개요 ····· 68
   나. 금융지원 전략 ····· 70

다. 주요 지원 사례: 요르단 퀸 알리아 국제공항 프로젝트 ····· 73
2. IDB(Islamic Development Bank) ····· 76
가. 개요 ····· 76
나. 금융지원 전략 ····· 78
다. 주요 지원 사례: 지부티 도랄레(Doraleh) 컨테이너항 터미널 프로젝트 ····· 82
3.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85
가. 개요 ····· 85
나. 금융지원 전략 ····· 87
다. 주요 지원 사례: 카타르 바르잔(Barzan) 가스 프로젝트 ····· 91
4. 소결 및 시사점 ····· 94

▌제4장 중동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및 문제점 ····· 97
1.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 현황 ····· 98
가. 건설·플랜트 부문 ····· 100
나. 제조업 부문 ····· 107
다. 서비스업 부문 ····· 112
2. 최근 정부의 금융지원정책 동향 ····· 114
가. 5개년 해외건설 진흥계획 ····· 114
나. 주요 펀드 ····· 128
3. 중동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및 한계 ····· 133
가. 수출신용기관 ····· 133
나. 상업은행 ····· 149
다. 국내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사례 ····· 153
4. 소결 ····· 160

▌제5장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 163
1.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종합 ····· 164
2. 한·중동 금융협력의 정책 비전 및 목표 ····· 167
가. 정책 비전 ····· 167
나. 정책 목표 ····· 169
3.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 172
가. 글로벌 금융협력 역량 강화 ····· 172
나. 한·중동(GCC) 금융 네트워크 구축 ····· 178
다. 신흥경제국 투자사업 공동 진출 ····· 182

▌참고문헌 ····· 188

▌Executive Summary ····· 198

표 차례

표 2-1. GCC 국가별 국가 개발 계획 ····· 31
표 2-2. GCC 국가별 주요 중소기업 정책 ····· 35
표 2-3. GCC 주요 국가의 재정수입 중 에너지 의존도 ····· 44
표 2-4. GCC 은행의 주요 현황 ····· 46
표 2-5. 연도별 중동 프로젝트의 주요 MLA 순위 ····· 50
표 2-6. 주요 GCC 국부펀드 현황 ····· 55
표 2-7. GCC 국가의 주요 연기금 ····· 61
표 3-1. IFC의 투자 추이(2010~14) ····· 70
표 3-2. IFC의 부문별 금융지원 규모 추이(2011~14) ····· 71
표 3-3. IFC의 지역별 금융지원 규모 추이(2011~14) ····· 71
표 3-4. IFC의 중동·아프리카 지역 주요 금융지원 사례(2013~14) ····· 72
표 3-5. 퀸 알리아 국제공항 프로젝트의 금융 조달 구조 ····· 75
표 3-6. IDB 그룹 개요 ····· 76
표 3-7. IDB 그룹의 기관별 금융지원 추이(2009~13) ····· 77
표 3-8. 국가별 프로젝트 관련 금융지원 규모(2013) ····· 81
표 3-9. IDB와 조정 그룹 간 금융협력 내용 ····· 81
표 3-10. IDB와 다자 개발금융기관 간 금융협력 내용 ····· 82
표 3-11. 지부티 도랄레 프로젝트 금융구조 ····· 84
표 3-12. JBIC의 부문별 금융지원 추이(2009~13) ····· 86
표 3-13. JBIC의 지역별 금융지원 추이(2009~13) ····· 87
표 3-14. JBIC의 분야별 업무 전략 ····· 88
표 3-15. 중동·북아프리카의 부문별 금융지원 추이(2012~13) ····· 90
표 3-16. 중동·북아프리카지역의 국가별 금융지원 규모 ····· 91
표 3-17. 카타르 바르잔 가스 프로젝트 금융구조 ····· 93

표 4-1. 최근 10년간 지역별 해외건설 누적 수주 규모 추이 ····· 104
표 4-2. 최근 5년간 중동 국가별 해외건설 수주 현황 ····· 105
표 4-3. 대중동 서비스 부문 세부 업종별 누적 투자 현황 ····· 113
표 4-4. 건설·플랜트 해외진출 주요 금융지원정책 ····· 116
표 4-5. 해외 프로젝트 수주 관련 주요 금융지원 방안 ····· 118
표 4-6.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개관 ····· 121
표 4-7. 글로벌인프라펀드 개요 ····· 129
표 4-8. 주요국 개발금융기관 지원 규모 ····· 135
표 4-9. 주요국 ECA ····· 141
표 4-10. 무역보험공사 기금배수(2009~13) ····· 148
표 4-11. 금융자문사(Advisory) 순위(2013) ····· 150
표 4-12. 금융주간사(Initial Mandated Lead Arrangers) 순위 ····· 151
표 4-13. 국내은행 중동 점포 현황(2013년 말 기준) ····· 153
표 5-1. 프로젝트 위험의 구분 ····· 168
표 5-2. 투자사업의 종류 ····· 182
표 5-3. 프로젝트 단계별 주요 업무, 계약 및 사업 주체 ····· 185

그림 차례

그림 1-1. 한·중동 금융협력을 통한 경제적 기대효과 ····· 23
그림 2-1. 지역별 청년 실업률 ····· 33
그림 2-2. 지역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 ····· 34
그림 2-3. 프로젝트 규모 변화 추이 ····· 36
그림 2-4. 국가별 프로젝트 추진 비중 변화 ····· 37
그림 2-5. 산업별 프로젝트 추진 비중 변화 ····· 39
그림 2-6. 인프라 부문 민관협력사업 투자 추이 ····· 40
그림 2-7. 인프라 부문 민관협력사업의 지역별 비중 ····· 41
그림 2-8. 인프라 부문 민관협력사업의 산업별 비중 ····· 42
그림 2-9. 중동의 인프라 부문 민관협력사업 투자 추이 ····· 42
그림 2-10. 국제 에너지 가격 변화 추이 ····· 44
그림 2-11. GDP 대비 국내 금융여신 비중 ····· 47
그림 2-12. GDP 대비 자산형태 비중 ····· 48
그림 2-13. 중동 프로젝트의 MLA 대출 추이 ····· 49
그림 2-14. 세계 국부펀드 증가 추이 ····· 52
그림 2-15. 지역별 국부펀드 비중 ····· 53
그림 2-16. 중동의 주요 기관투자자 비중 ····· 54
그림 2-17. GCC 국부펀드의 분류 ····· 56
그림 2-18. 중동 주요 국부펀드의 투자 지역 ····· 57
그림 2-19. 카타르 국부펀드의 구조도 ····· 59
그림 2-20. 국부펀드와 연기금의 성장률 추이 ····· 60
그림 2-21.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 추이 ····· 62
그림 2-22. MDB와 ECA의 전 세계 및 중동 프로젝트 참여 추이 ····· 63
그림 4-1. 국가별 중동 누적 진출 비중 ····· 99

그림 4-2. 업종별 중동 누적 진출 비중 ····· 99
그림 4-3. 연도별・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현황(1966~2013) ····· 101
그림 4-4. 중동지역 공종별 수주 비중(2013) ····· 106
그림 4-5. 중동 주요국 산업별 GDP 비중 ····· 108
그림 4-6. 대중동 제조업 세부 업종별 누적 투자 현황 ····· 109
그림 4-7. 대중동 제조업 국가별 누적 투자 현황 ····· 110
그림 4-8. 금융 조달 방식에 따른 수주 유형 ····· 120
그림 4-9. 건설 단계별 보증 및 대출 ····· 123
그림 4-10. 시공자 금융주선형 사업 구조 ····· 125
그림 4-11. 투자개발형 사업 구조 ····· 127
그림 4-12. 글로벌협력펀드(Global Cooperation Fund) 구조 ····· 132
그림 4-13. 수출입은행 MENA 지역 PF 승인(2003~13) ····· 138
그림 4-14. 수출입은행 PF 승인(2013) ····· 139
그림 4-15. 지역별 중장기 종목 유효계약액(2009~13) ····· 147
그림 4-16. 요르단 알 카트라나(Al Qatrana) IPP 2 프로젝트 구조 ····· 155
그림 4-17. UAE 슈웨이핫3(Shuweihat 3) 프로젝트 구조 ····· 156
그림 4-18. 요르단 알 마나커(Al Manakher) IPP 3 프로젝트 구조 ····· 157
그림 4-19. 사우디아라비아 쿠라야(Qurayyah) 프로젝트 구조 ····· 158
그림 5-1. 정책 비전 및 목표 ····· 172
그림 5-2. 해외건설진흥기금 지원 구조 개념도 ····· 175
그림 5-3. 걸프투자공사(GIC)의 투자 모델 개념도 ····· 181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은 지난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당시 고유가에 힘입어 급증했던 중동 산유국의 건설 프로젝트가 국내 기업의 진출 기반이 되었다. 비록 1980년대 중반부터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중동 건설 붐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당시 국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때 국내 건설기업들이 맡은 중동 프로젝트 시장에서의 역할은 주로 시공이었다. 당시 일본 시공업체들에 대한 가격 경쟁력 우위로 중동 건설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제 유가의 빠른 상승으로 다시 고유가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지역 국가의 프로젝트 규모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내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제2의 중동 붐'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12년 '아랍의 봄'을 거치면서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기구)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석유 자원 고갈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비석유 부문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ICT, 금융, 관광,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 및 산업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 이에 따라 당해 업종에 적합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프로

1) GCC(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 국가들로 구성된 지역협력기구로 1981년에 결성되었다(주동주 외 2012, p. 21).

젝트 이외에 보건의료시설, 학교, 주택 등과 같은 사회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2)]

이러한 산업 수요 및 정책의 변화는 중동 산유국 정부의 재정 및 금융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동 산유국들은 고유가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GDP 대비 재정 흑자규모의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석유 수출에 기반한 재정수입만으로는 증가하는 프로젝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유국 정부들은 시공사에 금융 주선을 요구하기도 하고 발전 · 담수화 사업의 경우 민간 독립사업자의 직접투자를 선호하기도 한다. 또한 중동 지역의 제조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직접투자 진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국내 기업이 성공적으로 중동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첫 번째 한계는 1970~80년대에 효과적이었던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설계 · 조달 · 시공) 계약 기반의 중동 진출 방식은 부가가치 창출 확대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기업 간의 과당 경쟁과 저가 수주가 나타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시공사업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 개발이나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까지 사업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금융 조달 능력의 한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프로젝트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2)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경제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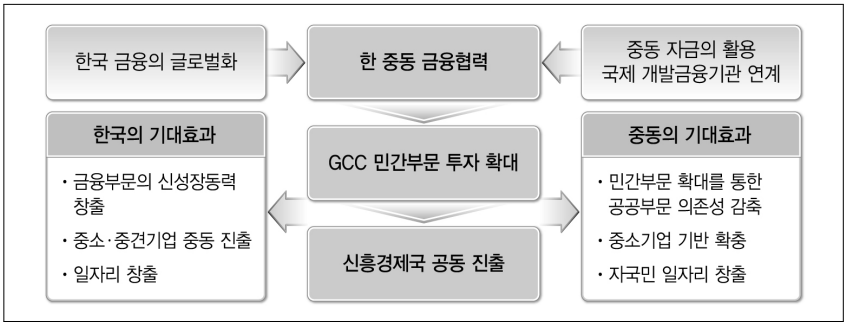
민간 부문의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금융 조달 능력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단순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스(PF)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3)]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국내 기업이 중동 진출방식을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중동 국가, 그리고 국내외 개발금융기관 사이에 어떠한 금융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대중동 금융지원 전략 및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내 중동 진출 기업의 금융 조달 능력 강화를 위한 한 · 중동 금융협력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금융협력은 주로 국내 기업의 대중동 투자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외 개발금융기관의 금융 지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 · 중동 금융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GCC 지역의 민간 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신흥경제국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 부문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중소 · 중견기업의 중동 진출을 도모하면서 국내외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중동 국가들이 중소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민간 부문을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그림 1-1 참고).

3) 금융 조달 과정은 사실상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사업 영역의 확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한 · 중동 금융협력을 통한 경제적 기대효과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본 연구는 금융 측면에서 비교적 유동성이 풍부한 중동 국가들과 금융협력관계를 구축하고 GCC 및 여타 중동 · 아프리카 지역의 신흥 경제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금융 조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GCC 국가와 중동 자금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흥국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내용으로는 먼저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환경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2010~12년 지속된 '아랍의 봄' 이후 나타난 산업정책이나 금융 조달 구조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대중동 금융 지원에 대한 전략과 주요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나 IDB(Islamic Development Bank) 등과 같은 다자 개발금융기관(MDB)이나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등과 같은 수출신용기관을 대상으로 전략과 사례를 살펴보

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동 진출 현황과 이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및 동향,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사례 등을 조사하고 금융지원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할 것이다. 넷째, 앞서 제시된 분석과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중동지역 국가 간의 금융협력을 위한 정책 비전과 목표를 도출하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을 다루기 위해 문헌 연구와 관련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국내에서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면접조사를 통해 보완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 활용된 기존 문헌을 살펴보면, 먼저 GCC 국가들의 산업다각화 전략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연구로 주동주 외(2012)를 들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외건설시장의 변화와 자금 조달 능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박형원 외(2005)는 투자개발형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는 해외건설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금과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창구 외(2010)는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조달시장과 다자 개발금융기관 주도형 사업절차를 분석하고, 민간사업자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영호 외(2013)는 다자 및 양자 개발금융기관 등 해외 정책금융기관의 아프리카 지원 현황 및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수출신용기관의 금융지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방안을 분석하였다. Griffith-Jones and de Lima(2004)는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다자 개발금융기관과 수출신용기관(ECA)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기관들의 차관보증 매커니즘

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권형 · 손성현(2012)은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국내 업체가 시공 위주의 수주업체 지위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개발기업(developer)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금융 관련 네트워크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은 중동지역의 민관협력사업(PPP)을 포함한 전반적인 프로젝트 현황 자료 및 중동 지역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 정보를 활용하였다.[4]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전략과 주요 사례는 IFC, IDB, JBIC 등이 발행한 연간 보고서 및 각종 언론 자료를 참고하였다. 국내 금융지원 정책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의 보도자료를 활용하였고, 대중동 투자 및 진출 현황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5]

현지 면접조사는 2014년 6월 쿠웨이트와 오만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산업다각화 정책, 중소기업 진흥정책, 투자 환경 등을 조사하였고, 8월에는 요르단을 방문하여 현지 민관협력사업 환경, 국내 기업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

4) Zawya, Projects (http://www.zawya.com/islamic-finance/),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 (http://www.pfie.com/), World Bank,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http://ppi.worldbank.org/explore/ppi_exploreRegion.aspx?regionID=5) 등을 활용한다.

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keri.koreaexim.go.kr/keri/index.jsp),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통계 DB (http://www.icak.or.kr/sta/sta_0101.php) 등을 참고하였다.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연구 내용에 따라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 범위, 방법론, 연구 구성 등을 서술하고, 2장에서는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를 몇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중동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이 활발한 IFC, IDB, JBIC 등의 투자 지원 전략과 주요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4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 현황과 정부의 금융지원정책,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서 분석된 결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중동 진출 기업의 금융 조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 · 중동 금융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아랍의 봄' 이후 나타난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투자 지원 전략 및 지원 사례 등을 검토하면서 국내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협력방안을 체계적 ·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중소 · 중견기업의 중동 진출과 해외 건설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동 국부펀드의 투자 동향이나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사례에 대한 분석이 1차 자료가 아닌 2차 자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는 당해 기관들이 금융기관의 특성상 지원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투자 동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이미 발간된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5장에서 한 · 중동 금융협력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였지만, 방안별 리스크 분석이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수립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는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국내외 사례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별도의 후속 연구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제2장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

1. 산업환경의 주요 변화
2. 금융환경의 주요 변화
3. 소결 및 시사점

1. 산업환경의 주요 변화

가. 산업다각화 및 중소기업 정책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GCC 산유국은 석유 고갈 이후를 대비하고자 자국의 비석유 부문 산업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 1, 2차 석유 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중동의 주요 산유국은 석유 수출로 막대한 재정 수입을 얻었고, 이것을 석유 생산시설 확대 및 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재투자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서 오랜 기간 20달러대에 머물렀고, 수출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에서 높은 석유 의존도를 보이고 있던 산유국의 거시경제 상황은 악화되었다. 2002년을 기점으로 유가가 재상승하면서 중동 산유국은 석유 수출을 통해 오일 머니를 다시금 확보하게 되었고, 국가 재정에서 석유 부문의 비중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유가 변동에 따른 자국의 거시경제 취약성을 경험한 GCC 산유국들은 비석유 부문 개발을 통해 에너지 의존적 경제구조를 탈피하고자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GCC 국가들은 2000년대 이후 민간 부문과 비석유 부문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장기 국가 비전 아래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표 2-1 참고). 또한 이 국가들은 비전에 부합하는 석유화학, 건설, 관광, 정보통신 등의 산업 발전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다. 즉 중동 산유국은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비전 및 정책을 통해 산업다각화에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자 막대한 석유 수

입으로 국부 및 유동성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다각화에 대한 의지는 한풀 꺾이게 되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와 느린 정책 추진 속도로 인해 이러한 노력은 큰 변화를 몰고 오지 못했다.

아랍의 봄을 기점으로 높은 실업률 문제가 GCC 산유국의 정치적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고용 창출을 위한 산업다각화 추진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고 있다. 2011년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은 중동 전역으

표 2-1. GCC 국가별 국가 개발 계획

국가	개발계획	중점 개발 분야	투입예산
사우디 아라비아	- 장기전략 2005~2024 (Development Plan 2005-2024) - 제9차 개발계획 2010~2014 (Ninth Development Plan 2010-2014)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의료, 교육, 금융, SOC, 건설자재	3,850억 달러 (2014년까지)
UAE	- 7개년 국가의제 (2014~2020)	교육, 의료, 주택, ICT	-
	-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Economic Vision 2030)	석유화학, 금속, 의료, 관광, 금융, 정보통신, 신재생에너지	3,000억 달러 (2030년까지)
	- 두바이 전략계획 2015 (Dubai Strategic Plan 2015)	관광, 건설, 의료, SOC, 문화, 교육	-
카타르	- 카타르 국가비전 2030 (Qatar National Vision 2030) - 국가개발전략 2010~2014 (Qatar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10-2014)	에너지, 교육, 금융, 관광, 정보통신	1,380억 달러 (2012년까지)
쿠웨이트	- 쿠웨이트 국가 비전 2035 - 5개년 중기 개발계획 2010~2014 (Midrange Development plan 2010-2014)	무역 및 금융, 물류, 석유화학, 관광, 정보통신, 청정에너지	1,250억 달러 (2014년까지)
오만	- 오만경제를 위한 비전 (Vision 2020) - 제8차 경제개발계획 2011~2015 (Eighth Development Plan 2011-2015)	SOC, 산업단지건설	370억 달러 (2015년까지)
바레인	- 경제비전 2030 (Economic Vision 2030)	-	-

자료: 주동주 외(2012), p. 36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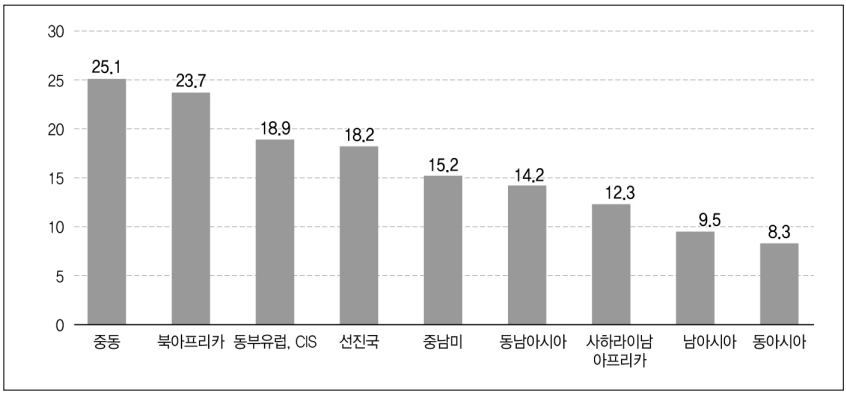
로 확산되어 GCC의 왕정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들 국가 내에서도 최근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인구 증가율에 따른 청년 실업 문제, 권위주의 왕정에 대한 도전, 보건의료 및 주택 등의 복지 문제로 정정(政情) 불안이 증가하였다. 이에 가장 불안정성이 높았던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GCC 왕정국가들은 공무원 임금 인상, 사회 발전을 위한 주택 확충과 복지 강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GCC 국가를 위시한 산유국의 산업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도로, 항만, 발전소 등의 사회 기반시설과 비석유 부문 산업 인프라에 대한 활발한 투자와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걸프 왕정국가의 가장 큰 위협요인인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유용한 중소기업 육성이 필수 불가결한 과제로 떠올랐다. GCC 국가 대부분은 1970년대 이후로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하였다. 당시 걸프 국가의 국민은 농업 및 상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산업화에 적합한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했다. GCC 국가의 정부는 각종 인프라 건설 및 사회 발전을 위해 유럽 및 미국에서 고급 기술 인력을 인도, 파키스탄 등으로부터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거 유입하였다. 그리고 자국민 대부분은 공공 부문으로 흡수시켰다. 하지만 중동의 높은 인구증가율로 공공 부문에 자국 인력을 고용하는 것에 한계가 다다르자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청년 실업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그림 2-1 참고). 이에 고용 창출을 위한 민간 부문 자국민 우선고용 정책,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중동지역 중에서도 특히 GCC 국가들은 금융의 발전 정도가 낮다. 이

그림 2-1. 지역별 청년 실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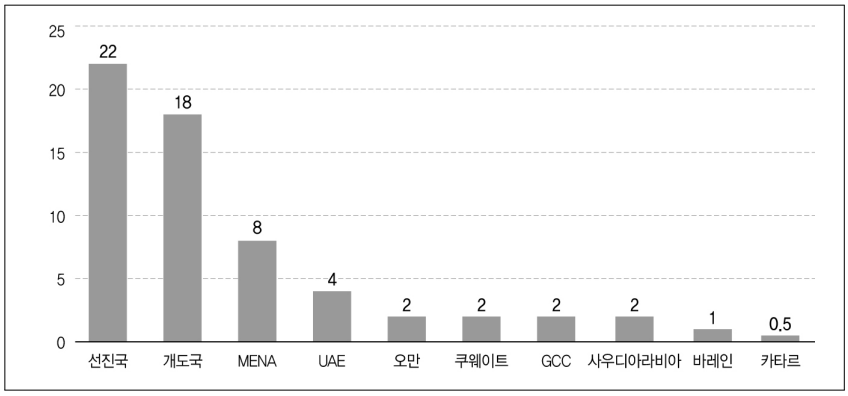
주: 2010년 기준.
자료: Saleem(2013), p. 1.

에 따라 신용도가 낮고, 위험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자금지원도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인력 개발에 대한 정책 외에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금융 인프라가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Saleem의 조사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도국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각각 22%, 18%였다(그림 2-2 참고). 하지만 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GCC 국가들을 포함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8%, GCC 지역은 2%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GCC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6년부터 사우디 산업개발기금(SIDF: 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 중 일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표 2-2 참고). UAE는 2014년에 중소기업법을 도입하여 GDP 대비 60%인 중소기

그림 2-2. 지역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

(단위: %)



자료: Saleem(2013), p. 2.

업 비중을 7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자국 중소기업의 정부 발주 참여 및 금융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쿠웨이트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PPP 프로젝트 입찰 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만은 자국 내 은행 대출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할당하고 2020년까지 자국 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자재의 50% 이상을 현지화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카타르는 기업 설립 시 최소 자본금을 축소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GCC 지역의 국가들은 산업 다각화 및 자국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중동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표 2-2. GCC 국가별 주요 중소기업 정책

국가	중소기업 정책
사우다 이라비아	- 사우디 산업개발기금(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을 통해 2006년부터 중소기업 신용보증 프로그램(The SME Loan Guarantee Program, KAFALAH) 제공(최대 2억 사우디 리얄(5,330만 달러) 또는, 총 투자자금의 75%까지 지원 가능)
UAE	- 2014년 4월 14일 중소기업 육성법(Federal Law No. 2 of 2014)을 신규 제정, UAE GDP의 6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비중을 2020년까지 70%로 증가 목표 - 프로그램에 등록된 중소기업이 받을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음. ① 연방정부 기관은 구매, 서비스, 컨설팅 관련 총 계약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에 발주해야 함. ② 연방정부가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경우 구매, 서비스, 컨설팅 관련 총 계약의 5% 이상을 중소기업에 발주해야 함. ③ 각종 절차 단순화, 라이선스비 경감, 제조업 및 농업 관련 중소기업에 토지 제공 등의 혜택 부여 ④ 내각과 관계 기관의 결정에 따라 중소기업은 기계, 원자재, 중간재 등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고 UAE 국적자가 100% 소유한 기업만이 누릴 수 있음.
쿠웨이트	- 2014년 안에 중소기업육성법 공포 예정 - 중소기업 육성 전담 정부기구 설립 - 70억 달러 SME 펀드 설립(쿠웨이트 국부펀드에서 대부분의 재원 조달) - PPP 프로젝트 입찰 참여자는 사전에 현지 구매 계획을 제출함(의무구매비율은 미정이며, 현재는 약 10% 수준). * 쿠웨이트는 호주 빅토리아주 중소기업육성정책(VIPP: Victorian Industry Participation Policy)를 벤치마킹했음.
오만	- 오만 내 모든 은행의 전체 대출 중 최소 5% 이상을 중소기업에 할당 의무화(2014년 말) - 2025년까지 자국 내 프로젝트에서 현지 자재 사용 비중을 50% 까지 확대
카타르	- 중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해 최소자본금을 20만 카타르 리얄(약 5만 4,000달러)에서 100 카타르 리얄로 대폭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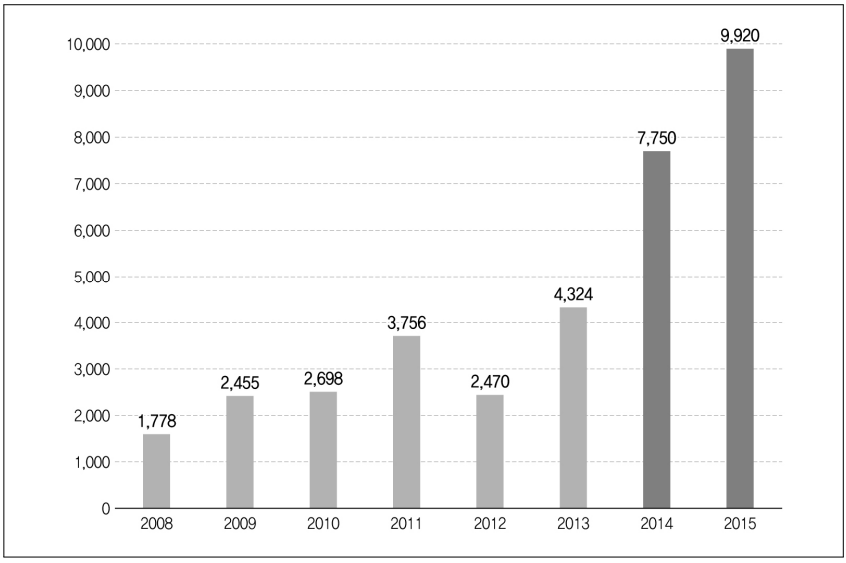
자료: 강현정(2014. 6. 27)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Page=1&RowCountPerPage=10&ARTICLE_ID=5017055&ARTICLE_SE=20301 (검색일: 2014년 7월 21일); 이삼식(2014. 6. 13)
https://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6392 (검색일: 2014년 7월 21일)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나. 건설 · 플랜트 프로젝트 시장의 특성 변화

GCC 국가 산업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Zawya의 프로젝트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프로젝트 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상위 30대 프로젝트의 평균 규모는 17억 7,8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다(그림 2-3 참고). 하지만 2013년에는 평균 43억 2,400만 달러로 2008년 대비 약 2.4배가량 증가하였다. 전체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그 변화 폭은 감소할 수 있겠지만, 상위 30대 프로젝트 규모의 대형화는 그만큼 대형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그림 2-3. 프로젝트 규모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2008~13년 자료는 GCC의 완공된 상위 30대 프로젝트의 평균 가치이며, 2014년은 완공되었거나 완공 예정인 프로젝트, 2015년은 완공 예정인 상위 30대 프로젝트에 대한 통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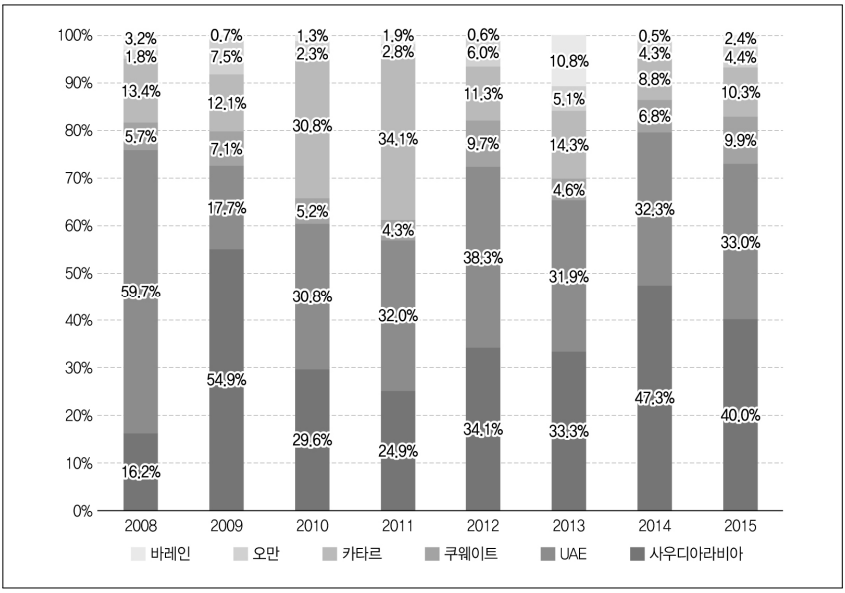
자료: Zawya, Projects, Projects Monitor data,
http://www.zawya.com/middle-east/projects/projectLookup.cfm (검색일: 2014. 3. 3).

수 있다.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 완공 예정인 상위 30대 프로젝트의 평균 규모도 이전보다 더욱 증가하여 각각 77억 5,000만 달러와 99억 2,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대형화는 대규모 자금조달의 필요성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GCC 국가에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국가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은 증가하고, 카타르의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역내에서 완공된 총 프로젝트 중 비중이 16.2%에 불과했다(그림 2-4 참고). 하지만 2009년 54.9%로 GCC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높

그림 2-4. 국가별 프로젝트 추진 비중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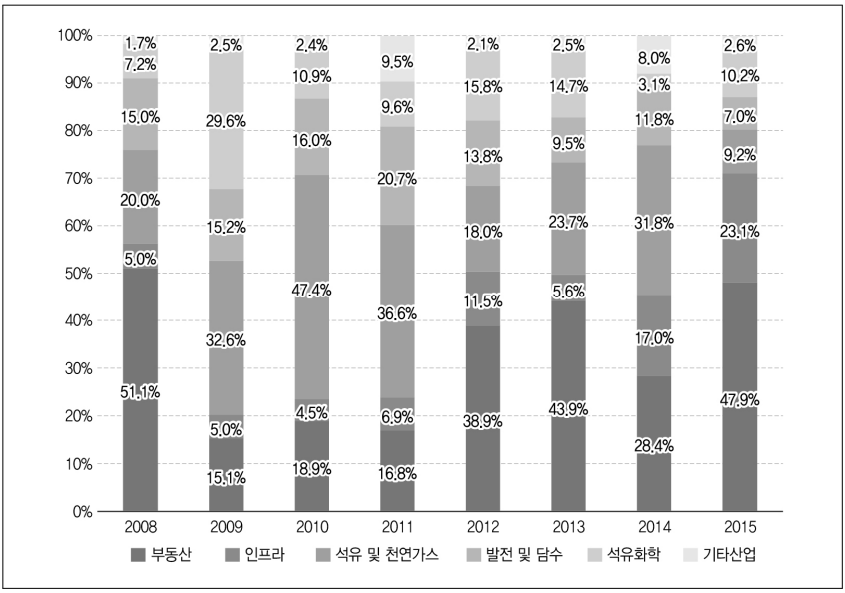
주: 2014년은 완공되었거나 완공 예정인 프로젝트, 2015년은 완공 예정인 프로젝트에 대한 통계임.
자료: Zawya, Projects, Projects Monitor data,
http://www.zawya.com/middle-east/projects/projectLookup.cfm (검색일: 2014. 3. 3).

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리고 2010년 29.6%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2015년에는 완공 예정인 총 프로젝트의 40.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정부 재정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조성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CC 프로젝트 시장에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008년 총 프로젝트의 59.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바 있는 UAE는 2009년 17.7%로 급감한 이후 약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카타르는 천연가스 부문을 중심으로 2011년까지 활발한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2011년 이후 대부분의 천연가스 관련 프로젝트가 완공되면서 그 비중은 이전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2020년에 두바이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고, 2022년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개최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양국에서 발주되는 프로젝트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쿠웨이트는 그동안 정부와 의회 간 갈등 등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많은 프로젝트가 취소 및 연기되면서 중동 전체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에 불과했으나 최근 정치적 불안요인이 다소 줄어들면서 2015년 이후에는 쿠웨이트의 프로젝트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 비중 변화를 비교해보면, 부동산과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비중이 늘어나고 석유 및 천연가스와 발전 및 담수 부문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2008년 총 프로젝트의 51.1%를 차지한 부동산 부문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두바이 모라토리엄 선언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09년 15.1%로 급감하였다(그림 2-5 참고). 하지만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3년 총 프로젝트의 43.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부문은 2008년 총 프로젝트의 5%에 불과했으나 이후 각종 산업 인프라에 대한 개발 수

그림 2-5. 산업별 프로젝트 추진 비중 변화

(단위: %)



주: 2014년은 완공되었거나 완공 예정인 프로젝트, 2015년은 완공 예정인 프로젝트에 대한 통계임.
자료: Zawya, Projects, Projects Monitor data,
http://www.zawya.com/middle-east/projects/projectLookup.cfm (검색일: 2014. 3. 3).

요가 증가하면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3.1%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발전 및 담수시설 관련 대형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접어들면서 그 비중이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프로젝트는 2015년 이후 그 비중이 감소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 민간 부문 참여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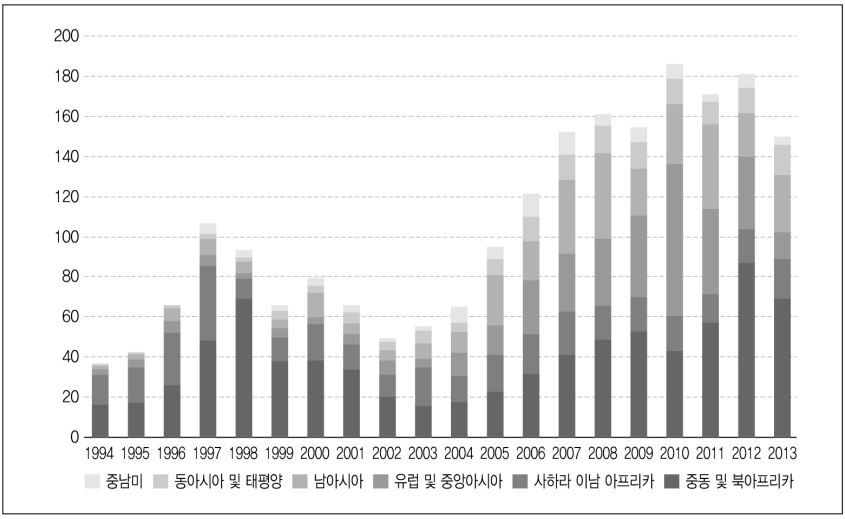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프로젝트 추진방식이 증가하고 있다.[6] 산업별로 모든 민관협력사업의 통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세계은행(World Bank)의 인프라 부문 내 민관협력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를 보면 통신, 에너지, 교통, 상하수도 등의 민관협력사업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동 부문에 1994년에는 359억 3,600만 달러가 투자되었지만 2010년에는 1,864억 8,000만 달러가 투자되어 민간 부문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6 참고).

또한 동 데이터베이스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남미가 가장 큰 비중을

그림 2-6. 인프라 부문 민관협력사업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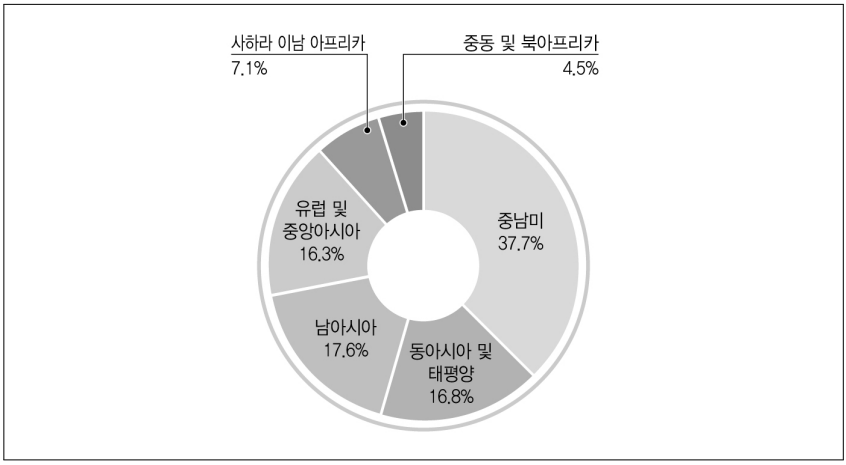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World Bank,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http://ppi.worldbank.org/explore/ppi_exploreRegion.aspx?regionID=5 (검색일: 2014. 8. 26).

6) 민관협력사업은 "민간이 정부를 대신하여 인프라, 자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사업 수행 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분담하되,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각자 소기의 목적(공공서비스의 제공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의미한다(맹준호 2012, p, 3).

그림 2-7. 인프라 부문 민관협력사업의 지역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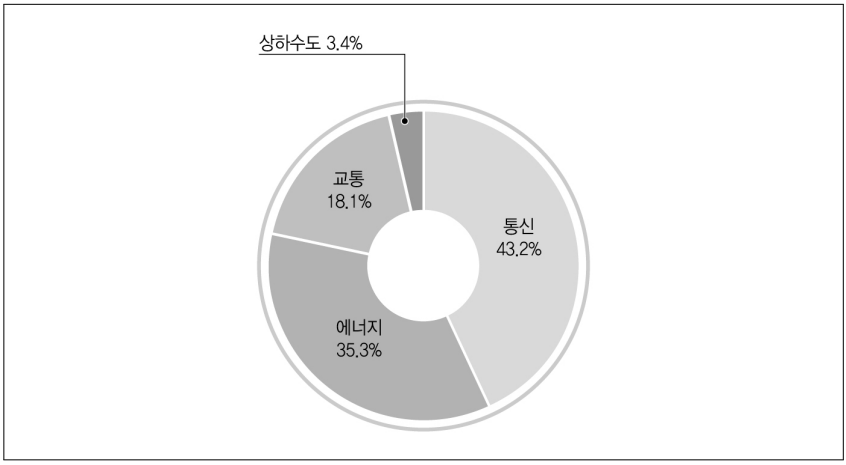


주: 1994년부터 2013년 사이의 누적액 기준
자료: World Bank,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http://ppi.worldbank.org/explore/ppi_exploreRankings.aspx (검색일: 2014. 8. 26).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4년부터 2013년까지의 누적 투자액을 기준으로 중남미지역이 3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과 남아시아, 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2-7 참고). 반면 같은 기간에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는 946억 1,000만 달러가 투자되어 전 세계의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통신 부문 비중이 43.2%로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는 에너지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8 참고).

중동의 인프라 부문 민관협력사업의 투자 추이를 보면, 1994년 9,300만 달러에 불과했던 투자 규모가 2007년에는 116억 1,200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그림 2-9 참고).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계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투자 위축 등 민간 부문의 투자 저조로 2008년에는 64억 8,000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도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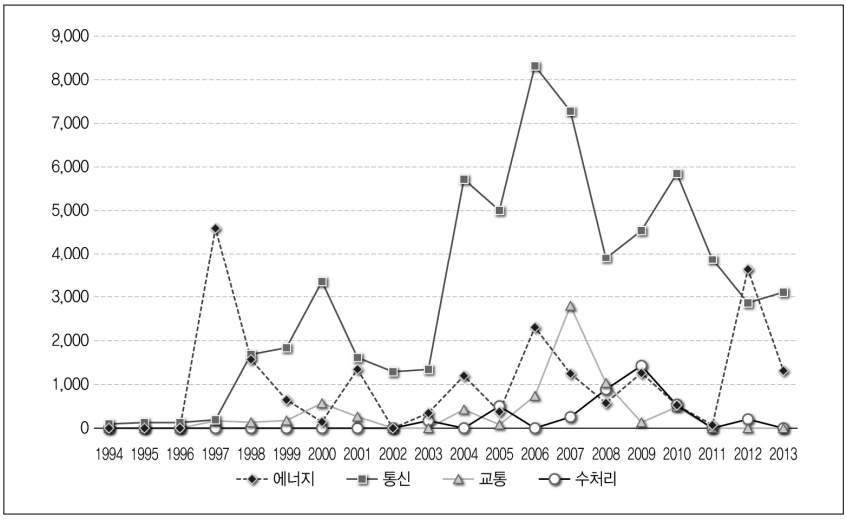
그림 2-8. 인프라 부문 민관협력사업의 산업별 비중



주: 1994년부터 2013년 사이의 누적액 기준.
자료: World Bank,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http://ppi.worldbank.org/explore/ppi_exploreRankings.aspx (검색일: 2014. 8. 26).

그림 2-9. 중동의 인프라 부문 민관협력사업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World Bank,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http://ppi.worldbank.org/explore/ppi_exploreRegion.aspx?regionID=5 (검색일: 2014. 8. 26).

억 6,100만 달러가 투자되는 데 그쳤다. 1994년부터 2013년에 투자된 누적 투자액을 산업별로 보면, 통신 부문이 592억 3,600억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63.6%)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발전소 건설과 천연가스 운송 및 생산 시설 등의 에너지 부문에 총 227억 7,600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2. 금융환경의 주요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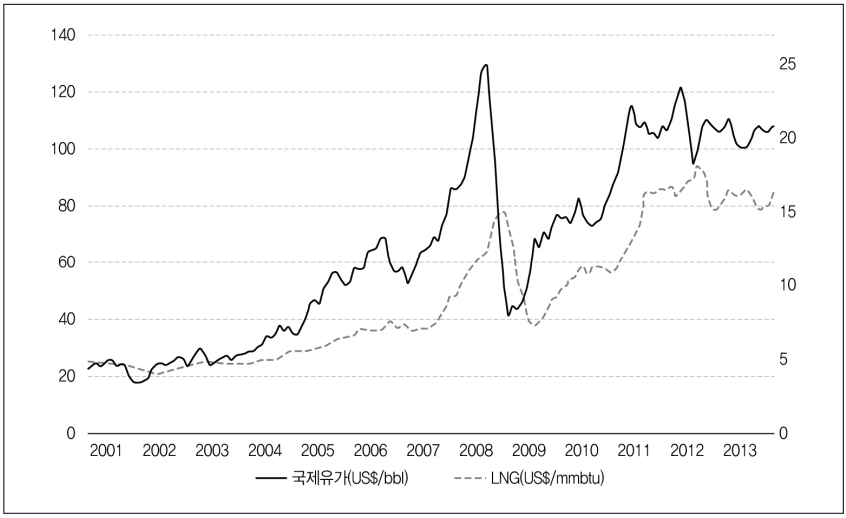
가. 고유가 기조의 유지

2000년대 초 이후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재정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2002년 20달러대에 머물렀던 유가는 2008년 131달러까지 상승하였으며, 2014년에는 100달러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2-10 참고). 또한 가스 가격도 2002년에 4달러대에서 거래되었으나 2014년에는 16달러를 넘어서며 2002년 대비 4배 이상 상승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를 비롯한 GCC 국가들은 세계 원유 생산량의 24.3%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7)]

GCC 국가의 재정 수입 중 석유 및 천연가스의 비중은 60%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을 사회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표 2-3 참고). 특히 석유 수출량이 많거나 비석유 부문의 발전 정도가 낮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서 재정 수입 중 에너지 비중이 높고, 산업다각화 정도가 높은 UAE와 카타르는 비교적 국가 재정의 에너지 의존도가

7) BP, Historical data workbook. http://www.bp.com/content/dam/bp/excel/Energy-Economics/statistical_review_of_world_energy_2013_workbook.xlsx (검색일: 2014. 3. 3).

그림 2-10. 국제 에너지 가격 변화 추이



주: 1) 원유가격은 두바이유 현물거래 기준.
2) 천연가스 가격은 LNG 중 일본 cif 가격 기준.

자료: World Bank, Data & Research, Commodity Markets, Historical Data,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PROSPECTS/Resources/334934-1304428586133/pink_data_m.xlsx (검색일: 2014. 3. 3) 토대로 저자 작성.

낮다고 할 수 있다. GCC 국가들이 석유 및 천연가스를 통해 얻은 이익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각종 국가 주도의 사회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투자

표 2-3. GCC 주요 국가의 재정수입 중 에너지 의존도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정부재정	원유수입	비중(%)
사우디아라비아	332,603	305,251	91.8
UAE	112,364	76,033	67.7
쿠웨이트	113,304	100,478	88.7

주: 2012년 정부 수입 기준.

자료: SAMA(2013), Economic Reports And Bulletins, Statistical publications, Yearly Statistics, http://www.sama.gov.sa/sites/samaen/ReportsStatistics/statistics/Pages/YearlyStatistics.aspx (검색일: 2014. 8. 26); UA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2013), Public Finance, http://www.uaestatistics.gov.ae/EnglishHome/ReportDetailsEnglish/tabid/121/Default.aspx?ItemId=2252&PTID=104&MenuId=1 (검색일: 2014. 8. 26); Kuwait Central Statistical Bureau(2012), p. 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와 보조금 지급,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임금 인상에 활용되었다. 특히 정부 주도의 건설 프로젝트는 다양화 및 대형화됨에 따라 자금 조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역내 은행을 포함한 금융 부문의 유동성도 확대되었다.

나. 역내 은행의 성장

중동 비지니스 관련 포털 사이트인 자위야(Zawya)의 데이터에 따르면 GCC 국가에는 120개의 은행이 현재 영업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중 UAE에 39개로 가장 많은 은행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바레인(25개), 카타르(19개), 사우디아라비아(16개), 쿠웨이트(12개), 오만(9개) 순이었다. 120개의 은행에서 상장 은행은 63개이며, 비상장 은행은 57개이다. 그리고 비상장 은행 중 외국계 은행이 35개로 가장 많았고, 개인 소유 은행 17개, 정부 소유 은행이 5개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GCC 은행 중 전통상업은행이 91개, 이슬람 은행은 29개로 나타났다.

120개 GCC 은행 중 재무 정보가 공개된 78개 은행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은행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GCC 6개국 78개 은행의 총자산은 1조 5,684억 달러였다.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4,754억 달러로 비중이 가장 컸으며, UAE가 그 뒤를 이었다(표 2-4 참고). 은행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바레인이었으나, 은행별 평균 자산규모가 64억 달러에 불과했다.

GCC 국가 전체적으로 소수의 대형 은행이 시장에서 높은 지배력을 가

8) Zawya, Companies, Build Company List, http://www.zawya.com/cm/analytics/ (검색일: 2014. 3. 3).

표 2-4. GCC 은행의 주요 현황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합계
은행 총자산 (억 달러)	4,754	4,725	2,545	2,147	972	540	15,683
은행 수(개)	12	23	10	11	15	7	78
전통상업은행(개)	7	16	6	6	7	7	49
이슬람은행(개)	5	7	4	5	8	0	29
평균자산(억 달러)	396	205	255	195	64	77	201.1
상위 3대 은행 비중(%)	46.6	49.7	68.4	67.2	66.9	67.2	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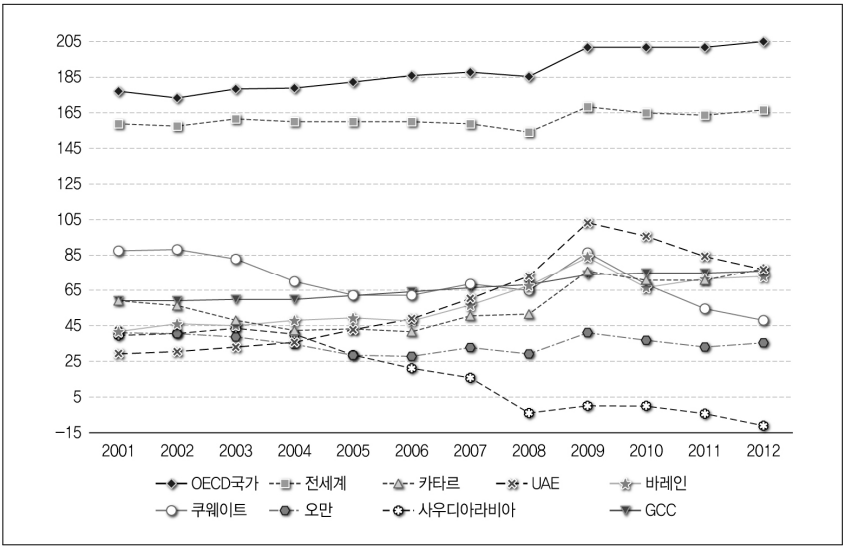
주: 1) 본 자료는 은행 정보가 공개된 78개의 은행 기준.
2) 상위 3대 은행 비중의 합계란 수치(61.0)는 국가별 비중의 단순평균값임.
자료: Zawya, Companies, Build Company List, http://www.zawya.com/cm/analytics/ (검색일: 2014. 3. 3).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CC 국가 중 카타르의 상위 3대 은행 자산 비중은 68.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각각 46.6%와 49.7%를 기록하였다. 평균 자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396억 달러로 가장 컸고, 카타르가 255억 달러, UAE가 205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2000년대 이후 GCC 지역의 국내 여신 비중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59.5%였던 GCC 평균 국내 금융 여신 비중은 2012년 76.4%로 상승하여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세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국가의 GDP 대비 평균 국내 금융 여신 비중은 2001년 이후 1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170%대에 달하며, 2009년 이후에는 200%를 넘어섰다(그림 2-11 참고).[9] 반면

9) GDP 대비 국내 금융 여신 비중은 금융기관의 발달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경제가 일정 규모 이상 발전한 국가의 경우, 한해 GDP 수준보다 높은 비중을 보인다. Anwar, Shabir and Hussain(2011), p. 263; 양오석・손성현(2012), p. 232 참고.

그림 2-11. GDP 대비 국내 금융여신 비중



주: 단위는 GDP 대비 비중(%)임.
자료: World Bank, Data, Domestic credit provided by financial sector,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FS.AST.DOMS.GD.ZS (검색일: 2014. 5.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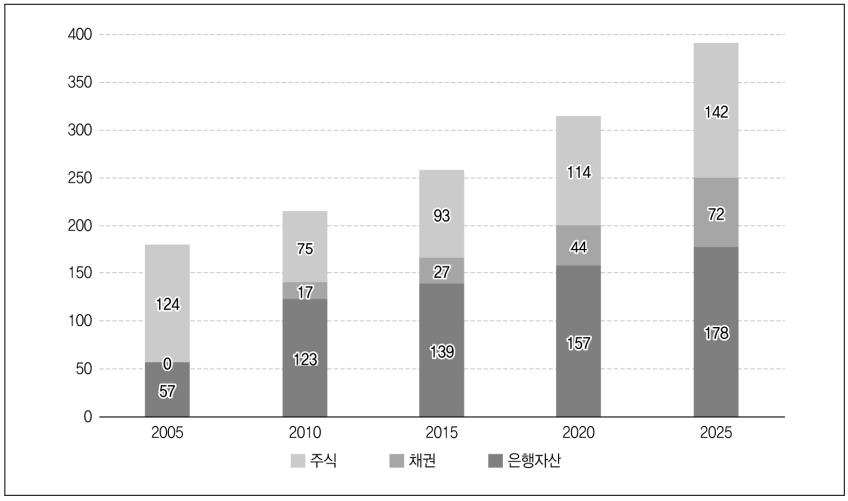
GCC 국가들의 경우 UAE를 제외하고는 100%를 넘는 국가가 없다.

또한 GCC 국가의 주요 금융 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은행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기준 GDP 대비 주식시장과 은행자산의 비중은 각각 124%와 57%였다(그림 2-12 참고). 그러나 2010년에는 주식시장은 75%로 감소한 반면 은행자산은 123%로 급증하였다. 앞으로도 금융자산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금융자산 중 은행자산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GCC 지역의 은행들은 과거 유럽 및 미국계 대형 은행이 주도했던 중동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 금융주간사(MLA: Mandated Lead Arranger)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3년 사이 중동 지역에서

그림 2-12. GDP 대비 자산형태 비중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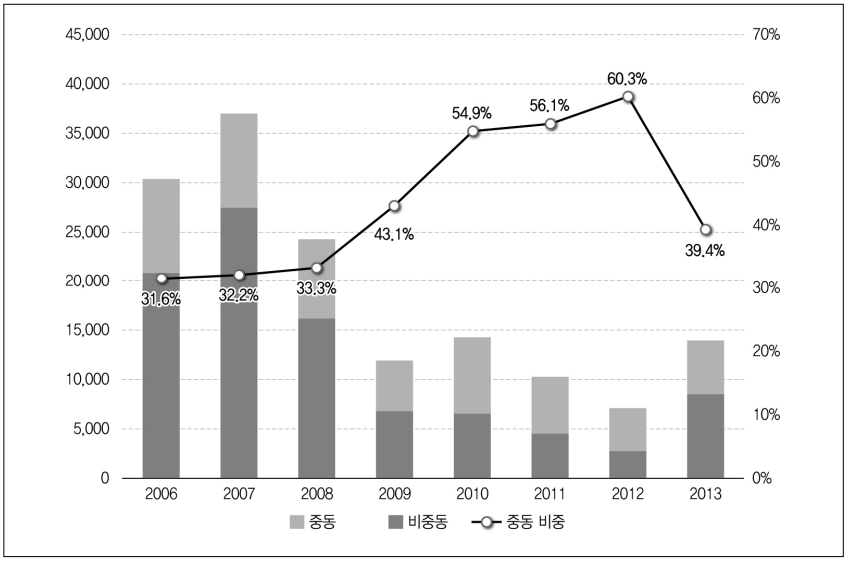


자료: Kern(2012), p. 23.

진행된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의 MLA 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에 404억 달러로 정점을 이룬 이후 2012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 상승세로 돌아섰다(그림 2-13 참고). 중동 내 MLA 대출 자금 감소는 주요 대주기관이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 및 경기침체에 기인한다. 최근 EU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요 유럽계 은행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중동의 은행은 2000년대 이후 고유가 기조에 따른 역내 유동성 증가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역내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금 수요가 증가하자 이에 지역의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MLA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2006년 중동 은행의 MLA 금융 조달 비중(금액 기준)은 31.6%였으나 중동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 규모가 축소되면서, 그 비중은 2012년 60.3%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2-13. 중동 프로젝트의 MLA 대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주: 그림의 %는 총 MLA 대출에서 중동 비중임.

자료: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2007), pp. 66-72; (2008), pp. 61-69; (2009), pp. 61-69; (2010), pp. 59-66; (2011), pp. 66-73; (2012), pp. 65-70; (2013), pp. 60-66.

연도별 중동 MLA 은행 순위(금액 기준)를 살펴보아도 GCC 은행들의 참여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06년의 중동지역 상위 10대 MLA 은행 순위를 보면 GCC 지역 은행은 바레인에 있는 Gulf International Bank가 유일하다(표 2-5 참고). 그러나 2007년 이후에는 사우디-프랑스 은행(Banque Saudi Fransi), 삼바 금융 그룹(Samba Financial Group), 사우디-영국 은행(Saudi British Bank), 사우디-네덜란드 은행(Saudi Hollandi Bank) 등 사우디아라비아 은행을 중심으로 MLA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MLA 참여를 활발히 하고 있는 중동은행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유럽계 은행의 지분이 높거나 GCC 국부펀드가 지분을 보유한 은행이 주를

표 2-5. 연도별 중동 프로젝트의 주요 MLA 순위

순위/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	ABN AMRO	Royal Bank of Scotland Group	BNP Paribas	Calyon	Banque Saudi Fransi	Samba Financial	Riyadh Bank Ltd	Mizuho
2	Mizuho Financial	BNP Paribas	RBS	SC	Natl Comml Bank Saudi Arabia	SMBC	Saudi British Bank	SC
3	Calyon	Citi	HSBC	Attijarawafa Bank	SC	KfW Bankengruppe	National Commercial Bank	SMBC
4	Gulf International Bank	Sumitomo Mitsui Banking Corp	Calyon	Banque Marocaine duComm Ext	Saudi British Bank	Mitsubishi UFJ	Banque Centrale Populaire	Mitsubishi UFJ
5	Mitsubishi UFJ	National Bank of Abu Dhabi	Societe Generale	HSBC	Credit Agricole	Mizuho Financial	Arab National Bank	HSBC
6	HSBC	Calyon	SMBC	Sumitomo Mitsui FinlGrp Inc	Samba Leasing	Banque Saudi Fransi	BNP Paribas	Samba
7	WestLB	SC	Samba Financial	Natixis	KfW Banken gruppe	Societe Generale	Saudi Hollandi Bank	KfW IPEX-Bank
8	Societe Generale	Mizuho Financial Group	Mitsubishi UFJ	National Bank of Abu Dhabi	HSBC	Saudi British Bank	SMBC	National Bank of Abu Dhabi
9	Citigroup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Arab Banking Corporation	Mashreq Bank	Societe Generale	HSBC	SC	Saudi British Bank
10	SC	Gulf International Bank	Societe Generale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Alinma Bank	Qatar Islamic Bank	Societe Generale	Citi

주: 순위는 해당 연도 프로젝트 참여 금액 기준.
자료: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2007), pp. 66–72; (2008), pp. 61–69; (2009), pp. 61–69; (2010), pp. 59–66; (2011), pp. 66–73; (2012), pp. 65–70; (2013), pp. 60–66.

이루고 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상위 10대 MLA 은행에 포함된 중동 은행 중에 Gulf International Bank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Public Investment Fund)가 9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카타르 홀딩(QH: Qatar Holding), 쿠웨이트 투자청 등의 주요 국부펀드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10] 그리고 아부다비 은행(National Bank of Abu Dhabi)은 UAE의 국부펀드인 아부다비 투자위원회(ADIC: Abu Dhabi Investment Council)가 6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ABC 은행(Arab Banking Corporation), 카타르 이슬람 은행(Qatar Islamic Bank), 리야드 은행(Riyadh Bank) 등도 각각 쿠웨이트 투자청(Kuwait Investment Authority), 카타르 투자청(Qatar Investment Authority), 공공투자펀드(Public Investment Fund) 등과 같은 국부펀드가 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11] 이와 같이 GCC의 주요 국부펀드들은 은행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대출과 같은 간접적인 형태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우디-프랑스 은행(Banque Saudi Fransi), 사우디-영국 은행(Saudi British Bank) 및 사우디-네덜란드 은행(Saudi Hollandi Bank)은 각각 프랑스의 Crédit Agricole Corporate & Investment Bank(31.1%), 영국의 HSBC Asia Holdings(UK) Limited(40.0%), 네덜란드의 ABN AMRO Bank(40.0%)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12] 유럽계 금융 기관은

10) Zawya, Companies, profile, Gulf International Bank, http://www.zawya.com/company/profile/999399/Gulf_International_Bank_BSC/ (검색일: 2014. 12. 5).

11) Zawya, Companies, profile, National Bank of Abu Dhabi PJSC, http://www.zawya.com/company/profile/973342/ (검색일: 2014. 12. 5).

12) Zawya, Companies, profile, Banque Saudi Fransi, http://www.zawya.com/middle-east/company/profile/4611/Banque_Saudi_Fransi/ (검색일: 2014. 12. 5); Zawya, Companies, profile, Saudi Hollandi Bank, http://www.zawya.com/company/profile/5368/Saudi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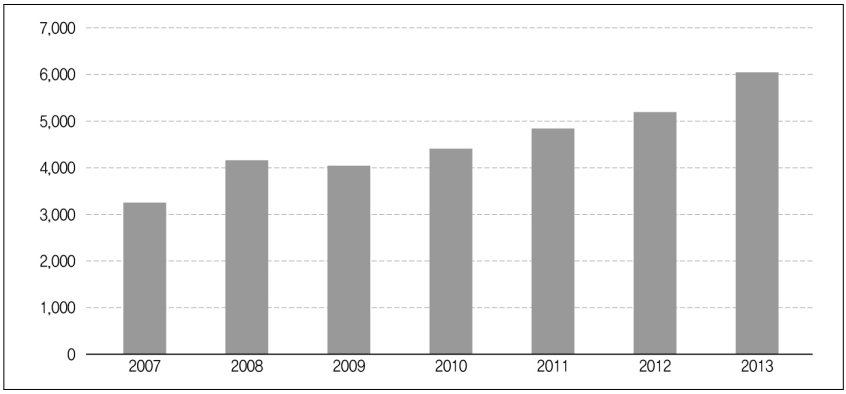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합작투자은행을 설립하고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와 오랜 경험, 자본력 등을 바탕으로 주요 MLA 기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국부펀드와 연기금의 역할 증대

GCC 국가들은 원유수출을 바탕으로 석유 고갈 이후를 대비하고자 국부펀드를 운용해왔으며, 최근 펀드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전 세계 국부펀드의 규모는 2007년 3조 2,590억 달러였으나, 2013년 6조 440억 달러 규모에 연평균 성장률(CAGR)은 10.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2-14 참고).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국부펀드 중에서도 GCC 국가들은 2000년대 이후 증가한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그 규모를 빠른 속도로

그림 2-14. 세계 국부펀드 증가 추이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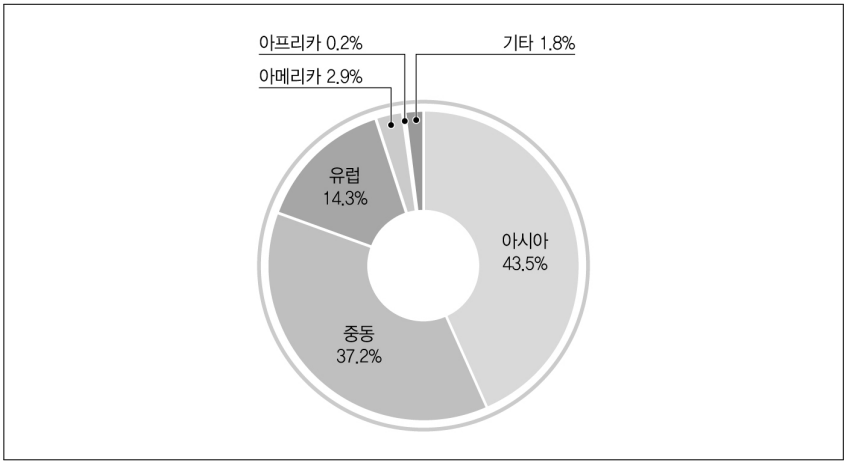


주: 국부펀드 규모는 연말 기준.
자료: SWF Institute, Fund Ranking,
http://www.swfinstitute.org/fund-rankings (검색일: 2014. 3. 26).

Hollandi_Bank/1040.SSE (검색일: 2014. 12. 15).

그림 2-15. 지역별 국부펀드 비중

(단위: %)



주: 2014년 3월 국부펀드 금액 기준.
자료: SWF Institute, Fund Ranking,
http://www.swfinstitute.org/fund-rankings (검색일: 2014. 3. 26).

확장해왔다. 그리고 2014년 전 세계에서 중동 국부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자산 규모 기준)은 37.2%로 아시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2-1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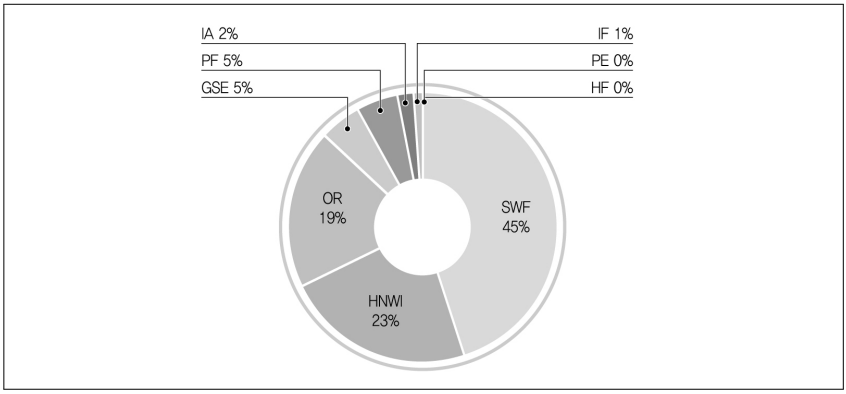
중동의 국부펀드는 사실상 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기관투자자이다. Kern(2012, p, 20)의 연구에 따르면 GCC 기관투자자의 규모는 약 6조 3,000억 달러이며 이것은 지역 GDP의 약 370%에 해당한다. 이 중 국부펀드는 총 자금의 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2-16 참고).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액순자산보유자(23%)와 외화보유액(19%)이며, 정부지원기업, 연기금, 보험기관 순으로 비중의 차이를 보였다.

주요 국부펀드의 규모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 SWFI(Sovereign Wealth

그림 2-16. 중동의 주요 기관투자자 비중

(단위: %)



주: SWF(Sovereign Wealth Fund, 국부펀드), HNWI(High Net Worth Individuals, 고액순자산가), OR(Official Reserves, 외화보유액), GSE(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정부지원기업), PF(Pension funds, 연기금), IA(Insurance company assets, 보험기관), IF(Investment funds, 투자펀드), PE(Private Equity Fund, 사모펀드), HF(Hedge Fund, 헤지펀드).

자료: Kern(2012), p. 20.

Fund Institute)에 따르면, 주요 80여 개 국부펀드에서 GCC 국가의 국부펀드는 총 14개이다.[13]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국부펀드는 아부다비 투자청(ADIA: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으로, 약 7,730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표 2-6 참고). 그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SAMA Foreign Holdings, 쿠웨이트 투자청(KIA: Kuwait Investment Authority), 카타르 투자청(QIA: Qatar Investment Authority) 등 1,000억 달러가 넘는 GCC 국부펀드가 10위권 안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GCC 국가들은 투자 목적, 전략, 포트폴리오를 달리하는 복수의 국부펀드를 신설하여 운용하기도 한다.

13) SWFI, Fund Rankings, http://www.swfinstitute.org/fund-rankings/ (검색일: 2014. 3. 26).

표 2-6. 주요 GCC 국부펀드 현황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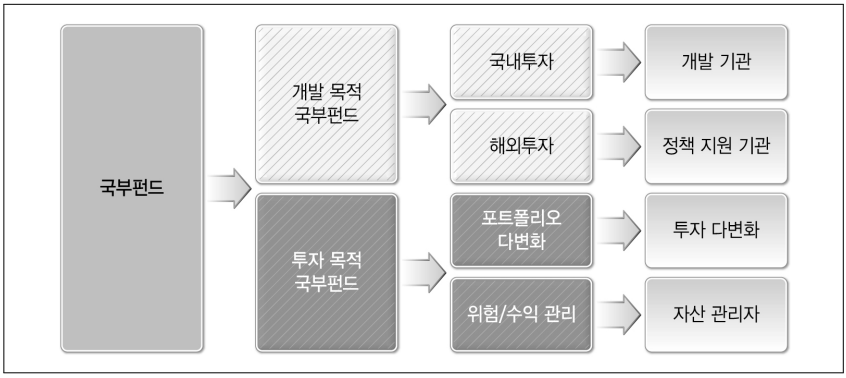
세계 순위	국가	펀드 명	규모	설립년도
2	UAE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773.0	1976
3	사우디	SAMA Foreign Holdings	675.9	n/a
6	쿠웨이트	Kuwait Investment Authority	410.0	1953
10	카타르	Qatar Investment Authority	170.0	2003
18	UAE	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70.0	2006
20	UAE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	65.3	1984
23	UAE	Mubadala Development Company	55.5	2002
40	UAE	Emirates Investment Authority	10.0	2007
41	오만	State General Reserve Fund	8.2	1980
42	바레인	Mumtalakat Holding Company	7.1	2006
47	오만	Oman Investment Fund	6.0	2006
51	사우디	Public Investment Fund	5.3	2008
59	UAE	RAK Investment Authority	1.2	2005
72	UAE	Abu Dhabi Investment Council	-	2007

주: 2014년 3월 기준.
자료: SWF Institute, Fund Ranking, http://www.swfinstitute.org/fund-rankings (검색일: 2014. 3. 26).

최근 국부펀드는 수익 추구 이외에 경제 개발 및 산업 발전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Invesco(2013, pp. 4-5)는 위험 추구 성향과 투자 선호 상품을 토대로 개발 펀드와 투자 펀드로 국부펀드를 구분하고 있다(그림 2-17 참고). 투자 펀드는 국가의 자산을 보전 및 증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패시브 투자 비중이 높고,[14] 평균 투자기간은 6.9년, 수익률 연 8%대를 목표로 한다(Invesco 2013, p. 5). 반면 개발 펀드는 투자를 통한 수익과 함께 고용 증대, 기술 및 지식기반 기업 육성, 산업 다각화, 석유 중심 GDP 구조 변화 등 경제 개발의 균형

14) 패시브 투자는 시장 수익률을 목표로 특정 지수를 추종하며, 주로 주식, 채권 등과 관련한 인덱스 펀드 등과 같은 상품에 투자한다.

그림 2-17. GCC 국부펀드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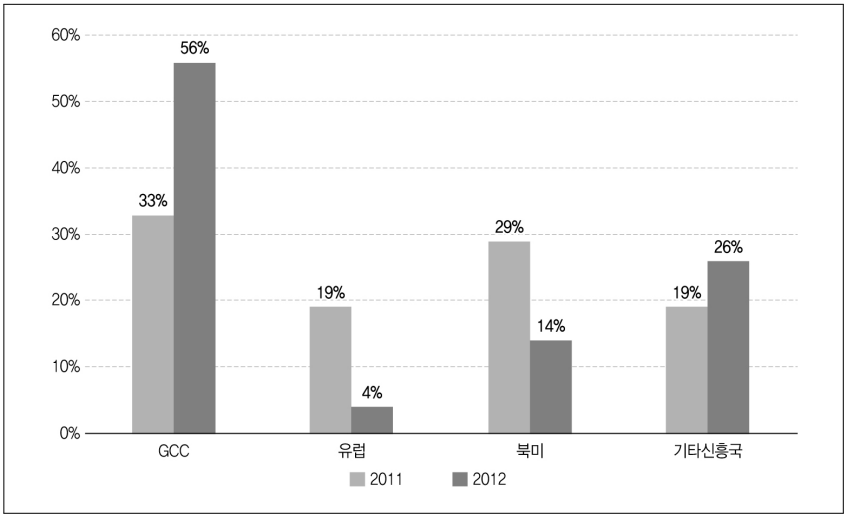
자료: Invesco(2013), p. 4.

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를 조성하거나 주주로서 사업에 참여하며, 평균 8년의 투자기간을 통해 연 14%의 고수익을 목표로 한다(Invesco 2013, p. 5).

GCC 지역 국부펀드는 단순히 국부 증대가 아닌 경제 및 산업 개발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GCC 국부펀드는 역내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KPMG(2013)의 연구에 따르면, 2011년 GCC 국부펀드의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48%였고, 역내에 대한 투자 비중은 33%였다(그림 2-18 참고). 그러나 2012년에 유럽과 선진국의 비중은 40%로 감소하였고 GCC 지역에 대한 투자는 56%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GCC 국부펀드의 역내 투자 증가는 대외적으로 유럽의 재정위기에 의해 주요 투자 지역인 유럽에 대한 투자 여건이 악화된 점과 대내적으로 아랍의 봄 이후 교육,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투자 증가, 신도시, 교통, 물류와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 진행과 같은 요인들에 기인한다. 그리고 2020년 두바이 엑

그림 2-18. 중동 주요 국부펀드의 투자 지역



자료: KPMG(2013), p. 20.

스포 및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유치로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규모가 1,42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국부펀드의 참여 증가로 역내 투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KPMG 2013, p.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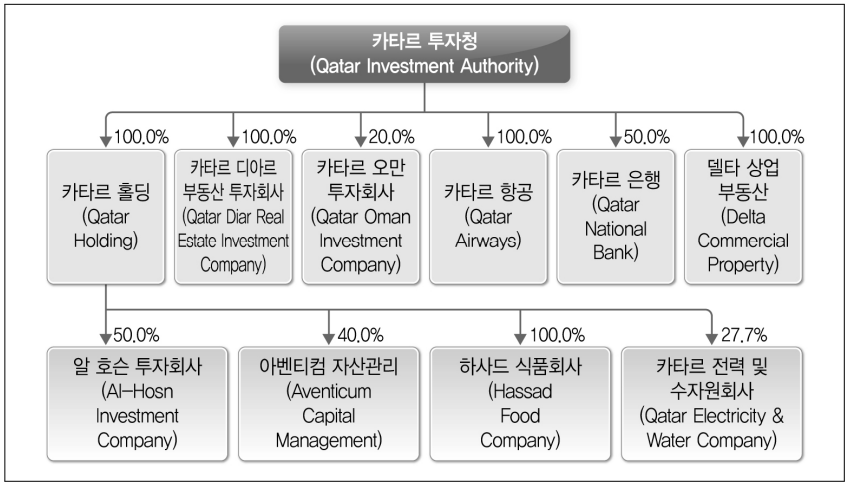
둘째, 기존의 선진국 국채, 다국적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부동산 투자 등의 투자 유형에서 비석유 부문 등을 포함한 역내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고 있다. GCC 지역의 국부펀드 중에서도 SAMA, 아부다비 투자청, 쿠웨이트 투자청 등의 투자 펀드는 여전히 선진국 국채 및 우량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바달라,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 공공투자펀드(Public Investment Fund), 걸프투자공사(GIC: Gulf Investment Corporation) 등의 개발 펀드들은 특정 산업 혹은 자국 내 산업 발전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역내 인프라 프로젝트나 플랜트 프로

젝트 등에 지분투자 등을 하면서 투자개발기업으로 참여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다. 특히 걸프투자공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슈카이크(Shuqaiq) II IWPP 프로젝트와 바레인의 알 두르(Al Dur) IWPP 프로젝트 그리고 이집트의 아인 수크나 철광석 펠레타이징 플랜트(Ain Sukhna Iron Ore Pelletizing Plant) 등의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대체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15)]

셋째, 자회사 및 자펀드(subsidiary fund), 사모펀드, 공동 투자 등을 통해 투자 전략을 다양화하고 있다. 흔히 아부다비 투자청, 쿠웨이트 투자청, 카타르 투자청 등과 같은 자산 가치 1,000억 달러 이상의 중동 국부펀드만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국부펀드들은 자회사 및 자펀드를 설립하여 투자 영역과 전략을 달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타르 투자청을 예로 들 수 있다. 카타르 투자청은 카타르 정부가 운용하는 1,7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국부펀드이다. 이 펀드는 카타르 항공, 카타르 국민은행, 델타 상업 부동산 등과 같은 자회사도 운용하고 있다(그림 2-19 참고). 카타르 국부펀드의 자펀드 중 하나인 카타르 홀딩은 자국 내 하사드 식품회사(Hassad Food Company), 카타라 호텔그룹(Katara Hospitality), 카타르 거래소(Qatar Exchange) 등과 같은 기업의 100% 지분을 보유한 투자기관이면서 동시에 카타르 투자청의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를 담당하기도 한다. 주로 해로즈 그룹(Harrods Group), 송버드 부동산(Songbird Estates), 히스로 공항 홀딩스(Heathrow Airport Holdings), 런던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폴크스바겐(Volkswagen) 등과 같은 해외 기

15) Zawya, Projects Monitor data, http://www.zawya.com/middle-east/projects/projectLookup.cfm (검색일: 2014. 3. 3).

그림 2-19. 카타르 국부펀드의 구조도



자료: Zawya, Companies, Build Company List, http://www.zawya.com/cm/analytics/ (검색일: 2014. 3. 3) 토대로 저자 작성.

업의 지분투자를 담당한다. 그리고 카타르 디아르 부동산 투자회사는 교통, 위락시설, 컨벤션 센터 등과 같은 각종 부동산 사업에 투자개발기업으로 참여하기도 하며, 카타르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PEF, M&A 등 다양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카타르 오만 투자회사(Qatar Oman Investment Company)는 카타르 투자청과 오만 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한 투자기업으로 카타르와 오만의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투자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카타르 국부펀드는 카타르 항공, 카타르 은행, 델타 부동산회사를 자회사로 두어 카타르의 산업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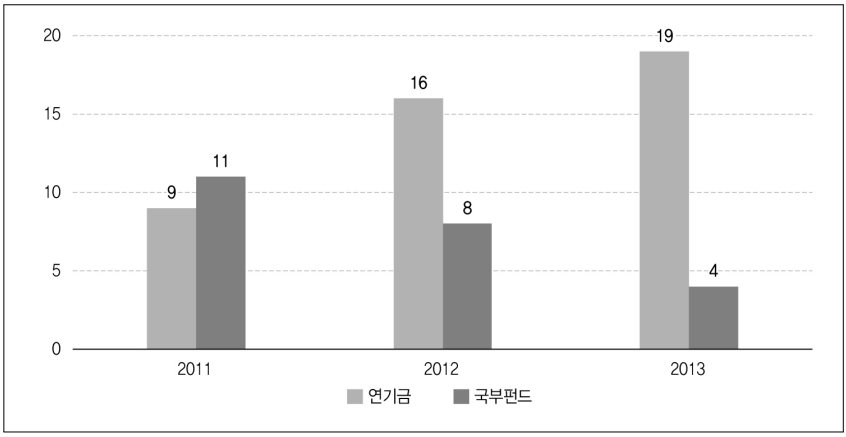
중동의 주요 기관 투자기관 중에는 국부펀드 이외에도 연기금이 있다. 중동 국가들도 고령 인구에 대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연기금을 조성해왔다. 그러나 기존에는 노령인구 비중이 높지 않아서 연기금은 중동 전

체 기관투자자금 비중에서 5%대에 불과했다(Kern 2012, p. 20). 하지만 최근에는 출생률은 감소하는 반면 전체 노동력 중에 연금을 지급해야 할 공공 부문 근로자의 비중 및 기대수명도 증가하면서 해당 자금의 지급 규모가 확대되어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향후 급속하게 늘어날 고령 인구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GCC 국가의 연기금은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높은 성장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국부펀드와 함께 중동의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해야 할 역할도 감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GCC 국부펀드의 최근 성장률은 감소하는 반면, 연기금은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GCC 국가의 연기금은 기존의 안전자산 일변도의 투자에서 일부 자금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도 분산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다(Kern 2012, p. 22). 그리고 중동 금융시장 내에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그림 2-20. 국부펀드와 연기금의 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Invesco(2013), p. 11.

표 2-7. GCC 국가의 주요 연기금

국가	주요 자금
사우디	Public Pension Agency
	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
UAE	Abu Dhabi Retirement Pensions & Benefits Fund
카타르	General Retirement and Social Insurance Authority
쿠웨이트	The Public Institution for Social Security
	Kuwait Awqaf Public Foundation
오만	Public Authority for Social Insurance
	Civil Service Employees Pension Fund
	Ministry of Defense Pension Fund
	Diwan of Royal Court (Diwan of Royal Court Pension Fund)
	Royal Oman Police Pension Fund
바레인	Social Insurance Organisation

자료: Zawya, Companies, Build Company List, http://www.zawya.com/cm/analytics/ (검색일: 2014. 3. 3) 토대로 저자 작성.

이 낮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금융 시장 및 자본시장 발달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Kern 2012, p. 22). GCC 국가들은 주로 공무원, 군인 등의 공공 부문 종사자들을 위한 복수의 연기금을 운영하고 있다(표 2-7 참고).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연금공단(Public Pension Agency)과 일반 사회보험기구(GOSI: 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가 있으며, 오만은 공공사회보험청(Public Authority for Social Insurance)과 국방부 연기금(Ministry of Defense Pension Fund) 등 5개의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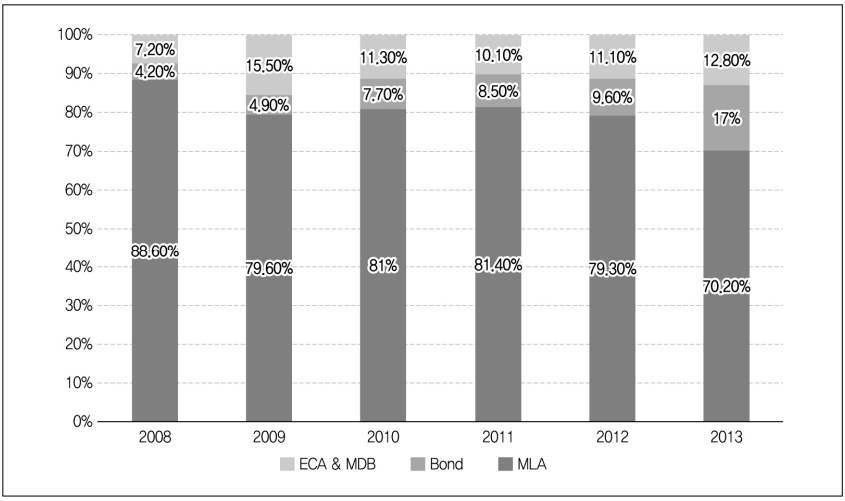
라. 다자 개발금융기관 및 수출신용기관의 역할 증가

최근 유럽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참여율이 낮아지면서 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과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전 세계 프로젝트 투자 자금 중 상업은행 대출 비중은 88.6%로 상당히 높았다(그림 2-21 참고).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유럽계 은행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고, 유럽 은행의 중동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 참여도가 낮아졌다. 그 결과 2013년 세계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 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70.2%로 2008년 대비 18.4% 포인트 감소하였다.

반면 미국과 유럽 대형 은행의 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등과 같은 MDB와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 같은 ECA의 직접대출 및 보증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2008년 7.2%였던 MDB와 ECA의 자금조달 비중은 2013년 12.8%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도 2008년 4.2%에 불과했

그림 2-21.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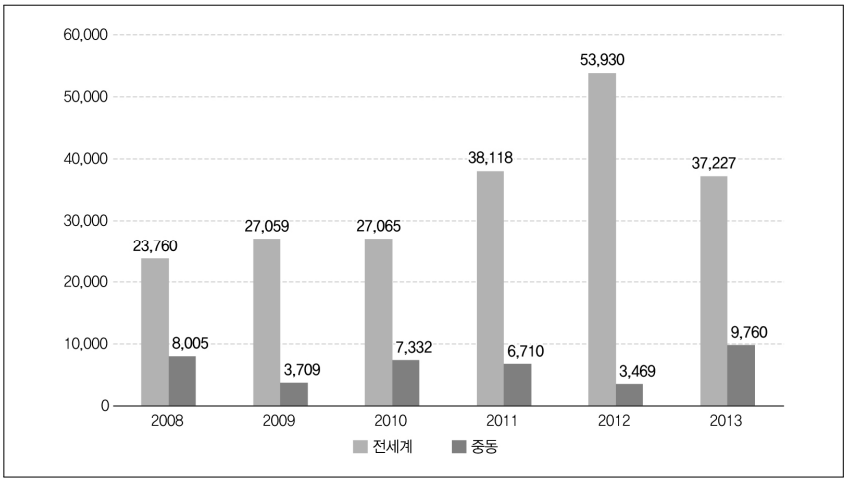
자료: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2009), p. 68, 90, 97; (2010), p. 50, 68, 74; (2011), p. 55, 75, 79; (2012), p. 48, 64, 67; (2013), p. 55, 73, 75; (2014), p. 52, 69, 71.

으나 2013년에는 17.0%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21 참고). 특히 최근 은행의 자본 건전성 개선을 위한 규제인 바젤 Ⅲ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총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총자산 대비 대출 비중을 줄여야만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앞으로도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참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ECA와 MDB의 자금조달과 함께 새로운 자금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MDB와 ECA의 절대 규모는 2012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13년에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중동에서의 MDB와 ECA의 시장 참여는 2012년까지 감소하다 2013년에 반등하였다(그림 2-22 참고). 2008년 전 세계 프로젝트에서 MDB와 ECA가 참여한 금액은 약 238억 달러였다.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2년에는 539억 달러로 2008년 대비

그림 2-22. MDB와 ECA의 전 세계 및 중동 프로젝트 참여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2009), p. 96–98; (2010), pp. 73–74; (2011), pp. 77–78; (2012), pp. 65–66; (2013), pp. 74–75; (2014), pp. 70–71.

226.4%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2013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중동 지역에서 대출 및 보증 형태로 이루어진 MDB와 ECA의 참여는 2008년 8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2년 약 35억 달러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약 98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였다. 또한 대형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과 같은 걸프 산유국에 집중되고 있는데, 개발 목적이 강한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등의 MDB보다는 자국의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유럽지역의 헤르메스(Hermes), 코파스(Coface), 일본의 JBIC, Nexi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과 같은 ECA의 참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16)]

3. 소결 및 시사점

최근 중동지역 국가들은 산업다각화를 위해 발전,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2020년 두바이 엑스포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등과 같은 국제 행사 개최, GCC 통합 철도망 건설 및 대규모 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별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GCC 국가들은 '아랍의 봄' 이후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회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정부 예산을

16)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2009), p. 96-98; (2010), pp. 73-74; (2011), pp. 77-78; (2012), pp. 65-66; (2013), pp. 74-75; (2014), pp. 70-71.

투입하고, 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 지출을 확대해왔다.

이는 중동 산유국들에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정부 재정을 통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더욱이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면 정부의 재정 흑자규모는 더욱더 줄어들 것이다. 반면 중동 프로젝트의 자금을 주로 조달해온 유럽계 은행들은 유럽의 재정 위기 및 바젤Ⅲ 도입으로 과거와 같은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GCC 국가들은 발주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할 수밖에 없고 이에 민간 부문의 자금 유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중동의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유럽계 은행의 중동지역 프로젝트 파이낸스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자 개발금융기관들로부터 새로운 자금 조달처를 찾아야 하고, 중동 내의 국부펀드, 은행, 연기금 등과의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중동의 상업은행은 2000년대 이후 고유가를 기반으로 급성장세를 보여왔으며, 주요 프로젝트의 지분 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부펀드 중에서 역내 산업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들은 산업 개발을 위한 비석유 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중동 자금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 형태에서 벗어나 자펀드 및 자회사 설립, 사모펀드 모집, 조인트 벤처 설립 등 투자 전략을 다양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기관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충분히 활용하여 새로운 중동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GCC 국가들이 일자리 창출과 산업다각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환경요인이다. 동 국가들

의 중소기업은 유통을 비롯한 서비스업 관련 업종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은 경기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GCC 국가들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한-GCC 중소기업 간 협력에 있어서도 양국 간 금융협력의 토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 간 합작 투자나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앞서 언급한 중동지역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중소기업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전략 및 사례

1.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2. IDB(Islamic Development Bank)
3.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1.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가. 개요

IFC는 1956년 설립된 세계은행 그룹의 한 기관으로서 빈곤 퇴치와 공동 번영을 설립 목표로 삼고 있다.[17] IFC는 MIGA(Multination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와 함께 민간부문에 직접적인 금융 및 보증 지원을 함으로써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등 주로 대정부 지원을 하는 세계은행 그룹의 다른 기관들과 구분된다.

IFC가 전략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 방향은 먼저 소득이 낮아 IDA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국가, 분쟁이 심각한 국가 및 신흥 중소득 국가 등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18]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적 ·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셋째,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식품 공급 사슬(food supply chain) 등 기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에서 민간 부문을 육성하고자 한다. 넷째, 현지 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도입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육성하고자 한다. 다섯째, IFC의 자원을 활용하여 신흥국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장기적 유대관계를

17) IFC, About IFC. http://www.ifc.org/wps/wcm/connect/corp_ext_content/ifc_external_corporate_site/about+ifc/vision (검색일: 2014. 10. 14).

18)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가는 2013년 기준 1인당 GNI가 1,215달러 이하인 국가를 말한다. 중소득 국가(middle-income countries)는 1인당 GNI가 1,046달러 이상, 12,745달러 이하인 국가를 말한다. World Bank, Country and Lending Groups, http://data.worldbank.org/about/country-classifications/country-and-lending-groups#IDA (검색일 2014. 10. 6) 참고.

구축하고자 한다.[19]

IFC의 민간 부문 투자는 기본적으로 대출과 지분 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출은 다시 IFC 고유의 계정에서 제공되는 A론(A-loan)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신디케이션 형태로 제공되는 B론(B-loan)으로 구분된다.[20] IFC의 대출 이자율은 민간 부문의 금융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장 이자율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IFC의 대출을 제공받게 되면 IFC의 국제적 인지도를 통해 프로젝트의 위험이 경감되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을 갖는다. IFC는 장기적 투자자로서 지분 매입을 통한 투자도 실시한다. 그러나 다른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위해 통상적으로 5~15% 정도의 지분을 매입하게 되며, 최대 20%를 넘지 않고,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도록 한다.[21]

지난 5년간 IFC의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도(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대비 9.9% 감소한 224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투자 금액의 조달 원천 측면에서는 외부 금융기관의 조달보다는 IFC 계정에서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도에는 투자 규모의 77.0%에 해당되는 172억 6,000만 달러가 IFC 고유의 계정에서 지출되었고, 나머지 51억 4,000만 달러는 IFC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에서 조달되었다(표 3-1 참고).

19) IFC(2013a), p. 66; IFC(2014b), p. 60.

20) IFC(2014a), p. 9.

21) IFC(2014a), p. 8.

표 3-1. IFC의 투자 추이(2010~14)

(단위: 백만 달러)

회계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프로젝트 건수		528	518	576	612	599
투자국 수		103	102	103	113	98
투자 규모	IFC 계정	12,664	12,186	15,462	18,349	17,261
	대외 조달	5,377	6,474	4,896	6,504	5,142
	소계	18,041	18,660	20,358	24,853	22,403

주: IFC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년도 6월 30일까지임.
자료: IFC(2013a), p. 108; IFC(2014b), p. 25.

나. 금융지원 전략

IFC의 고유 계정에서 지출된 지원액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무역 금융이 2011~14년 기간 동안 35~40%의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와 세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부문은 동 기간 동안 각각 20~25%의 비중과 10~15%의 비중을 나타낸 금융시장과 인프라 개발 부문으로 앞서 언급한 IFC의 전략적 사업 부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소비자 · 사회서비스, 제조업, 농림업 등이 5~10%를 차지한 반면 에너지 및 ICT 부문은 5% 미만의 비중을 나타냈다(표 3-2 참고).

지역별로는 지난 4년간(2011~14) 중남미 국가들에 가장 많은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그 비중은 25%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로서 2014년 20.5%의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 2013년부터 유럽 ·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보다 많은 금융지원을 받고 있다. 중동 · 북아프리카 지역은 2012년 이후 전체에서 차지하는 금융지원 비중이 점차 하락세를 나타내 2012년 14.3%에서 2014년에는 9.8%로 줄어들었다(표 3-3 참고).

표 3-2. IFC의 부문별 금융지원 규모 추이(2011~14)

(단위: 백만 달러, %)

회계연도	2011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무역 금융	4,653	6,003	6,477	7,007	40.6
금융시장	3,088	3,371	3,647	3,454	20.0
인프라	1,621	1,447	2,247	2,426	14.1
농림업	512	1,021	1,278	1,051	6.1
제조업	830	1,021	1,314	984	5.7
소비자 · 사회 서비스	445	1,375	1,635	928	5.4
ICT	337	247	472	489	2.8
펀드	434	484	890	480	2.8
에너지	229	491	389	441	2.6
총계	12,186	15,462	18,349	17,261	100.0

주: IFC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년도 6월 30일까지임.
자료: IFC(2011b), p. 12; IFC(2012), p. 28; IFC(2013a), p. 108; IFC(2014b), p. 25.

표 3-3. IFC의 지역별 금융지원 규모 추이(2011~14)

(단위: 백만 달러, %)

회계연도	2011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중남미	3,031	3,680	4,822	4,057	23.5
아프리카(SSA)	2,150	2,733	3,501	3,540	20.5
유럽 · 중앙아시아	2,682	2,915	3,261	3,478	20.2
동아시아 · 태평양	1,926	2,548	2,873	2,771	16.1
중동 · 북아프리카	1,603	2,210	2,038	1,698	9.8
남아시아	742	1,312	1,697	1,558	9.0
기타	50	63	156	158	0.9
총계	12,186	15,462	18,349	17,261	100.0

주: IFC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년도 6월 30일까지임.
자료: IFC(2011b), p. 12; IFC(2012), p. 28; IFC(2013a), p. 108; IFC(2014b), p. 25.

IFC의 중동 ·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부문별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금융시장 개발 부문이 2013년 75%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증가해왔다.[22]

표 3-4. IFC의 중동 · 아프리카 지역 주요 금융지원 사례(2013~14)

		주요 금융지원 사례
금융시장	무역금융	- 이라크 UBI Bank 등을 포함하여 10억 달러 상당의 무역 금융 지원(2013)
	중소기업 금융지원	-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로코 BCP 및 튀니지 Amen Bank 지원(2013) - 중소기업 지원 사모펀드 EuroMena III에 1,500만 달러 지원(2014)
	마이크로 파이낸스	- 요르단 마이크로 파이낸스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MEMCC Ⅱ, Tamweelcom Ⅱ에 투자(2013) - FINCA Jordan에 200만 달러 융자 제공(2014) - 모로코 Attawfiq Microfinance에 2,000만 달러 융자 제공(2014)
청년 일자리		- Hautes Etudes de Management Business School의 아랍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 프로젝트 등을 위해 700만 달러 투자(2013) - 직업훈련기관인 Luminus Group에 800만 달러 투자(2014) - 청년기업가 지원을 위한 벤처 캐피탈 펀드 Wamda Ventures에 1,000만 달러 투자(2014)
분쟁국 지원		- 아프가니스탄 통신사 Roshan에 6,500만 달러 금융 지원(2013) - 이라크 시멘트 제조사 Lafarge에 6,500만 달러 금융 지원(2013) - 이라크 에르빌에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1,400만 달러 투자(2014) - 팔레스타인 성장자본펀드(Growth Capital Fund)에 300만 달러 지분 투자(2014) - 예멘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금융인프라 구축 지원(2014)
에너지 및 기후변화		- 파키스탄의 에너지 절감형 오피스 빌딩(30층 규모) 건설을 위해 1,100만 달러 융자 제공(2013) - UAE Metito의 수처리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5,000 만달러 융자 제공(2013) - 파키스탄 UCH-II 발전소 지원(2014) - 이집트의 도시교통, 폐기물, 통신 부문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2014) - 요르단 Wind Project Company의 신재쟁에너지 발전시설 구축 지원(2014)
지역 통합 및 남남 투자		- 터키 직업훈련기관인 Plato의 이집트 진출 계획에 600만 달러 투자(2013) - UAE 항만 운영사 Gulftainer의 이라크 진출사업에 3,000만 달러 융자 제공(2013) - UAE 에너지회사인 TAQA의 가나 TICO사(社) 투자 지원(2013) - 바레인 담수 및 수처리 회사 Moya의 인도네시아 진출사업에 3,300만 달러 투자(2013) - 사우디아라비아 ACWA Power의 MENA 지역 에너지 수요 지원사업에 1억 달러 투자(2014) - 레바논 아우디 은행의 지역통합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달러 융자 제공(2014)

자료: IFC(2013b), pp. 4–7; IFC(2014c), pp. 2–7.

22) IFC(2013b), p. 3.

전 세계 금융시장 투자비중이 평균적으로 20~25%였던 것을 감안하면 3배 정도 많은 것이다. 주요 투자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 마이크로 파이낸스 확대, 은행 부문 IT 인프라 구축, 금융제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IFC는 이 사업들을 통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을 더욱 확대하고 청년과 여성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IFC는 중동 · 북아프리카 지역 사업과 관련하여 관료주의 완화, 분쟁국 지원, 기후 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지역 내 국가 간 또는 남남(South-South) 협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23]

다. 주요 지원 사례: 요르단 퀸 알리아 국제공항 프로젝트

요르단의 퀸 알리아(Queen Alia) 국제공항 프로젝트는 기존 공항시설의 개선과 신규 터미널 건설, 공항 운영 등을 모두 포함한 프로젝트로서 중동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된 공항 부문에서의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이다.[24] 퀸 알리아 국제공항은 1983년 건설되어 요르단의 대부분의 항공량을 처리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처리능력의 한계로 공항 시설의 신축이 불가피했다. 요르단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항공 교통정책을 자유화하고 민간 부문을 유치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허브 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25] 이는 요르단의 관광 수입을 늘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프로젝트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요

23) IFC(2014c), p. 1.

24) World Bank(2009), p. 1.

25) World Bank(2009), p. 2.

르단 정부는 앞서 언급한 정책 목표에 대해 공항의 민영화가 아닌 정부의 양허에 따른 민관협력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요르단 정부는 국제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AIG(Airport International Group)가 25년의 양허기간 동안 총수입의 54.58%를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프로젝트 회사가 되었다. AIG의 지분 투자는 AdPM(Aeroports de Paris Management), J&P Overseas, J&P Avax, 아부다비 투자위원회(ADIC: Abu Dhabi Investment Council), 누르 금융투자회사(Noor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및 EDGO 투자 홀딩스(EDGO Investment Holdings)에 의해 이루어졌다.[26] 이를 통해 요르단 정부는 공항에 대한 소유권도 유지하면서 공항으로부터의 재정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또한 지분 투자자 중에서 AdPM으로부터는 공항 운영 및 관리 부문, J&P로부터는 건설 부문에서의 전문성을 각각 활용함으로써 민관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둘째, IFC가 본 프로젝트의 금융 주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으면서 정치적 위험이 경감되었고, 이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졌다. IFC의 융자 금액 2억 7,000만 달러중에서 IFC 고유 계정으로부터 1억 1,000만 달러가 제공되었고,[27] 1억 6,000만 달러는 B론으로 조달되었다. B론에는 Europe Arab Bank, Calyon, Natixis, CIC, Piraeus Bank and Alpha Bank 등이 참여하였다.[28]

---

26) AdPM은 프랑스 파리공항그룹(Aeroport de Paris)의 자회사로서 프랑스 이외 지역의 공항에 대한 투자,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는 회사이다. J&P Overseas는 사이프러스 기반의 건설회사이며, J&P Avax는 J&P Overseas의 그리스 자회사이다. ADIC, EDGO 및 Noor는 각각 UAE, 요르단, 쿠웨이트의 투자회사이다. IFC(2011a), p. 16.

27) A론 7,000만 달러와 C론 4,000만 달러를 합한 금액임. IFC(2011a), p. 21.

28) IFC(2011a), p. 23.

표 3-5. 퀸 알리아 국제공항 프로젝트의 금융 조달 구조

(단위: 백만 달러, %)

			금액	차입금 대비 비중	비고
지분 투자 (53.5%)	AdPM J&P Overseas, J&P Avax, 아부다비 투자공사 누르 금융투자회사 EDGO 투자 홀딩스		425	-	
차입금 (46.5%)	IFC	A loan	70	18.9	17년 만기, 거치기간 4년
		B loan	160	43.2	16년 만기, 거치기간 4년
		C loan	40	10.8	18년 만기, 거치기간 15년
		소계	270	73.0	
	이슬람 개발은행(IDB)		100	27.0	17년 만기, 거치기간 4년
	소계		370	100.0	
합계			795	-	

주: 1) C loan은 준지분투자 형태의 대출을 의미함.
2) 예비자금(stand-by financing)은 사업주와 IFC가 각각 3,500만 달러와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자료: IFC(2011a) p. 21.

셋째, IDB(Islamic Development Bank)가 이스티스나(Istisna)와 이자라(Ijara) 방식으로 1억 달러 규모의 장기 융자를 제공하였다. IDB는 후술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들의 민간 부문에 의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최근 IDB는 이슬람 권역의 다자 개발금융기관으로서 프로젝트의 위험을 경감시키고 자금조달 원천을 다양화하기 위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29] 따라서 중동 ·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금융 조달을 위해서는 이슬람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슬람 금융방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29) 그러나 이슬람 금융방식과 전통적인(conventional) 금융방식을 결합할 경우, 이슬람 금융방식은 전통적 방식과 달리 실물자산의 거래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 또는 분쟁해결 방식에서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권형 · 손성현(2012), pp. 93~96.

2. IDB(Islamic Development Bank)

가. 개요

IDB는 샤리아(Shariah) 원칙에 따라 이슬람 회원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진보를 추구하기 위해 1975년 10월 설립된 다자 개발금융기관이다. 이때 샤리아 원칙이란 모든 금융거래에서 이자를 금지하고 이윤과 손실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30] 회원국은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에 속하는 56개국으로 구성된다.[31] 지역별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22개국, 중동 19개국, 아시아 8개국, 중앙아시아 7개국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IDB는 이후 이슬람 금융산업의 발전과 회원국 간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을 설치하여 IDB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표 3-6 참고).

표 3-6. IDB 그룹 개요

	영문명	설립 연도	목적	회원국 수
이슬람 개발은행	Islamic Development Bank(IDB)	1975	회원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진보 지원	56
이슬람 연구·훈련원	Islamic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IRTI)	1981	이슬람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훈련, 연구, 자문서비스 제공	-
이슬람 투자·수출신용보험공사	Islamic Corporation for the Insurance of Investment and Export Credit(ICIEC)	1994	수출신용보험 및 정치위험보험 제공	40
이슬람 민간부문개발공사	Islamic Corpo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tor(ICD)	1999	이슬람 자본시장 활성화, 투자재원 확보, 국가 간 투자 증대	52
국제이슬람무역금융공사	International Islamic Trade Finance Corporation(ITFC)	2008	회원국 간 무역 활성화 및 무역경쟁력 향상	37

자료: IDB(2013b), pp. 1-10; IDB(2013c), pp. 5-8 참고하여 저자 작성.

30) Islamic Development Bank, Principles of Operations, http://www.isdb.org/irj/portal/anonymous?NavigationTarget=navurl://91b765e29a0bbf4da579f0c9bbf5f83f 참고 (검색일: 2014. 10. 14).

31) OIC의 회원국은 총 57개국이며, 이중 가이아나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IDB 회원국임.

IDB 그룹의 금융 지원 규모는 2010년에 68억 4,000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2011년 82억 9,000만 달러로 늘어났고,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100억 5,000만 달러 및 105억 8,000만 달러에 이르는 등 최근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표 3-7 참고).[32] IDB 그룹 중에서 금융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은 IDB와 ITFC이다. IDB는 이스티스나(Istisna)와

표 3-7. IDB 그룹의 기관별 금융지원 추이(2009~13)

(단위: 백만 달러)

		1430H (2009)[1)]	1431H (2010)[1)]	1432H (2011)[1)]	1433H (2012)[1)]	1434H (2013)[1)]
IDB	대출	367.3	369.3	383.0	391.0	364.1
	지분 투자	167.0	114.5	68.1	333.6	28.8
	이자라	528.7	974.6	982.7	620.4	783.2
	할부금융	521.4	30.8	220.7	927.1	382.0
	혼합 금융	50.0	-	100.0	45.0	-
	무샤라카	-	100.0	100.0	50.0	-
	이스티스나	1,628.6	1,992.0	2,296.4	2,039.2	2,152.4
	무다라바	-	-	-	-	440.0
	기술 원조	33.6	19.0	35.2	21.9	13.4
	소계	3,296.6	3,530.1	4,186.0	4,428.2	4,163.9
ICD	지분 투자	52.9	153.0	120.8	146.3	216.5
	이자라	65.5	38.5	-	115.0	60.0
	이스티스나	-	-	25.0	15.0	-
	무라바하	69.0	52.7	135.0	132.6	149.0
	소계	187.4	244.2	280.8	408.9	425.5
ITFC	무라바하	1,941.4	2,554.6	3,033.4	4,466.0	5,008.5
기타		1,312.5	509.1	786.2	746.8	984.4
총계		6,737.9	6,838.0	8,286.3	10,050.0	10,582.3

주: IDB는 회계연도로 이슬람력(Hijri calendar)을 사용한다. 1430H는 서양력으로 2008년 12월 29일부터 2009년 12월 17일까지, 1431H는 2009년 12월 18일부터 2010년 12월 6일까지, 1432H는 2010년 12월 7일부터 2011년 11월 26일까지, 1433H는 2011년 11월 26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1434H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11월 4일까지를 말한다(이슬람력은 태음력으로 서양력과 정확히 일수를 일치시키기 어렵다). 본문에서는 편의상 ( )에 있는 서양력 연도를 사용하기로 한다.

자료: IDB(2013a), p. x; IDB(2014). p. xiv.

32) IDB 그룹의 회계연도는 이슬람력을 사용하나 본문에서는 편의상 가장 근사한 서양력 연도를 사용하기로 한다(표 3-5의 각주 참고).

이자라(Ijara)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지원하였으며, ITFC는 무역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립 목적에 맞게 무라바하(Murabaha) 방식을 통해 금융을 지원하였다. 이때 이스티스나는 앞으로 생산될 물품이나 건물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계약이며, 이자라는 리스(lease)와 같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이나 건물을 임대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무라바하는 금융기관이 자금 수취 기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33]

나. 금융지원 전략

IDB 그룹은 설립 이후 2014년 7월까지 누적된 금융 지원 규모의 절반 이상을 터키를 포함한 중동 · 북아프리카(MENA) 지역에 투입하였다.[34] 2013년의 경우 중동 · 북아프리카 지역 19개국은 43억 달러를 지원받은 반면 아시아 8개국은 35억 달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2개국은 15억 달러, 중앙아시아 7개국은 10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지출 승인을 받았다.[35]

국가별로 보면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 각각 전체 지원 규모의 15.6%와 8.6%를 차지함으로써 IDB 그룹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국가가 되었다.[36] MENA 지역에서는 터키(7.3%), 이란(6.2%), 이집트(6.0%), 모로코

33) 이슬람금융의 주요 계약 형태에 대해서는 이권형 · 손성현(2012, pp. 28~35) 참고.

34) Islamic Development Bank, IDB Group Open Data Initiative. http://www.isdb.org/irj/portal/anonymous?NavigationTarget=navurl://fe68ebaa6541fcf4c62134ea6d389185 (검색일: 2014. 10. 14).

35) IDB(2014), p. 3.

36) IDB(2014), p. xvi. 이 통계는 설립 이후부터 1434H 즉 2013년 11월 4일까지의 통계이다. 다음 문장의 ( )의 수치도 IDB 그룹의 전체 금융지원 규모에서 차지하는 국가별 비중을 나타낸다.

(6.0%), 사우디아라비아(4.9%) 등이 IDB 그룹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 중에서 프로젝트 관련 금융지원 규모를 비교해보면 이란이 총 81건에 34억 3,590만 달러를 지원받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DB 그룹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는 10위권에 들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무역금융 방식으로 지원되었다.

IDB는 회원국별로 맞춤형 개발 금융 지원을 위해 회원국 파트너십 전략(MCPS: Member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고 있다. 즉 국가별로 민간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함께 성장 애로 요인을 파악하고 국가 간 협력의 개발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37] 이 전략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16개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16개국 중 MENA 지역 국가로는 터키, 튀니지, 모로코, 쿠웨이트 등을 들 수 있다.

IDB의 부문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발전, 교통, 수자원, 위생 시설 등 인프라 부문에서 2012년 26억 달러가 지원된 데 이어 2013년에는 31억 달러가 지원되었다.[38] 이는 IDB의 전체 지원 규모 중 60~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IDB가 우선적으로 인프라 투자 지원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는 2013년의 경우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이 16%에 이르렀고, 교육과 보건의료 부문의 지원 비중은 각각 8.5%와 1.6%를 나타냈다.[39]

또한 IDB는 '아랍의 봄' 이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청년 실업문제를

37) IDB(2014), pp. 5-6.

38) IDB(2013a), p. 1, p. 19; IDB(2014), p. x.

39) IDB(2014), p. 4.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아랍 국가들을 위한 IDB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YES: Youth Employment Support)'이 2011년 만들어졌으며,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억 5,00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40] IDB 그룹은 YES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청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청년 개발 포럼(Youth Development Forum), 고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Education for Employment(e4e) Programme) 등도 운영하고 있다.

IDB는 안정적인 자금조달 재원을 확보하고 회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원조 효과성 제고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아랍 및 비아랍 개발금융기관과의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아랍 지역의 개발금융기관으로는 조정 그룹(Coordination Group)에 속한 다양한 기관들을 들 수 있다. 조정 그룹은 아랍지역의 양자 및 다자간 개발금융기관의 원조를 상호 조정하기 위한 포럼으로서 1975년 설립되었다.[41] 동 포럼은 IDB를 포함하여 10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주요 GCC 국가들의 개발 펀드뿐만 아니라 아랍 경제사회개발펀드, OPEC 국제개발펀드 등 다자 개발금융기관들도 소속되어 있다(표 3-8 참고). 아랍 지역 이외의 다자 개발금융기관으로는 세계은행 그룹을 비롯하여 아시아 개발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 유럽 개발은행 등과 인프라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협조 융자의 방식으로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있다(표 3-9 참고).

40) IDB(2014), p. 8.

41) IDB(2014), p. 24.

표 3-8. 국가별 프로젝트 관련 금융지원 규모(2013)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건수	금액	순위	국가명	건수	금액
1	이란	81	3,435.9	6	바레인	101	2,062.8
2	터키	131	2,993.7	7	사우디아라비아	112	1,999.9
3	파키스탄	105	2,847.1	8	이집트	60	1,900.4
4	인도네시아	127	2,420.8	9	튀니지	61	1,629.2
5	모로코	67	2,408.8	10	방글라데시	79	1,406.2

주: 프로젝트 관련 금융 지원 전체 규모는 468억 9,710만 달러임.
자료: IDB(2014), p. xvii.

표 3-9. IDB와 조정 그룹 간 금융협력 내용

기관명	영문명	주요 금융협력 내용
아부다비 개발펀드(ADFD)	Abu Dhabi Fund for Development	- 2009~13년 IDB 12억 달러, ADFD 7억 달러 협조 융자
아랍 걸프 개발기관 프로그램(AGFUND)	Arab Gulf Program for Development Organizations	- 2013년 수단에 알 엡다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 공동 설립
아랍 경제사회 개발펀드(AFESD)	Arab Fund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 2009~13년 9개 프로젝트에 IDB 11억 달러, AFESD 13억 달러 협조 융자
아랍통화기금(AMF)	Arab Monetary Fund	- 아랍 지역 고위 공무원을 위한 세미나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아랍 아프리카 경제개발은행 (BADEA)	Arab Bank for Economic Development in Africa	- 2013년 3개 프로젝트에 IDB 1억 2,000만 달러, BADEA 3,000만 달러 협조 융자
쿠웨이트 아랍 경제개발펀드(KFAED)	Kuwait Fund for Arab Economic Development	- 2009~13년 97개 프로젝트에 IDB 20억 달러, KFAED 12억 달러 협조 융자
사우디 개발펀드(SFD)	Saudi Fund for Development	- 2013년 8개 프로젝트에 IDB 6억 달러, SFD 2억 달러 협조 융자
OPEC 국제개발 펀드(OFID)	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2013년 5개 프로젝트에 IDB 1억 5,000만 달러, OFID 6,500만 달러 협조 융자
카타르 개발펀드(QDF)	Qatar Development Fund	- 2013년 조정 그룹에 참가

자료: IDB(2013a), pp. 32–33; IDB(2014), pp. 23–25.

표 3-10. IDB와 다자 개발금융기관 간 금융협력 내용

기관명	주요 금융협력 내용
세계은행 그룹	- 설립 이후 2013년까지 70여 개 프로젝트에 IDB 15억 달러, 세계은행 55억 달러 협조 융자 - 2013년에 3개 프로젝트에 IDB 5억 달러, 세계은행 6억 달러 협조 융자 - IDB-IFC 간 PPP 사업 협조 융자(요르단 퀸 알리아 국제공항 프로젝트 등) - MIGA-ICIEC 간 보험 연계(지부티 도랄레 컨테이너항 터미널 프로젝트 등)
아시아 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 설립 이후 2013년까지 30여 개 프로젝트에 IDB 13억 달러, ADB 30억 달러 협조 융자 - 2013년 방글라데시 Sylhet 발전소 효율성 개선 프로젝트에 IDB 8,500만 달러, ADB 1억 8,500만 달러 협조 융자
유럽 투자은행 (European Investment Bank)	- 2009~13년 5개 프로젝트에 IDB 7억 달러, EIB 10억 달러 협조 융자 - 2013년 방글라데시 Sylhet 발전소 효율성 개선 프로젝트에 IDB 8,500만 달러, EIB 9,800만 달러 협조 융자
아프리카 개발은행 (African Development Bank)	- 설립 이후 2012년까지 54개 프로젝트에 IDB 16억 달러, AfDB 35억 달러 협조 융자

자료: IDB(2013a), pp. 33-34; IDB(2014), p. 26.

다. 주요 지원 사례: 지부티 도랄레(Doraleh) 컨테이너항 터미널 프로젝트

지부티 공화국(Republic of Djibouti)은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인구 87만여 명의 작은 국가로 1인당 GDP가 1,700달러에 못 미치고 있다.[42] 대부분 사막지대이며 자연자원도 많지 않아 농업이나 제조업도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해상 운송량이 많은 홍해 입구에 위치해 있고, 내륙 국가인 에티오피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물류 서비스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크다. 실제로 지부티 항과 관련된 서비스 부문이 지부티 국민경제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부티 항을 통과하는 물동량의 70%가 에티오피아로 오가는 것이다.[43] 이에 지부티 정부는

42) World Bank, Data, http://data.worldbank.org/country/djibouti (검색일: 2014. 10. 14).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도랄레 컨테이너항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증가할 에티오피아 및 지부티의 해운 수요에 대응하고 동아프리카 및 남아프리카 지역으로의 환적 서비스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지부티 정부는 그린필드형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하기로 하였다.[44] 기존 지부티 항의 최대 물동량은 연간 40만 TEU에 불과하고, 항만 시설을 확장하거나 대형 컨테이너선을 받는 데에는 한계가 많았다. 이에 지부티 정부는 기존 항에서 8km 떨어진 도랄레(Doraleh)에 100만 TEU 이상의 대규모 컨테이너 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006년 12월 시작되어 2009년 11월 완료되었다.[45]

둘째, 지부티의 재정 한계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추진하였다. 프로젝트 사업자는 이를 통해 지부티 정부로부터 30년간의 양허권을 받고 국내외 개발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본 사업에서는 두바이의 부동산 개발회사 DP 월드(World)의 자회사인 DP 월드 지부티가 지부티 정부와 BOT(Build-Operate-Transfer) 계약을 체결하였다.[46]

셋째, 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3억 9,600만 달러로 이중 33.6%인 1억 3,300만 달러는 지분투자를 받았으며, 나머지 2억 6,300만 달러는 IDB, AfDB 등 다자 개발금융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기관들의 협조 융자

43) IDB(2013d), p. 2.

44) Standard Chartered(2010), p. 4.

45) 금융 종결은 2007년 12월 이루어졌다. Standard Chartered(2010), p. 31.

46) IDB(2013d), p. 2. DP 월드 지부티는 2000년부터 지부티 항의 터미널을 운영하여 현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방식으로 조달되었다.[47] 또한 세계은행 그룹의 하나인 MIGA는 10년 동안 전쟁, 내전, 몰수,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위험 경감에 크게 기여하였다.[48] 이와 같이 도랄레 개발 프로젝트는 세계은행, IDB, AfDB 등 국제적 인지도가 큰 다자 개발금융기관들이 참여하여 프로젝트 위험을 낮추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넷째, 2억 6,300만 달러 규모의 부채 조달중 1억 6,000만 달러는 이슬람 금융방식, 1억 300만 달러는 기존 금융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슬람 금융방식으로는 5개의 금융기관 즉 런던중동은행(Bank of London & The Middle East), 두바이 이슬람은행(Dubai Islamic Bank), 이슬람 개발은행(IDB), 스탠다드 차타드, 웨스트LB(WestLB AG) 등이 참여하였다. 기존 금융방식으로는 AfDB와 프로파코(Proparco) 등 2개의 기관이 융자를 제공하였다.[49]

표 3-11. 지부티 도랄레 프로젝트 금융구조

(단위: 백만 달러, %)

			금액	차입금 대비 비중	비고
지분투자 (33.6%)	PAID(Port Autonome International de Djibouti)		133	-	PAID(지부티 정부투자회사)가 66.7% 지분 투자
	DP World Djibouti				
차입금 (66.4%)	이슬람 금융	IDB	65	24.7	IDB 포함 5개 금융기관 참여
			160	60.8	
	전통금융방식		103	39.2	아프리카 개발은행, 프로파코
	소계		263	100.0	
합계			396	-	

자료: Standard Chartered(2010), p. 8, p. 33; IDB(2013d), pp. 2-3.

47) Standard Chartered(2010), p. 33.

48) MIGA(2008), p. 1.

49) Standard Chartered(2010), p. 33.

3.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가. 개요

JBIC는 일본 정부가 전액 출자(자본금 1조 3,910억 엔)한 정책금융기관으로 2012년 설립되었다.[50] 그러나 그 전신은 1950년 설립된 일본수출은행으로 수출신용기관(ECA)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51] JBIC의 업무를 세분하여 보면, 해외자원 개발 및 취득, 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및 향상, 지구온난화 관련 해외환경사업의 촉진, 국제금융질서로부터의 보호 등 4개 부문이다.

JBIC의 금융지원 형태는 크게 무역금융과 투자금융을 포함한 융자(loan)와 보증(guarantee) 및 지분 투자(equity participation)로 구분된다. 전체 금융지원 규모는 2012년도 4조 2,409억 엔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2조 2,061억 엔으로 크게 줄었다(표 3-12 참고). 지원 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융자와 보증 부문은 줄었으나 지분 투자면에서는 743억 엔에서 974억 엔으로 3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분 투자 비중은 2009년도 1% 미만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4.4%로 증가하였다. 반대로 보증 규모는 2010년도에 36.1%였으나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10% 아래로 감소하였다. 무역금융과 투자금융의 지원 비중도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무역금융의 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여 2013년도에 8.3%에 머물렀으나 투자금융의 비중은 동년도에 75.7%를 차지하였다. JBIC은 무역금융 위주의 수출입은행으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해외 투자의

50) JBIC의 일본내 이름은 國際協力銀行이다. JBIC(2014), pp. 2-3.

51) 1952년에는 수출입은행으로 개칭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2012), p. 35.

표 3-12. JBIC의 부문별 금융지원 추이(2009~13)

(단위: 십억 엔)

				2009	2010	2011	2012	2013
융자	무역금융	수출	선박	11.1	38.6	62.6	23.0	34.7
			플랜트	86.7	112.5	145.3	103.6	91.5
		수입	자원	8.2	169.5	172.6	304.3	56.2
	해외투자금융	자원		522.9	221.9	607.9	1,784.2	594.7
		기타		1,670.8	488.3	354.0	1,354.3	1,076.2
	사업개발금융			344.3	76.8	23.2	210.5	46.0
	브리지 론			-	-	—	83.2	-
	소계			2,644.1	1,107.9	1,365.7	3,863.3	1,899.6
보증				707.9	638.1	228.5	303.2	209.1
지분 참여				13.0	19.8	1.5	74.3	97.4
합계				3,365.1	1,765.9	1,595.9	4,240.9	2,206.1

주: 회계연도는 4.1-3.31임.
자료: JBIC(2014), p. 90.

비중을 늘려 개발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2]

JBIC의 금융지원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3년도의 경우 북미지역이 6,540억 엔으로 가장 많으며, 비중으로는 29.6%를 차지하고 있다(표 3-13 참고).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그 비중이 10% 미만에 그쳤으나 2012년도에는 16.8%로 증가함으로써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의 셰일 가스 및 오일 개발 등으로 개발사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53] 반면 중동지역은 2010년도에 지원 비중이 23.2%에 이르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3년도에는 4.8%를 나타냈다.

52) JBIC의 설립 초기인 1955년도에 수출금융의 비중은 98%에 달했다. JBIC(2013), p. 12.
53) JBIC(2013), p. 12.

표 3-13. JBIC의 지역별 금융지원 추이(2009~13)

(단위: 십억 엔)

	2009	2010	2011	2012	2013
아시아	851.0	221.5	269.9	513.6	472.7
대양주	175.4	8.3	170.4	1,005.7	292.9
유럽	518.3	62.4	216.6	660.6	350.3
중동	102.6	409.3	232.4	305.9	104.8
아프리카	25.7	66.3	3.3	84.3	81.1
북미	495.9	148.5	113.6	710.8	654.0
중남미	511.5	426.2	415.5	805.5	209.1
기타	684.2	423.0	173.8	154.2	40.8
합계	3,365.1	1,765.9	1,595.9	4,240.9	2,206.1

주: 회계연도는 4.1-3.31임.
자료: JBIC(2014), p. 90.

나. 금융지원 전략

JBIC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가 출자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자국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분야별 정책에 따라 자국 기업에 금융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JBIC(2014)에 따르면, 앞서 제시된 JBIC의 4개 업무 부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6가지의 분야별 업무전략을 수립하였다(표 3-14).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JBIC은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주로 자원 및 에너지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중 자원 및 에너지 개발은 2011년 대지진 및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에너지 안보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JBIC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서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

표 3-14. JBIC의 분야별 업무 전략

전략	과제
자원정책 및 계획 등을 고려한 자원 개발 및 수입 지원	- 환율정책, 일본 대지진 이후의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상류 부문 개발 지원 및 안정적 조달 지원
글로벌 환경보전 분야 지원	-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고효율발전 등 환경 프로젝트 지원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지원	- 일본 기업의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적극적 지원 - 전략적으로 필요한 프로젝트 발굴 지원 강화
중견 ·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중견 ·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 강화 - 세미나, 상담회 등 정보 제공 기회 확대
일본 기업의 전략적 해외사업 지원	- 일본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전략 및 공급사슬 강화 지원 - 환율정책 등을 고려한 M&A 지원
국제금융질서의 혼란 방지 및 피해 대응	-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제금융질서의 혼란 방지 및 피해 대응

자료: JBIC(2014), pp. 9-12.

고하려고 하는 측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6개 분야에 공통되는 업무 관련 기본전략으로서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54] 첫째, 민간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JBIC이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민간 비즈니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을 지원할 경우 JBIC 단독으로만 지원하기에는 유동성이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조 융자가 전략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다.

둘째, 지분 투자, 현지 통화 조달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수단을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지분 투자는 일본 기업이 해외 프로젝트에 일정 지분을 투자한 경우나 업무 제휴를 위해 외국 기업에 지분을 투자한 경우에 JBIC는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54) JBIC(2014), pp. 12-13. 이에 따르면 업무 이외에 조직 및 재무 부문에 대해서도 기본전략을 마련해놓고 있다.

JBIC는 일본 기업이 주도적으로 조성한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일본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외국계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다.

셋째, JBIC이 정부 소유의 공적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현지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나 다자 개발금융기관과의 협상력을 발휘하려고 한다. 특히 최근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민관협력사업(PPP)이 증가 추세에 있고, IFC, IDB, ADB 등과 같은 다자 개발금융기관이나 각국별 수출신용기관(ECA)의 금융 지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협상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협조 융자를 위해서는 여타 개발금융기관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고 협상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지역별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앞서 JBIC의 중동지역에 대한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동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출금융 및 보증 부문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수출 금융의 경우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각각 전 세계 지원규모의 18.7%와 22.3%를 차지하였다. 해외투자금융 부문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전 세계 대비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외투자금융 규모 면에서는 중동지역이 2012년도 116억엔에서 2013년도 765억엔으로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JBIC이 개발금융기관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중동지역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별 금융지원 규모를 보면, 중동지역에서 융자가 가장 많이 지원된 국가는 최근 3년간(2011~13) 기준으로는 UAE가 2,356억 엔으로 가장

표 3-15. 중동 · 북아프리카의 부문별 금융지원 추이(2012~13)

(단위: 십억 엔)

		중동		북아프리카	
		2012	2013	2012	2013
융자	수출	6.6	28.2	17.1	-
	수입	191.1	-	-	-
	해외투자	11.6	76.5	-	-
	사업개발금융	7.0	-	-	-
	소계	216.3	104.7	17.1	-
보증		89.4	-	25.0	22.4
합계		305.9	104.8	42.1	22.4

주: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 불일치.
자료: JBIC(2014), pp. 94-95.

많고, 그 다음으로는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등 GCC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지난 3년간 모로코 이외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프로젝트 수요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발굴과 금융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6월에는 아프리카 민간부문 주도 성장전략을 지원하고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JBIC 아프리카 투자무역 향상 프로그램(JBIC FAITH(Facility for African Investment and Trade Enhancemen))'을 만들고, 향후 5년간 아프리카에 대해 50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밝힌 바 있다.[55]

55) JBIC(2013), p. 65. FAITH는 2009년 4월 설립된 FAI(Facility for African Investment)를 발전시킨 프로그램이다.

표 3-16. 중동 · 북아프리카지역의 국가별 금융지원 규모

(단위: 십억 엔)

		2011	2012	2013	누적
중동	바레인	-	-	-	110.4
	이란	-	-	-	1,026.8
	이라크	-	-	-	219.9
	요르단	-	-	-	79.8
	쿠웨이트	-	-	65.4	203.9
	오만	53.0	-	10.3	296.4
	카타르	46.4	-	-	738.6
	사우디아라비아	-	-	18.5	703.2
	터키	7.6	13.7	10.4	621.1
	UAE	32.8	202.8	-	1,461.2
	예멘	-	-	-	35.8
	그 외	-	-	-	212.0
	총계	140.0	216.5	104.8	5,709.8
북아프리카	알제리	-	-	-	971.8
	이집트	-	-	-	240.5
	모로코	-	17.1	-	48.4
	그 외	-	-	-	108.1
	총계	-	17.1	-	1,368.9

주: 무역금융 및 투자금융 포함. 융자보증 부문은 제외.
자료: JBIC(2013), pp. 87–88. JBIC(2014), pp. 97–98.

다. 주요 지원 사례: 카타르 바르잔(Barzan) 가스 프로젝트

바르잔 가스 프로젝트는 2011년 1월 체결된 카타르 석유공사(QP: Qatar Petroleum)와 미국 엑손 모빌의 합작 사업으로서 점증하는 카타르의 가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가스생산 플랜트를 설치 · 운영하는 프로젝트이다.[56] 카타르는 국가 비전 2030에 따른 산업다각화 추진과

56) RasGas, Operations, http://www.rasgas.com/Operations/BarzanGasProject.html (검색일:

공항과 항만의 신규 건설, 2022년 월드컵 개최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스전은 라스 라판 산업도시(Ras Laffan Industrial City)에서 동북 방향으로 80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2개의 트레인(train)으로 구성된 바르잔 가스 플랜트에 가스를 공급하여 2015년부터 일일 14억ft^3의 가스가 생산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의 EPC 계약은 현대 중공업(해상 설비)과 일본의 JGC(육상 설비)가 맡았고, 생산설비의 운영 및 관리(O&M)는 카타르의 라스가스(RasGas)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57]

본 프로젝트의 특징은 먼저 총비용이 10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면서 발주자(QP)가 입찰 기업에 금융 조달 방안 제출을 요구했다는 점이다.[58]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EPC 계약 업체라 하더라도 수주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 조달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EPC 계약업체와 수출신용기관(ECA) 등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관계가 계약 수주 능력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 두 번째의 특징으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 본 프로젝트의 총비용 중 30%는 지분투자로, 나머지 70%는 차입금으로 조달되었는데, 차입금중 1/3 이상을 수출신용기관이 담당하였다(표 3-17 참고). 앞서 언급한 두 EPC 계약업체의 국적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10억 달러, 일본 수출신용기관인 JBIC이 NEXI와 함께 12억 5,000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탈리아 수출신용기관인 SACE가 3

2014. 10. 21).

57) RasGas, Latest News. http://www.rasgas.com/Media/press_rasgas_barzan95percernintranets.html (검색일: 2014. 10. 21).

58) 기획재정부(2012), p. 7.

억 2,000만 달러를 담당하였다. 이는 수출신용기관이 단순히 무역금융에 머물지 않고,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을 통한 융자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해외 프로젝트 수주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역할과 함께 국가적 개발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앞서 언급한 IFC 및 IDB의 지원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에서도 이슬람금융기관이 8억 5,000만 달러의 융자를 제공하여 차입금의 11.8%를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동지역에서의 이슬람 금융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프로젝트 자금 조달의 원천으로서 이슬람 금융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향후에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있어서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의 중동 진출 기업 및 금융기관은 이슬람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슬람 금융기관

표 3-17. 카타르 바르잔 가스 프로젝트 금융구조

(단위: 백만 달러, %)

			금액	차입금 대비 비중	비고
지분투자(30%)			3,084	-	QP 93%, 엑손모빌 7%
차입금 (70%)	수출신용기관 (ECA)	한국수출입은행	1,000	13.9	한국 ECA
		JBIC/NEXI	1,250	17.4	일본 ECA
		SACE	320	4.4	이탈리아 ECA
		소계	2,570	35.7	
	상업은행		2,272	31.6	
	이슬람 금융		850	11.8	
	프로젝트 채권(bond)		1,000	13.9	
	주주 대출(shareholder loan)		504	7.0	
	소계		7,196	100.0	
합계			10,280	-	

자료: 김영기(2013), p. 19; 기획재정부(2012), p. 8.

과의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주요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대중동 금융지원 전략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중동지역은 산유국의 풍부한 유동성과 국제사회의 원조 등을 바탕으로 산업다각화를 위한 인프라 및 산업시설 건설, 발전시설 확충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면서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앞서 언급한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전략이나 투자 패턴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 언급된 사례들에 기반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먼저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공적수출신용기관을 비롯하여 다자 개발금융기관, 국가별 개발금융기관, 국제상업은행, 현지 상업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기업들이 투자개발기업으로서 전반적인 금융구조를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혼합금융방식을 이해하고 각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슬람개발은행이나 현지 이슬람은행 등을 통해 이슬람금융기법을 활용한 재원 조달이 활성화되고 있다. 아직은 이슬람금융자산의 투자가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최근 고유가를 기반으로 그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혼합금융을 활용한다는 차원에

서 이슬람금융기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슬람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젝트의 성격을 살펴보면, 산유국에서는 석유 및 가스자원을 활용한 프로젝트가 많은 반면 비산유국에서는 발전시설, 항만시설 등 기본적인 산업 인프라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개발'의 관점에서 민간 부문을 육성하기 위해 IFC, MIGA 등 민간 부문에 투자하는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참여가 활발하다. 또한 비산유국 정부의 '보증' 등을 통한 정책 의지가 결합되면서 민관협력사업(PPP) 구조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이 해외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즉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저소득국 정부와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민관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국내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의 진출 과정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당해국 정부의 보증과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참여로 국가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혼합금융을 위한 재원 조달도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중동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 현황
2. 최근 정부의 금융지원정책 동향
3. 중동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및 한계
4. 소결

1.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 현황

우리나라의 대중동 직접투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는 1968년「외국환관리규정」이 신설된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1968년 이후 우리나라의 전 세계 누적 투자 2,651억 달러 중 중동 19개국에 대한 투자는 64억 달러로 전체의 0.24%에 불과하다.[59][60] 또한 대중동 투자 비중은 동 지역과의 교역 비중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의 대중동 교역 규모는 1,645억 달러로 전체 무역 규모의 15.3%인 데 반해,[61]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중동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6억 336만 달러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62]

우리 기업의 중동 투자 규모를 국가별로 분석해 보면 예멘(20.3%), 터키(17.4%), 사우디아라비아(15.6%), UAE(14.6%), 오만(8.9%)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1 참고).[63] 진출 부문은 예멘과 오만은 광업, 터키는 제조업, 사우디아라비아는 건설업, UAE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이 많았다. 한편 중동지역에 대한 업종별 투자 비중은 광업(40.6%), 제조업(22.9%), 건설업(18.2%), 부동산업 및 임대업(6.8%),

---

59) 본고의 중동지역은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튀니지, UAE 등 19개국을 포함한다(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검색일: 2014. 8. 13).

60) 현행「외국환거래법」제3조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는 "증권 취득 또는 금전 대여, 해외법인・지점・사무소 설립 및 해외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 지급 행위 등"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법률 제11407호(2012. 3. 21. 개정)」)

61) UN Comtrade(검색일: 2014. 9. 24). 2013년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는 1조 752억 달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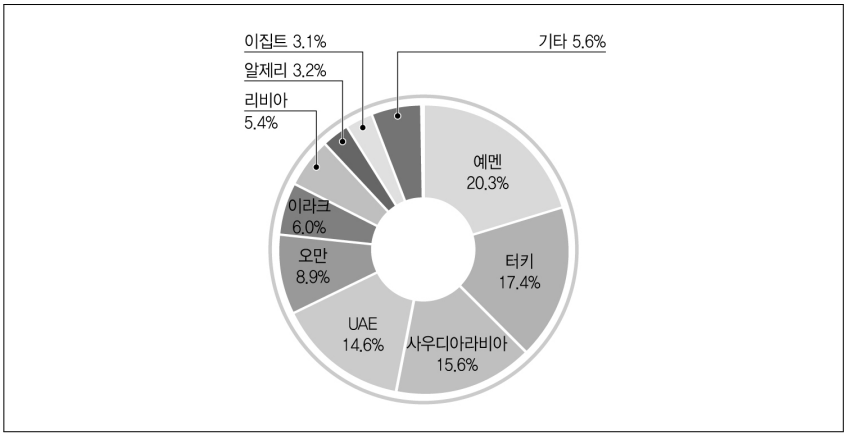
6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4. 8. 13).

6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4. 8. 13). 해당 통계의 업종 분류는 통계청의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도매 및 소매업(4.8%)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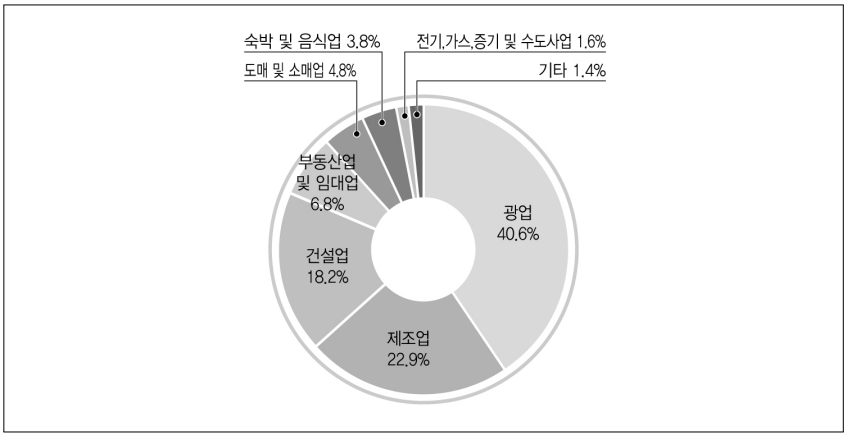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중동 진출 및 투자 현황을 건설 · 플랜트, 제

그림 4-1. 국가별 중동 누적 진출 비중



주: 1968년 1월~2014년 6월 기간 누적 투자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4. 8. 13).

그림 4-2. 업종별 중동 누적 진출 비중



주: 1) 1968년 1월~2014년 6월 기간 누적 투자 기준임.
2) 업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4. 8. 13).

조업, 서비스업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건설 · 플랜트 부문의 시공사업은 해외직접투자에 포함되지 않으나 국내 기업의 핵심 진출분야이기에 살펴보고자 한다.[64]

가. 건설 · 플랜트 부문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은 1965년 540만 달러 규모의 태국 파타니(Pattani)-나라티왓(Narathiwat) 간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면서 시작되었다. 중동 진출은 1973년 240만 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알룰라(Alula)-카이바(Kaiba) 간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면서 본격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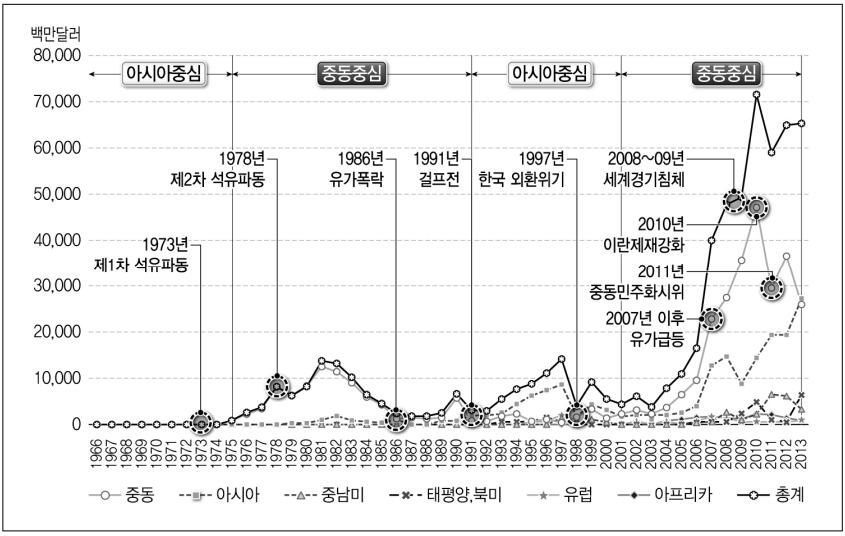
중동은 우리나라의 핵심 건설시장으로서 중동 건설시장의 부침은 우리나라 전체 해외건설 수주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그림 4-3 참고). 제1차 중동붐이 일던 1970~80년대 당시 중동지역은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1978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토목 공사를 발주하였다. 1976년 착수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Jubail) 산업항 공사는 당시 우리나라 예산의 25%인 약 9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높은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준공하였다.[65] 또한 1984년 수주한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105억 6,000만 달러 규모로 당시 단일 공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1970~80년대 중동 건설시장 활황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

64) 국내 기업이 수주한 해외 시공사업은 해외직접투자로 집계되지 않는다. 다만 해외 진출한 건설기업이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해외직접투자로 집계된다.

65) 국토해양부(2012),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0399 (검색일: 2014. 7. 28).

그림 4-3. 연도별 ·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현황(1966~2013)



주: 중동은 북아프리카 5개국을 포함한 지역이며, 아프리카는 사하라 이남 지역을 의미함.[66]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통계 DB(검색일: 2014. 4. 2)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그러나 1970~80년대 중동지역 내 사회간접자본(SOC)이 대폭 확충되었고 1986년 유가도 폭락하면서 중동지역 내 발주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걸프전이 발발했던 1991년을 기점으로 아시아가 우리 기업의 최대 해외건설 · 플랜트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아시아시장을 중심으로 수주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1997년 14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가에서 위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진출은 침체기를 맞았다.

2000년대 들어 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중동지역 수주 규모가 아시아

66) 해외건설협회 분류에 따르면 중동은 남수단,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UAE,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튀니지, 팔레스타인 등 23개국을 포함한다.

지역을 추월하여 제2차 중동붐이 시작되었다. 2000년대 중반 GCC를 비롯한 원유수출국이 고유가를 바탕으로 대규모 건설 · 플랜트 사업을 발주하였고, 중동지역 수주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2008~09년 세계금융위기, 2010년 유로존 재정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2005~10년 기간 연평균 45.8%의 높은 속도로 증가하였고 2010년 사상 최대인 71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0년 중동지역에서 전체 수주의 66.0%인 473억 달러를 수주한 데 힘입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중동 민주화 시위와 세계경기침체의 여파로 중동지역 수주가 전년대비 37.5% 감소한 295억 달러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전체 수주도 591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2012년에는 역내 정정 불안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 수주가 전년대비 24.8% 증가한 369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전체 수주 규모도 649억 달러로 반등하였다.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시장 점유율도 2004년 1.8%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스페인(14.3%), 미국(14.0%), 중국(13.1%), 독일(8.5%), 프랑스(8.5%)에 이어 세계 6위(8.1%)로 대폭 상승하였다.[67]

2013년에는 아시아 수주 규모가 276억 달러로 중동지역의 261억 달러를 상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4년 상반기에만 중동지역에서 7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쿠웨이트 청정연료 생산공장 프로젝트(Clean Fuel Project), 60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

67)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시장 점유율은 1.8%(2004), 1.3%(2005), 2.9%(2006), 2.6%(2007), 2.9%(2008), 4.3%(2009), 4.8%(2010), 5.7%(2011), 8.1%(2012)를 기록함(ENR 2005 p. 4, 2006 p. 5, 2007 p. 11, 2008 p. 11, 2009 p. 9, 2010 p. 8, 2011 p. 34, 2012 p. 35, 2013 p. 37).

(Karbala Refinery Project), 3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알제리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수주가 성사되어 전년동기대비 130.5% 증가하였다.[68] 이에 힘입어 2014년 상반기 총 수주 규모도 전년동기대비 21.5% 증가한 37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69]

[표 4-1]과 같이 중동 중심의 수주 구조는 누적 수주 규모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1965년 이후 전체 누적 수주 6,111억 달러 중 중동이 3,503억 달러로 57.4%를 차지하였으며, 2위를 차지한 아시아의 1,833억 달러, 30.0%와 큰 격차를 기록하였다. 최근 3개년 및 5개년 누적 수주를 살펴보아도 중동 비중이 각각 48.9%, 56.6%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중동 집중도는 다른 국가나 세계 평균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높다. 2012년 세계 250대 건설 기업의 중동 수주 비중을 분석해 보면, 한국 기업이 64.5%인 반면 전체 평균은 17.9%로 나타났다.[70] 한국에 이어 중동의 수주 비중이 높은 국가는 터키(55.0%), 이탈리아(28.1%), 미국(16.7%)이었으나, 한국의 64.5%에 비해 중동의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71]

---

68) 국토교통부(2014),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4180 (검색일: 2014. 8. 22).

69)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통계 DB(검색일: 2014. 7. 23); 국토교통부(2014),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4180 (검색일: 2014. 8. 22).

70) 해당 자료는 세계 250대 기업의 수주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외건설협회의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세계 250대 건설 기업의 지역별 평균 수주 비중은 중동(17.9%), 아시아(27.2%), 아프리카(11.1%), 유럽(20.0%), 미국(8.6%), 캐나다(5.4%),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9.8%)였다. 반면 한국은 중동(64.5%), 아시아(23.6%), 아프리카(6.6%), 유럽(0.7%), 미국(1.4%), 캐나다(0.3%), 라틴 아메리카・카리브해(2.8%)로 중동과 아시아에 집중된 양상을 나타난다(ENR 2013, p. 37을 바탕으로 저자 추산).

71) ENR(2013), p. 37을 바탕으로 저자 추산.

표 4-1. 최근 10년간 지역별 해외건설 누적 수주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중동	아시아	태평양 · 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총계
규모	2011~13년	92,556.1	66,362.7	7,605.6	1641.1	4,906.0	16,165.2	189,236.6
	2009~13년	175,552.1	89,619.6	14,771.6	2,509.2	8,561.8	18,949.1	309,963.3
	2004~13년	245,103.3	126,084.3	16,698.3	6,598.0	15,294.4	22,438.5	432,216.8
	총 누적	350,291.1	183,307.7	21,794.4	10,782.5	18,430.3	25,479.1	610,085.2
비중	2011~13년	48.9%	35.1%	4.0%	0.9%	2.6%	8.5%	100.0%
	2009~13년	56.6%	28.9%	4.8%	0.8%	2.8%	6.1%	100.0%
	2004~13년	56.7%	29.2%	3.9%	1.5%	3.5%	5.2%	100.0%
	총 누적	57.4%	30.0%	3.6%	1.8%	3.0%	4.2%	100.0%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통계 DB(검색일: 2014. 5. 21)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중동지역 수주 구조를 국가별로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핵심 해외건설 시장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 GCC 국가로 나타났다. 1965년 해외건설 초도진출 이후 2014년 6월까지 누적 수주를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1,297억 달러), UAE(655억 달러), 쿠웨이트(394억 달러), 리비아(368억 달러)가 전체 143개국 중 상위 4개국에 올랐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최대 건설시장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수주 규모가 전체 누적 수주액의 20.2%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위 UAE(10.2%)의 2배에 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10대 해외건설시장 중 이라크(316억 달러), 카타르(178억 달러), 알제리(146억 달러)가 각각 6위, 8위, 10위를 차지해 중동지역에 대한 집중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표 4-2 참고).

한편 공종별로 해외수주를 분석해 보면 산업설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그림 4-4 참고). 2013년 중동지역에서 수주한 사업 중 산업설비 수주 규모가 180억 3,997만 달러로 69.0%에 달하였다. 산업설비에 대한 높은 집중도는 국내 건설 · 플랜트 기업의 특징으로, 전 세계에서

표 4-2. 최근 5년간 중동 국가별 해외건설 수주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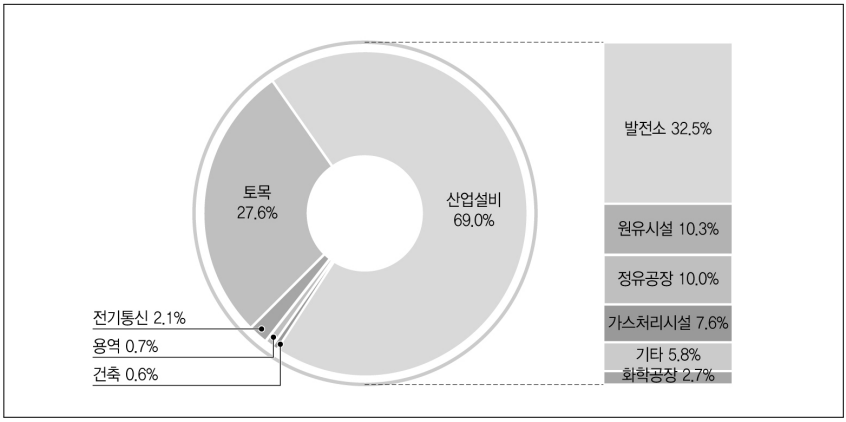
	2009	2010	2011	2012	2013	누적[1]
사우디아라비아	7,203.5 (2)	10,532.0 (2)	16,589 (1)	16,167 (1)	9,975 (1)	129,705.0 (1)
UAE	15,860.1 (1)	25,602.1 (1)	2,125 (9)	2,959 (6)	1,830 (14)	65,544.0 (2)
쿠웨이트	1,640.1 (9)	4,893.0 (3)	1,559 (11)	2,753 (8)	2,071 (13)	39,417.0 (3)
리비아	3,134.5 (4)	1,969.7 (7)	157 (33)	3 (65)	145 (36)	36,761.0 (4)
이라크	555.3 (15)	135.8 (38)	3,666 (3)	9,636 (2)	2,450 (9)	31,576.2 (6)
카타르	312.3 (20)	1,176.9 (12)	1,494 (12)	1,842 (10)	2,748 (7)	17,790.2 (8)
알제리	3,726.9 (3)	156.8 (36)	439 (24)	2,758 (7)	1,401 (16)	14,554.6 (10)
이란	2,492.0 (5)	-16.8 (93)	0.2 (87)	76 (39)	19 (58)	12,037.1 (15)
오만	246.1 (22)	800.2 (15)	1,998 (10)	33 (45)	1,123 (18)	8,046.9 (20)
이집트	0.6 (69)	374.5 (22)	0.2 (85)	30 (47)	37 (50)	4,783.4 (26)
모로코	-	1,023.5 (14)	-	420 (24)	2,115 (12)	3,907.8 (30)
터키	-0.0 (79)	0.2 (79)	995 (14)	-84 (95)	2,128 (11)	3,368.8 (34)
요르단	567.8 (10)	152.4 (37)	3 (71)	263 (29)	5 (73)	2,034.1 (39)

주: 1) 1965년부터 2014년 6월까지의 누적 수주 규모임.
2) 괄호 안은 수주 규모 순위임.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통계 DB(검색일: 2014. 6. 1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수주한 사업도 산업설비(61.0%)의 비중이 건축(22.1%), 토목(13.6%), 전기통신(2.2%), 용역(1.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2년 기준 세계 주요 건설 기업들이 산업설비, 토목, 건축 부문에서 각각 33.6%, 30.4%, 30.0%의 유사한 비율로 수주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72] 우리나라가 중동지역에서 수주한 산업설비 사업에서도 발전소(32.5%)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원유시설(10.3%), 정유공장(10.0%), 가스처리시설(7.6%) 순으로 수주하였다. 발전소 수주 규모는 85억 458만 달러로 전체 세부 공종 중 가장 큰 금액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위 공종인 토목(72억 1,842만 달러)보다 수주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2) ENR(2013), p. 37.

그림 4-4. 중동지역 공종별 수주 비중(2013)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통계 DB(검색일: 2014. 7. 2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동지역에서 산업설비 즉 플랜트 부문의 수주 비중이 높은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2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00년대 후반 이후 유가 상승 및 석유 증산에 힘입어 중동국가의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플랜트 발주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플랜트 수주 실적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동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기업은 발전소, 담수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 석유·가스전 개발 등의 부문에서 기술과 가격 모두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해당 부문에서 강세였던 유럽 및 일본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서 우리 기업은 육상 LNG(Liqui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플랜트를 제외한 플랜트 분야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73] 2001년 수주한 UAE 후자이라(Fujairah) 담수 플랜트는 순수 국내 기술로 건설되었으며, 2009년

73) 김상진(2014), p. 130. 육상 LNG 플랜트는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전처리한 후 -162℃ 초저온 상태로 액화시켜 부피를 1/600로 줄여 수송과 저장이 용이한 LNG를 생산하는 플랜트이다(유재준(2012. 5. 30)).

에는 국내 수주 사상 최대 규모인 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동지역의 플랜트 프로젝트는 최근 점차 대형화되면서 시공자가 금융 조달을 주선하는 시공자 금융주선형 사업으로 발주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 조달 능력이 중동지역 건설 ·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의 관건으로 작용하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를 감안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2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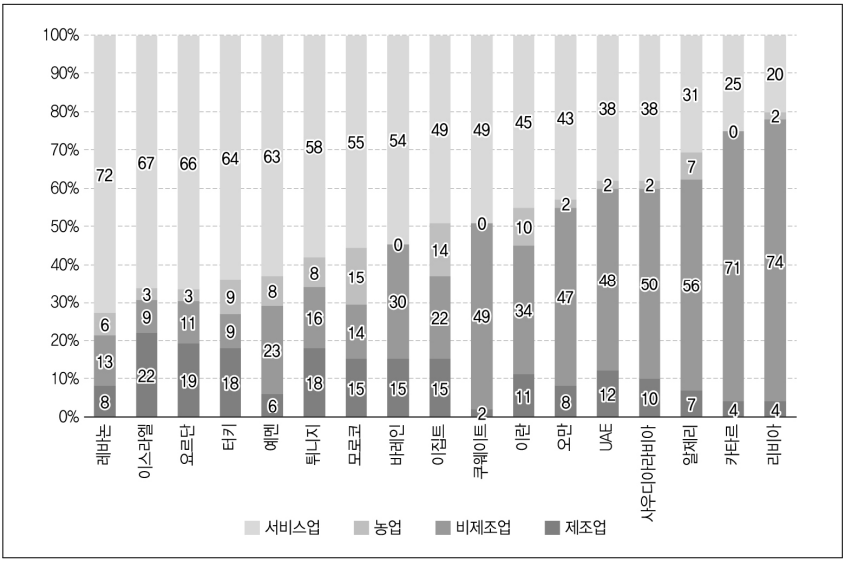
나. 제조업 부문

1968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동 제조업 투자 · 진출 누적 투자금액은 14억 1,175만 달러로, 전체 해외 제조업 투자 · 진출 937억 5,762만 달러 중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74] 이는 중동 국가의 제조업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진출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4-5]에 나타나듯 중동 국가의 제조업 생산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에너지 산업 의존도가 높은 원유수출국은 비제조 공업인 광업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공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공업 생산 비중이 50%를 넘는 리비아, 카타르,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쿠웨이트 등도 모두 원유수출국이다. 그러나 제조업만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20% 미만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원유수출국의 제조업 비중은 10%를 하회한다. 원유수출국의 경우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74) 해당 수치는 1968년부터 2014년 3월까지의 누적 금액이다(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검색일: 2014. 6. 13)).

그림 4-5. 중동 주요국 산업별 G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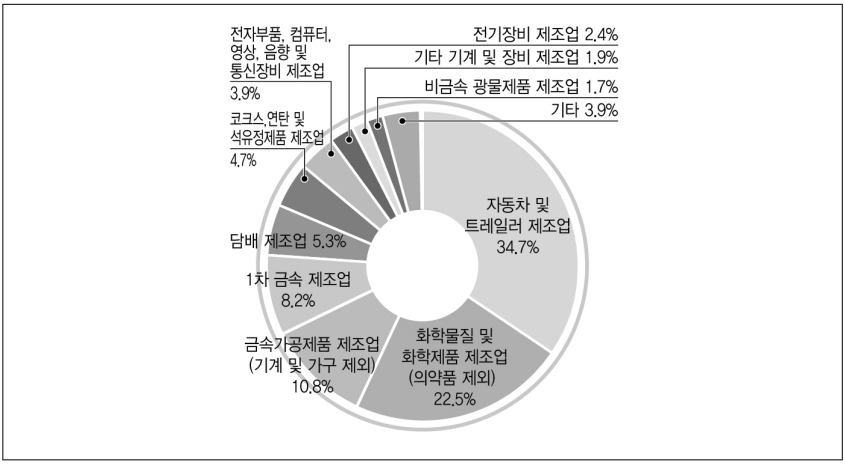
주: 19개국 중 이라크 및 시리아를 제외한 17개국 수치만 사용 가능하였으며, 산업 비중의 합이 100%가 되지 않는 국가도 있음.

자료: World Economy Forum(2013), p. 89.

있으나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제조업 육성보다 석유 ·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유인이 크기 때문에 제조업이 성장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원유수입국의 경우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원유수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 생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실질적인 제조업 기반은 취약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8년 이후 대중동 누적 투자를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제조업 비중이 광업(40.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22.9%(14억 5,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앞의 그림 4-2 참고). 제조업은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현지 법인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가 해외직접투자로 집계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투자 규

그림 4-6. 대중동 제조업 세부 업종별 누적 투자 현황



주: 1968년 이후 2014년 6월까지의 누적 투자 규모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4. 8. 13)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모를 기록하였다.

제조업을 세부업종별로 분석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34.7%), 의약품을 제외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2.5%), 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 금속가공제품(10.8%), 1차 금속(8.2%), 담배(5.3%) 순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그림 4-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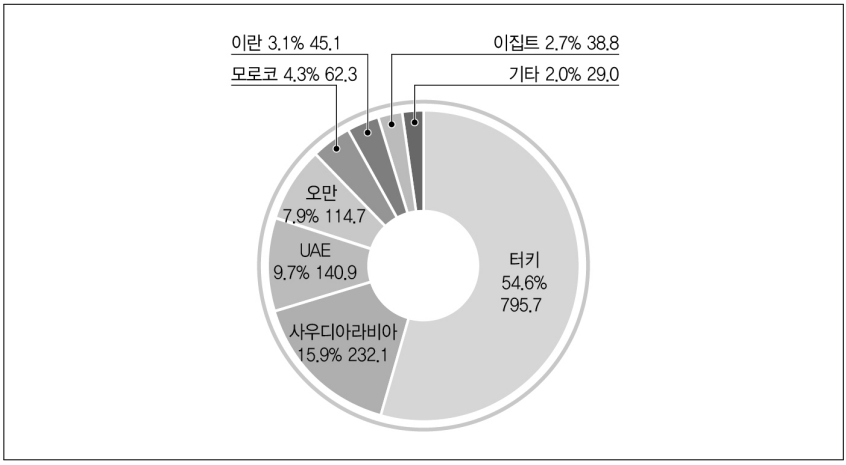
국가별로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의 주요 제조업 투자대상국은 터키(54.6%), 사우디아라비아(15.9%), UAE(9.7%), 오만(7.9%)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7 참고). 이들은 내수 시장을 확보한 국가와 산업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우선 터키, 이란, 이집트의 인구 규모는 각각 2013년 기준 8,415만 명, 7,710만 명, 7,648만 명으로 역내 3대 내수시장으로 꼽힌다.[75] 터키는 우

75)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April 2014(검색일: 2014. 6. 13). 이집트와 이란의

그림 4-7. 대중동 제조업 국가별 누적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4. 8. 1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리 기업의 투자 규모와 현지법인 수에서도 중동지역 내 핵심 제조업 진출 대상국이다. 대터키 누적 투자금액의 74.4%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58.3%로 높게 나타났다.[76] 터키는 역내 최대 내수시장이자 배후 유럽시장까지 확보한 대규모 시장이며 유럽에 비해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한 강점이 있다.

이란은 상당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국가이며 인접한 중앙아시아 국가에 수출하기 유리한 지리적 강점을 확보하였다. 대이란 투자의 경우 86.7%가 제조업에 집중되었고,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와 담배 부문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각각 55.4%와 34.0%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발효된 미국의 「포괄적이란제재법(Comprehenensive Iran

2013년 인구는 추정치이다.

7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4. 8. 13)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으로 이란과의 금융거래가 급격히 제한되면서 제재 부문뿐만 아니라 비제재 부문에 대한 투자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집트도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주변 북아프리카 시장을 포괄하는 국가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내 핵심 투자 및 진출 대상국이었다. 대이집트 투자의 경우 광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각각 72.0%, 18.0%로 광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났다. 우리 기업의 제조업 투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내수시장이 큰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46.6%), 전자제품(25.5%)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정정불안이 지속되면서 우리 기업의 대이집트 투자가 감소하였다.

대이란 제재 강화, 역내 정정 불안 확대 등으로 인해 정치 · 사회 · 경제적으로 안정된 GCC 국가로 투자가 더욱 집중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토목 공사 및 산업설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 건설업(65.3%)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비중은 33.2%로 투자 부문 중 2위를 차지하였으며, 세부 업종에서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투자가 83.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UAE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건설업이 20.0%를 기록하였다. 제조업의 비중은 14.8%로 도매 및 소매업(15.3%)에 이어 4위를 기록하였다. 제조업 중에서는 알루미늄 등 1차 금속 제조업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이 각각 34.7%, 30.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UAE의 알루미늄 자재 생산량은 세계 10위 규모이며, 건설경기 활황과 세계 자동차부품 생산의 호조에 힘입어

관련 자재의 수요가 급증해왔다.[77]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오만의 경우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된 광업의 비중이 67.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비중은 20.4%로 2위를 기록하였으며, 제조업 중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55.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2.7% 순으로 나타났다.

다. 서비스업 부문

대중동 업종별 투자를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바탕으로 재분류하면 농림수산업 40.7%, 제조업 42.6%, 서비스업 16.7%로 나타난다.[78] 농림수산업과 제조업은 각각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광업, 제조업 및 건설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높은 투자 비중을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 투자 비중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가 서비스업(41.8%), 제조업(39.4%), 농림수산업(18.7%)의 순으로 이루어진

77) 손양숙(2013),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48&UPPER_MENU_CD=M10147&MENU_STEP=3&ARTICLE_ID=5000146&ARTICLE_SE=20302 (검색일: 2014. 8. 22).

7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4. 8. 13). 본고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바탕으로 경제활동 유형을 농림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다.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경제활동 유형을 크게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 제공으로 분류하였으며, 재화의 생산을 다시 1차(원시) 생산과 2차(가공) 생산으로 나누었다. 이를 본고의 산업 분류인 농림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에 적용하면 각각 1차(원시) 생산, 2차(가공)생산, 서비스 제공으로 볼 수 있다. 농림수산업(1차 원시 생산업)은 동식물과 비생물을 생산하는 농・임・어업 및 광업을 포함하며, 제조업(2차 가공 생산업)은 상품, 에너지 및 용수, 건축물을 생산하는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을 포함한다. 서비스업(서비스 제공업)은 이상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활동을 통칭한다.

것과 다른 양상이다.

대중동 투자 중 세부 서비스 업종을 살펴보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40.4%), 도매 및 소매업(28.7%), 숙박 및 음식점업(22.9%)의 비중이 92.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표 4-3 참고). 우리 기업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투자는 79.5%가 UAE에 집중되었다. UAE는 2009년 두바이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였으나, 2011년 이후 3~4%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부동산 부문도 다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UAE 투자 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매 및 소매업 부문 투자의 88.1%가 UAE(46.4%)와 터키(41.7%)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문은 한국 식료품점이

표 4-3. 대중동 서비스 부문 세부 업종별 누적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

서비스 세부업종	투자금액	비중	
		서비스 부문 대비	전체 대비
부동산업 및 임대업	431,172	40.4%	6.8%
도매 및 소매업	306,059	28.7%	4.8%
숙박 및 음식점업	244,069	22.9%	3.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4,606	3.2%	0.5%
운수업	16,860	1.6%	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606	1.1%	0.2%
금융 및 보험업	11,172	1.0%	0.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175	0.4%	0.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236	0.3%	0.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666	0.3%	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00	0.1%	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4	0.0%	0.0%
서비스 부문 소계	1,066,355	100.0%	16.7%
대중동 투자 총계	6,372,379	-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4. 8. 1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UAE와 터키에 한국 교민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숙박업 및 음식점업 부문 투자는 2000년대 이전 알제리 · 리비아 ·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UAE로 투자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투자의 대부분이 해외 건설 · 플랜트 부문과 연관된 광업과 건설업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대중동 투자는 앞으로도 원유 및 천연가스 광구 지분 획득을 포함하는 광업과 토목 · 건축 · 플랜트 건설 등을 포함하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 건설시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의 대형화로 인해 시공자의 금융 조달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금융기관에서의 자금 조달은 조달 비용이 크기 때문에 건설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우위를 확보한 중동지역 건설 · 플랜트 부문 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최근 정부의 금융지원정책 동향

가. 5개년 해외건설 진흥계획

우리나라는 1975년 해외건설을 촉진하고 진흥시켜 국제수지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해외건설 촉진법」을 제정하였다.[79] 건설 · 플랜트 진출 현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해외건설 부문

은 1970~80년대 중동 시장과 1990년대 아시아 시장 진출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2000년대 중반 고유가에 힘입어 중동지역 수주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해외건설 사상 최대 수주 규모인 71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3년 해외건설 부문은 610억 달러를 수주하여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571억 달러), 석유제품(528억 달러), 자동차(486억 달러), 선박(340억 달러)의 수출 규모를 상회하는 성장동력으로 성장하였다.[80]

그러나 우리 기업이 수주한 해외건설 사업 대부분이 단순 시공이기 때문에 사업 개발 또는 지분 투자에 비해 부가가치 및 수익성이 낮다. 투자개발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사업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무엇보다 금융 조달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상업은행은 주요국 상업은행 및 금융기관에 비해 조달금리가 높고 5년 이상 장기 대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기업의 금융 조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 등 관계기관도 참여하는 포괄적인 금융지원정책을 수립해왔다(표 4-4 참고). 이하에서는 국토교통부의 5개년 해외건설 진흥계획과 관계기관의 금융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살펴보겠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주무부처로서 매년 해외건설 추진계획과 5년마다 해외건설 진흥계획을 수립한다. 제1차 해외건설 진흥계획은 2005~09년에 걸쳐 시행되었다. 동 계획을 통해 금융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1997년 외환위기로 침체되었던 국내 건설 기업의 해외 진출이

79)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2855호(1975. 12. 31. 제정)」

80)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DB(검색일: 2014. 7. 8).

표 4-4. 건설 · 플랜트 해외진출 주요 금융지원정책

부처	연도	정책
국토교통부	2005~09	제1차 해외건설 진흥계획
	2010~14	제2차 해외건설 진흥계획
	2013	2013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
	2014	2014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1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 조달 여건 개선 방안
	2012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2013	해외건설 · 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

주: 관계부처는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 및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임.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lst.jsp (검색일: 2014. 8. 1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www.mosf.go.kr/news/news02.jsp (검색일: 2014. 8. 11).

활성화되었다.[81] 이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2005년 3조 3,000억 원에서 2009년 5조로 확충하여 ECA의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2009년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조성하여 국내 여유자금의 해외건설 참여를 촉진하였다.

제2차 해외건설 진흥계획은 2010~14년에 걸쳐 추진 중이다. 해당 계획은 해외건설 수주 목표를 연간 1,000억 달러로 설정하고,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을 2009년 5.1%에서 2014년 9.0%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건설 부문의 질적 성장을 위해 우리 기업이 투자개발기업(developer)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ECA를 통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해당 계획은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촉진하고, 수출금융과 글로벌인프라펀드 및 공적개발원조 등의 다양한 자금을 활용한 혼합금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혼합금융은 프로젝트 금융(PF: Project

81) 국토해양부(2010), pp. 17~21.

Finance)과 같이 투자금과 차입금을 모두 조달해야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82] 이상의 금융지원정책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2009년 이후 우리나라의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은 빠르게 증가하여 2012년 8.1%를 기록하였으며,[83] 2013~14년 중동지역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함에 따라 세계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3년 이후 각 년도의 해외건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 해외건설 추진계획의 금융지원정책은 각각 2012년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과 2013년의 '해외건설 · 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하였다. 각 방안의 내용은 다음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1)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2009년 국내 기업이 한국 해외건설 사상 최대 사업인 UAE 원자력 발전소 사업을 수주하였다. 해당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해외건설 수주 규모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2011~13년 기간 해외건설 ·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해 동 산업에 관계된 전 부처가 참여하여 건설 · 외교 · 금융 등을 포괄하는 지원 방안을 수립해왔다(표 4-5 참고).

2011년 정부는 프로젝트의 대형화 및 신흥개도국의 고부가가치 · 고위험화 사업 발주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 조달 여건 개선 방안(이하 개선 방안)'을 수립하였다. 2008~09년

82) 국토해양부(2010), p. 35.

83) ENR(2013), p. 37.

표 4-5. 해외 프로젝트 수주 관련 주요 금융지원 방안

방안	주요 내용
개선 방안(2011년)	• 공적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여력 등 확충 • 민간금융기관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 외국계 자금 활용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
활성화 방안(2012년)	• 국부펀드 등 중동자금 활용 확대 • 민간금융의 역량 강화 및 참여 활성화 •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역량 강화
선진화 방안(2013년)	•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 단순도급형 사업 - 시공자 금융주선형 사업 - 투자개발형 사업 - 패키지형 지원 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www.mosf.go.kr/news/news02.jsp (검색일: 2014. 8. 11).

세계금융위기 이후 대형 사업 발주국이 수주국에 금융 주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내 상업은행은 금융 주선 경험이 부족하고 대출 금리 및 기간 등 금융 주선 조건도 좋지 않아 발주국이 요구하는 금융 주선 역량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인 ECA의 금융지원이 확대되면서 ECA의 자금조달 여력도 축소되었다. 정부는 개선 방안에서 ECA의 자금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ECA의 금융지원을 위험도가 높은 중대형 해외 프로젝트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 상업은행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중도 인수,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기간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및 타국 ECA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2013년까지 협조융자 규모를 201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동성이 풍부한 중동지역 자금을 활용하여 제3국 진출을 확대하고자 이슬람개발은행 및 중동계 상업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슬람금융 전문가를 양성하는 정책도 수립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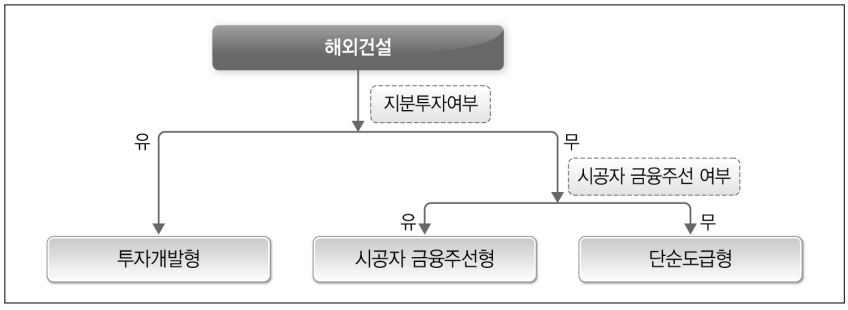
2012년에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제2의 중동붐에 대비하여 기존의 개선 방안을 더욱 구체화시킨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이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먼저 금융협력 대상을 기존의 외국계 자본에서 중동 국부펀드로 집중시켰다. 중동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한 · 중동 플랜트 펀드 조성, 중동국부펀드와 공동투자 추진, 인프라 민관협력 T/F 설치, 현지 국부펀드 및 정책금융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비록 논의 단계에서 중단되었으나 중동자금과 국민연금 및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등이 투자하고 국내 플랜트 기업은 전략적 지분투자에 참여하는 5~10억 달러 규모의 한 · 중동 플랜트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선 방안에서 언급된 국내 상업은행의 대출 중도 인수 방안으로 단기상환제를 도입하여 해외 프로젝트 참여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5년 이하 중단기 해외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국내 상업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의 협조융자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ECA의 자금 여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하고,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역보험공사)의 대출 및 보험 지원을 중장기 프로젝트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체계를 한국투자공사 및 연기금으로 확대하여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개선 방안을 통해 수출입은행(자문 및 대출), 무역보험공사(보험), 정책금융공사(대출), 산업은행(자문 및 대출) 간 협력체계인 정책금융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축한 데 이어, 활성화 방안에서는 한국투자공사 및 연기금(자문)으로 협력체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2)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해외건설 사업은 [그림 4-8]과 같이 금융 조달 유형에 따라 단순도급형, 시공자 금융주선형, 투자개발형으로 나뉜다. 먼저 우리 기업의 지분투자 유무에 따라 크게 투자개발형과 도급형으로 분류한다. 우리 기업의 투자 지분이 없는 도급형 사업은 다시 시공자의 금융 주선 유무에 따라 시공자 금융주선형과 단순도급형으로 분류된다. 1965년 이후 2014년 8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단순도급형, 시공자 금융주선형, 투자개발형 수주 비중은 각각 88.6%, 7.4%, 4.0%로 단순도급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3년만 분석하면 각 유형에 대한 비중이 79.4%, 16.7% 3.9%로 시공자 금융주선형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단순도급형 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난다.[84]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부가가치가 낮은 도급 사업의 비중이 높아 질적 성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

그림 4-8. 금융 조달 방식에 따른 수주 유형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 p. 4, p. 6, p. 9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84) 2013년 단순도급형, 시공자 금융주선형, 투자개발형 수주 규모는 각각 517억 7,600만 달러, 109억 달러, 25억 3,600만 달러이다(해외건설협회 지역2실 서면 인터뷰(2014. 8. 21).

표 4-6.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개관

		정책금융지원	상업금융진출
단순 도급형	보증 여건 개선	• 보증 규모 확대 - 2017년까지 약 20조 원으로 확대 • 수수료 인하 - 보증수수료 인하(0.05~0.18%포인트) - 보증보험료 할인(5~10%포인트) • 보증심사 개선 - 수출입은행 자체신용을 통한 보증지원 확대 - 사업성평가 심사 • 워크아웃 기업 재기 기회 부여 - 이행성보증 발급 지원	-
시공자 금융주선형	타인 자본 조달 (Debt Financ-ing)	• 자금지원 규모 확대 - ECA에 대한 추가 출자 · 출연 - 정책금융기관의 자기 신용대출 확대 - 국별 · 기업별 특별 여신한도 부여 • 외평기금 통화스왑 윈도우 개설 • 정책금융기관 직원 제재 감경 • 해외자금과의 투 · 융자 확대 - 중동 · 중국 · MDB 등과 협조융자 및 MOU 확대 • 금리경쟁력 제고 - 해외투자자금 대출금리 인하	• 해외진출 애로 해소 - 우선상환제 확대 - 대출채권 유동화 보증 지원 - 환변동 보험제도 적용 확대 - 대외채무보증 확대 - 무역보험공사의 보험료 분할납부 확대
투자개발형	자기 자본 조달 (Equity Financ-ing)	• 펀드 추가 조성 - 글로벌코퍼레이션 펀드 신설 - 외화인프라펀드 신설 • 원스톱 금융지원체계 구축	• 신규 사모펀드 모델 도입 - 민간 위험분산 모델 도입 · 활성화 - 수출입은행 · 산업은행 등 참여 - 수출입은행 출자규제 완화 - 금감원 회계처리 기준 완화 - 펀드 운영특례 마련 - 저개발국 대상 무역보험공사 해외투자보험 확대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 p. 16.

적으로 단기간에 도급형 위주의 수주 구조를 조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2013년 수립된 수주 선진화 방안은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장려하는 동시에 금융 조달 방식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표 4-6 참고).[85] 우리 기업이 시공만 담당하는 단순도급형 사업에 대해서는 ECA

85) 관계부처 합동(2013), p. 1. 선진화 방안은 단순도급형, 시공자 금융주선형, 투자개발형, 패키지형 등 총 네 개의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패키지형 지원 방안은 신흥국이 발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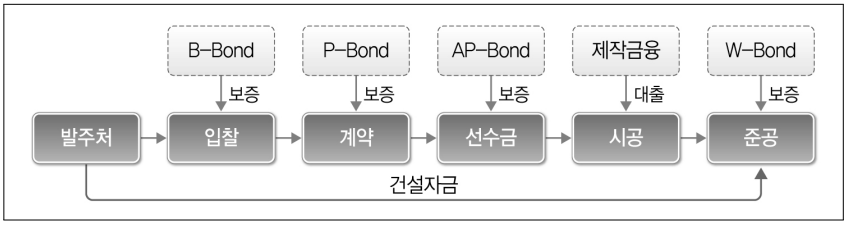
가 발급하는 보증 규모, 수수료, 보증심사 등 보증 및 보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시공자인 국내 기업이 금융을 주선해야 하는 시공자 금융주선형 사업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회사(특수목적법인, 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좋은 조건에 차입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ECA의 보증 아래 국내 상업은행이 해외 프로젝트 대주단으로 동반 진출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이 사업 전반에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은 투자금 및 자본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민간 자금의 해외 프로젝트 투자를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공공 및 민간 자금을 활용하여 지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펀드 조성을 추진하였다. 맞춤형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가) 단순도급형 사업

단순도급형 사업은 발주자가 금융을 포함한 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시공기업은 설계 · 조달 · 시공(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만 담당하는 구조이다. 시공자는 EPC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으나, 수주부터 준공까지 건설 단계별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보증서(bond)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는 고위험・저수익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전 과정에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이다. 사업 발굴 단계에서 KSP 또는 ODA・EDCF 등을 활용하여 현지 정부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금융 조달은 한국 ECA와 국내 기업이 각각 대출과 지분투자를 집행하며, 국내 기업이 EPC 및 O&M 계약을 수주하는 구조이다. 패키지형 사업의 구조는 투자개발형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를 제외한 단순도급형, 시공자 금융주선형, 투자개발형 등 3개 유형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다루었다.

그림 4-9. 건설 단계별 보증 및 대출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 p. 4.

기업이 각 건설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보증서는 [그림 4-9]와 같다. 기업은 입찰 참가신청을 철회하거나 낙찰 후 계약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찰보증서(Bid Bond), 수주 이후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계약이행 보증서(Performance Bond)를 제출한다. 또한 수주 기업의 과실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발주자에게서 받은 선수금을 반환한다는 선수금 환급 보증서(Advance Payment Bond)와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하자 보수 보증서(Warranty Bond)도 제출한다.[86] 한편 수주 기업은 시공에 필요한 자금을 자사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기업 금융(CF: Corporate Finance) 형식으로 대출받기도 한다.

단순도급형 사업의 수주는 보증 발급이 관건이다.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중소 · 중견 기업의 유동성 감소, 워크아웃(work-out) 등이 발생하였고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보증 발급이 어려워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은 단순도급형 사업을 수주하는 기업에 대해 보증규모 확대, 보증 수수료 및 보험료 인하, 보증심

86) 일반적으로 선수금은 공사대금의 10~20% 규모이다.

사 개선, 워크아웃 기업 재기 기회 부여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앞의 표 4-6 참고).

그러나 보증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담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보증서에는 해외 발주처가 지급요청(call)을 하면 보증 기관은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상업은행은 사업성 평가나 보증 규모에 상관없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 · 중견 기업에 대한 보증 발급을 꺼린다. 결국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자산이 담보가 되어야 하지만,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중소 · 중견 기업이 보증 규모에 상응하는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87]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성이 높은 사업에 보증 발급을 확대하라는 정책은 제한적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 보증 부문에 국내 상업은행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인 담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해외건설진흥기금'을 정부와 해외진출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부활시키고 사업당 보증 한도를 설정한다면 중소 · 중견 기업의 담보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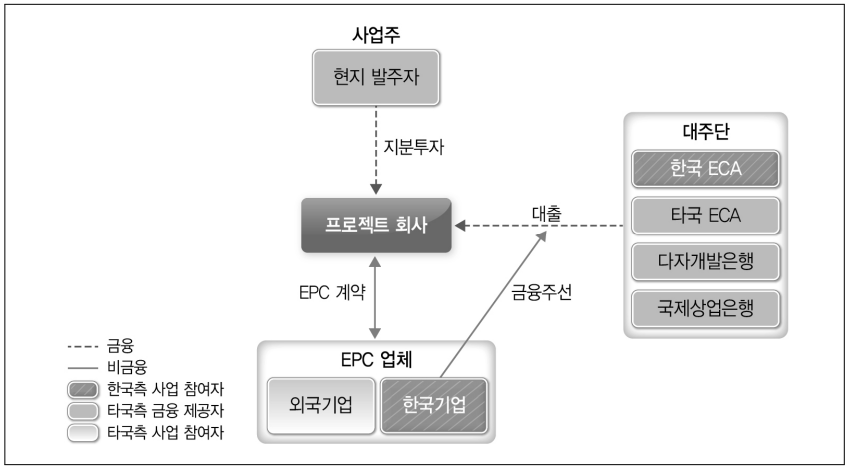
나) 시공자 금융주선형 사업

시공자 금융주선형 사업의 경우 [그림 4-10]과 같이 EPC 업체는 시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가 차입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

87) 예를 들면 기업이 1,000만 달러 규모의 이행성 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 1,000만 달러가 예치된 계좌를 개설하거나 그와 유사한 가치의 건물 등의 자본을 담보로 제출해야 한다.

88) 해외건설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제5장 한 · 중동 금융협력 방안에서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그림 4-10. 시공자 금융주선형 사업 구조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 p. 6을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도 주선한다. 시공자 금융주선형 사업의 발주가 증가한 이유는 2008~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사업주의 금융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면서 시공자와 위험을 분담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풍부한 중동 원유 수출국도 대규모 사업 발주에 따른 재정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시공자 금융주선형 사업 발주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시공자 금융주선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금융주간사의 차입금 조달 능력(debt financing)이 중요하다. 시공자 금융주선형 사업은 사업비가 큰 경우가 많아서 국내 상업은행의 단독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ECA의 직접 대출 및 보증부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은 시공자 금융주선형 사업의 수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규모 확대,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해외자금과의 투 · 융자 확대, 민간금융기관의 우선상환제 등을 시행하였다(표 4-6 참고).

그러나 금융 조달 능력의 핵심인 대출 금리 및 기간은 국가신인도와

금융기관 신용도가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 국내 정책만으로 금융 조달 능력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 ECA의 금융 조달 조건이 국내 상업은행에 비해서는 우위이지만 주요국 ECA에 비해서는 열위인 데 있다. 또한 해외건설 · 플랜트 부문에서 한국 ECA의 누적 지원 규모(exposure)가 증가하면서 자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 것도 문제이다. 한편 국내 상업은행은 투자 성향이 보수적이고 금융 조달 능력과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꺼린다. 그러나 시공자 금융주선형 사업에 입찰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인 것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 상업은행이 단독 대출을 제공하거나 ECA와의 협조융자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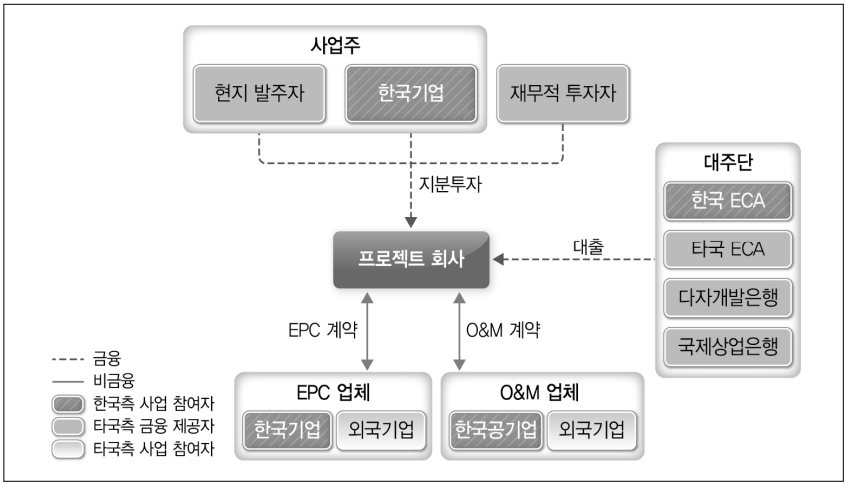
다) 투자개발형 사업

투자개발형 사업은 시공자가 사업개발, 지분투자, 제품구매, 설비운영 등 사업 전반에 참여하는 사업을 의미한다.[89] 투자개발형 사업의 대부분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금융을 조달하는 기업 금융(CF)방식이 아닌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바탕으로 금융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금융(PF)방식인 경우가 많다. 해당 유형의 사업에 사업주로 진출한 기업은 지분투자(자본)와 대출(부채) 등의 금융기법을 통해 구조화된 금융(Structure Finance)을 설계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그림 4-11]과 같이 우리 기업이 해외 발주자와 공동으로 사업주 역할을 담당하고, 지분투자와 대출의 비율을 조정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금

89) 관계부처 합동(2013), p. 1.

그림 4-11. 투자개발형 사업 구조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 p. 9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융을 조달할 구조를 수립한다. 사업주는 프로젝트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한국 및 타국 ECA, 다자개발은행, 국제상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대주단을 구성한다.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자와 대주단이 확정되고 금융약정이 체결(financial closing)되면 프로젝트 회사는 EPC와 운영 및 유지보수(O&M: Operation and Maintenance)를 담당할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우리 기업이 투자개발형 사업의 사업주로 참여할 경우 다른 국내 기업이 해당 사업에 EPC 및 O&M 업체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투자개발형 사업은 EPC 업체가 받는 기성대금과 같은 단기 수입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보수 대금, 프로젝트 회사가 창출한 이익에 따른 배당 등 장기 수입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투자개발형 사업은 우리 기업이 사업 전반에 참여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향후 국내 건설 산업

의 질적 성장을 위해 우리 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개발형 사업이 우리나라 건설 · 플랜트 산업의 해외진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3.9%에 불과하다.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국내 금융시장 환경과 우리 기업의 금융 조달 능력이 상대 열위에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을 조성하여 해외 프로젝트의 지분 투자 등을 모색하고 있다.

나. 주요 펀드

1) 글로벌인프라펀드

글로벌인프라펀드(GIF: Global Infrastructure Fund)는 해외 사회기반시설 개발 사업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금융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최초의 펀드이다. 투자개발형 사업이 도급형 사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높지만, 투자 규모가 크고 자본 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수적 투자 성향의 국내 시중은행이 참여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민간자본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사업 여건을 보완하고 해외 인프라 투자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관공동으로 GIF를 조성하였다.

GIF는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이 집합투자기구(펀드)에 출자 및 투자할 수 있다는「해외건설 촉진법」제17조의2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90] 해당 조항에 따라 GIF는 사회기반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의 신설 · 증설 · 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해외공사에

90)「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9545호(2009. 3. 25. 일부 개정)」

표 4-7. 글로벌인프라펀드 개요

	내용		
펀드명	한투글로벌인프라펀드 (GIF 1호, 투자약정 해지)	신한글로벌인프라펀드 (GIF 2호)	KDB글로벌인프라펀드 (GIF 1호, 기존 펀드 개편)
설립시기	2009년 12월	2010년 7월	2014년 7월
설립형태	사모증권 투자신탁(Blind fund)		
총액	각 2,000억 원(공공 50%, 민간 50%, capital call)		1,500억 원
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	KDB인프라자산운용
금융자문	신한은행 금융자문팀(글로벌PT팀)		KDB
펀드만기	15년 내외(capital call 기간: 8년 내외)		
목표수익률	10~15%		
투자대상	해외 인프라 사업 SPC의 지분 보유 / 중순위 · 후순위 채권(mezzanine)		

주: 2014년 1월 한투글로벌인프라펀드의 투자약정이 해지됨.
자료: 신한파이낸셜그룹, p. 4; 국토교통부(2013,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4180, 검색일: 2014. 7. 28); KDB인프라(2014, http://www.kinfra.co.kr/company_info/notice_view.asp?seq=115, 검색일: 2014. 7. 28)를 바탕으로 재구성.

대한 투자와 해당 건설 사업에 참여한 운영 법인의 지분 인수에 참여할 수 있다. 투자 대상은 「글로벌인프라 투자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에 규정된 도로, 철도, 공항, 댐, 수도, 물류시설, 관광단지, 공공시설, 환경시설, 플랜트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과 이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주택건설, 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복합단지개발사업 등이다.

GIF는 2009년 12월 조성된 1호 펀드와 2010년 7월에 조성된 2호 펀드로 운용되었다(표 4-7 참고). 각 펀드는 2,000억 원 규모였으며,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출자한 민관공동 펀드로 조성되었다. GIF 2호는 2011년 파키스탄 파트린드(Patrind) 수력발전사업, 포르투갈 태양광 발전사업에 각각 4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 및 대출을 집행하였다.[91] 그러나 GIF

91) 기획재정부(2012),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sub_category=131&hdnFlag=1&hdnDiv=189&&actionType=view&runno=4015029 (검색일: 2014. 7. 28).

1호는 민간투자자의 보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실제 투자가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 GIF 1호의 기존 운용사와 투자약정을 해지하고 KDB인프라자산운용을 신규 운용사로 재선정하였다. 또한 투자자도 KDB산업은행,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등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민관공동 펀드를 공공주도 펀드로 개편하였다.[92] 향후 GIF 1호는 4,0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경우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에 약 6조 7,000억 원 규모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93]

GIF는 우리 기업의 타당성조사를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유망한 투자개발형 사업을 발굴하도록 돕는다.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은 우리 기업이 사업주인 해외 사회기반시설 투자개발형 사업이며, 각 사업당 조사비용은 최대 5억 원으로 2009~14년 기간 중 총 1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94]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유망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정책금융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에 전달된다. 해당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에 GIF와 정책금융기관이 각각 자본금과 대출을 지원하는 원스톱 건설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GIF의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향후 해외 인프라 개발 사업에 민간 자금

92) 우리은행이 KDB글로벌인프라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였다(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4180 (검색일: 2014. 7. 28); KDB인프라, http://www.kinfra.co.kr/company_info/notice_view.asp?seq=115 (검색일: 2014. 7. 28)).

93)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4180 (검색일: 2014. 7. 28). 투자개발형 사업의 자본금 비율을 30%, 펀드의 자본금 투자비율을 20%로 가정하였을 때의 기대효과이다.

94) 국토해양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155433709 (검색일: 2014. 7. 28);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435/DTL.jsp (검색일: 2014. 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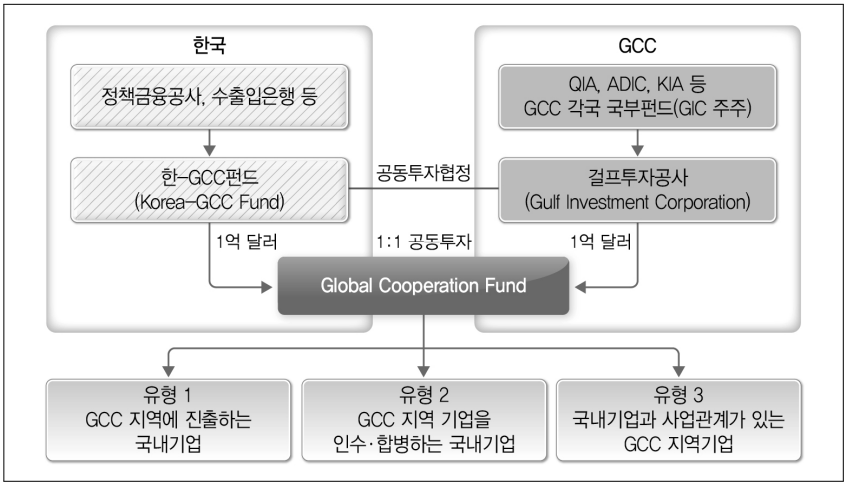
의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GIF의 투자 대상은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 또는 후순위 대출채권이기 때문에 동반 진출한 민간금융기관의 수익을 확보해주는 갭펀드(gap fund)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공주도 펀드인 GIF 1호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민관공동 펀드인 GIF 2호도 민간 단독 투자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지분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글로벌 협력펀드

한국-GCC 경제협력펀드(KGF: Korea-GCC Cooperation Fund)와 걸프투자공사(GIC: Gulf Investment Corporation)는 2014년 10월 각각 1억 달러를 투자하여 총 2억 달러 규모의 매칭펀드인 글로벌협력펀드(GCF: Global Cooperation Fund)를 조성하였다(그림 4-12 참고). 한국-GCC 경제협력펀드는 GCC 지역 진출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의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이다. 해당 펀드는 1억 달러 규모로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 등이 출자하였고, KB인베스트먼트 등이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중동 측 참여자인 걸프투자공사는 1983년 GCC 6개국이 균등 출자하여 설립된 투자기관이다.

GCF는 기본적으로 KGF와 GIC가 같은 비율로 투자하는 펀드이다. 그러나 KGF가 GIC뿐만 아니라 GIC가 지정하는 GCC 국부펀드 또는 국책은행과도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 및 업종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2. 글로벌협력펀드(Global Cooperation Fund) 구조



자료: KB Investment(2014), p. 15, p. 27; 윤동일(2013), p. 115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KGF는 주투자자인 정책금융공사의 요청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과 GCC 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60%로 규정하였고, 특히 GCC 진출 기업 중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50%로 규정하였다.[95] 따라서 해당 펀드는 국내 경쟁이 치열한 석유화학, 제조업, IT, 청정에너지 부문의 중소·중견 기업이 GCC 지역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대상기업은 GCC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 또는 GCC 기업이며,

95) KB Investment(2014), p. 26. 신성장동력사업은 2009년 정부가 선정한 17개 첨단 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녹색기술산업분야(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분야(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분야(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문화컨텐츠·SW, MICE·관광) 등이 포함된다(한국정책금융공사, http://www.kofc.or.kr/kofc/business/grow_01.jsp (검색일: 2014. 5. 23)).

투자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96] 첫째, GCC 지역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GCF의 투자금을 활용하여 GCC 지역에 공장 또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둘째, GCC 지역 회사와의 인수 · 합병에 참여하려는 국내 기업이다. 이 경우 국내 기업이 GCC 지역 기업의 경영권 인수, 합작회사 설립, 또는 신규법인 설립 등 경영권과 관련된 투자를 할 때 GCF가 참여할 수 있다. 셋째, 국내 기업과 관련 있는 GCC 지역 기업이다. 이 경우 GCF는 국내 기업이 EPC 업체로 참여하는 건설 · 플랜트 사업에 투자한 GCC 지역 기업의 지분 인수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GCF를 통해 건설 · 플랜트 및 에너지 수입 부문 이외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 교육 등 다양한 지식기반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중동진출 다각화와 GCC 국가의 산업다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중동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및 한계

가. 수출신용기관

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은 자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재정을 활용하여 보험, 보증, 대출 등의 공적신용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또한 ECA는 최종 위험부담자(last resort of risk taker)로서 상업금융기관이 기피하는 수출 및 투자 위험을 부담하기도 한다.[97] 우리나라의 ECA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이러한 시장실패

96) 윤동일(2013), p. 116.

97) IMF(2003), p. 256; 김상환, 장원창(2000), p. 1.

를 보완하기 위해 각각 대외거래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며, 대외거래 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인수한다. 특히 정부의 직접적인 수출보조금 지급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의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각국은 OECD 수출신용협약(Export Credits Arrangement)의 규정에 따라 ECA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강조하는 추세이다.[98]

우리나라는 1국 2ECA 구조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신용을 제공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도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ECA는 국내 기업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해외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주를 위해 대출 및 보증 등 관련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6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직접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하여 PFI(Project Finance International)가 선정한 '올해의 다자개발기관(Global Multilateral of the Year)'에 선정되었다. 또한 [표 4-8]과 같이 한국 정책금융기관의 2013년 신규 PF 지원

98) OECD 수출신용협약은 공적지원(official support)을 공적금융지원(official financing support)과 순수보증(pure cover)으로 분류한다. 공적금융지원은 기업에 자금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직접대출, 차환(refinancing), 이자율 지지(interest-rate support), 유상 및 무상원조 등이 있다. 차환은 상환 규모 및 시기를 충족하기 힘든 채무자에게 추가 대출을 제공하여 당초 채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구제금융이며, 이자율 지지 업무는 상업은행과 ECA가 공동으로 공적수출금융을 제공할 때 ECA의 상업참고금리(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s, 각국 ECA가 공적수출금융 제공 시 적용 가능한 최저 금리)와 상업금융기관의 변동금리 간 차이를 ECA가 보전 또는 환수하는 제도이다. 순수보증은 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대외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불가항력 위험(force majeure risk), 비상위험(political risk), 신용위험(commercial risk)으로부터 수출자, 생산자 또는 관련 자금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신용보험(export credit insurance)과 수출업자의 절차 이행 의지를 확약하는 수출신용보증(export credit guarantee) 등이 있다(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용어집 DB (검색일: 2014. 7. 28);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kr/work/banking/guar/guar_03.jsp (검색일: 2014. 7. 28)).

표 4-8. 주요국 개발금융기관 지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3년				2014년 상반기			
	직접 대출	보증	신규 지원	소계	직접 대출	보증	신규 지원	소계
한국[1)]	5,170	329	5,499	12,249	1,450	3,190	4,640	11,051
일본[2)]	7,103	-	7,103	10,716	3,346	1,146	4,492	8,358
EU[3)]	4,708	300	5,008	12,595	3,151	-	3,151	6,156
미국[4)]	5,230	-	5,230	10,020	1,435	-	1,435	3,720
중국[5)]	2,684	-	2,684	3,984	N/A	N/A	N/A	N/A

주: 1)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2) JBIC(일본국제협력은행), NEXI(일본수출투자보험), DBJ(일본개발은행)
3) EIB(유럽투자은행)
4) USExim(미국수출입은행)
5) China Eximbank(중국수출입은행), CDB(중국개발은행), Sinosure(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6) 2014년 상반기 중국 ECA 실적은 PFI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았음.

자료: PFI(2014a), pp. 71-72; PFI(2014b), pp. 53-5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posure) 규모는 54억 9,900만 달러로 일본 ECA의 71억 300만 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동 기간 일본 정책금융기관과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의 지원이 각각 개도국과 선진국에 편중된 것과 달리 한국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은 개도국(34억 7,400만 달러)과 선진국(20억 2,500만 달러) 전반에 걸쳐 균형적으로 집행되었다.[99)] 또한 누적 지원 규모도 2013년 말 기준 122억 4,900만 달러로 EIB의 125억 9,500만 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2014년 상반기에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등 한국 정책금융기관이 신규 지원 46억 4,000만 달러, 누적 지원 110억 5,100만 달러로 모두 1위를 기록하였다.

99) 2013년 일본 ECA의 개도국 신규 지원(71억 300만 달러)은 1위를 기록하였으나 선진국 지원은 10위 안에 들지 못하였다. 반면 EIB의 선진국 신규 지원(46억 2,700만 달러)은 1위를 기록하였으나 개도국 지원(3억 8,100만 달러)은 10위를 기록하였다. PFI(2014a), pp. 71-72.

해외 프로젝트 시장에서 2008~09년 세계금융위기, 2010년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미국 및 EU 금융기관의 역할이 축소되었으나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개발금융기관의 역할은 확대되었다. 우리 정부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만큼 다음 절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1)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KEXIM: Korea Export-Import Bank)은 1969년 제정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설립되었다.[100] 특히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 대출 및 보증,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등을 주관하기 때문에 금융 정책의 활용폭이 넓다는 강점이 있다.

EDCF는 국가신용도가 낮고 자금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빌려주어 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에서 우리 기업이 사업주 또는 EPC 업체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업을 수주한 우리 기업에는 수출금융을 제공하여 EDCF와 수출금융을 접목한 복합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다.[101]

---

100)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2122호(1969. 7. 28. 제정)」

101) EDCF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일부에서는 기금의 규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가 복잡하여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ADB나 MDB 보다는 자금 조달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EDCF가 2년이라면 ADB나 MDB는 3년), 지분 투자・대출 및 보증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2013년 수출입은행은 대출 및 보증으로 각각 53조 4,000억 원, 22조 4,000억 원을 집행하여 국내 산업에 총 75조 8,000억 원을 지원하였다.[102] 대출 중 수출 관련 대출 규모는 37조 8,000억 원(345억 달러)으로 2012년 36조 7,000억 원(326억 달러)보다 3.1% 증가하였다.[103] 산업별로 분석해 보면, 2013년 산업 플랜트에 13조 원(118억 달러)이 집행되어 최대 비중(34.3%)을 기록하였다. 서비스 부문(4조 7,000억 원, 42억 달러)과 석유화학제품 부문(4조 6,000억 원, 42억 달러)은 각각 12.3%와 12.2%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104] 수출대출의 일종인 직접대출 또는 구매자 신용은 해외 구매자의 한국 상품 및 재화 구매를 지원하는 것이다. 2013년 집행된 직접대출 규모는 3조 4,020억 달러(31억 700만 달러)로 2012년 1조 5,750억 달러(13억 9,800만 달러) 대비 116.0% 증가하였다. 그러나 약정 기준으로 보면 2013년 5조 9,800억 원(54억 6,100만 달러)로 2012년 14조 8,410억 원(131억 7,000만 달러) 대비 59.7% 감소하였다.[105]

또한 수출입은행은 해외 발주처에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보증(guarantee)을 제공한다. 2013년 프로젝트 관련 보증은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전체 보증의 77.7%에 달하는 17조 3,880억 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국내외 상업은행에 금융 보증(financial guarantees)을 제공하여 상업은행들이 보증부 대출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업 리

102) KEXIM(2014), p. 19. 대출은 수출, 수입, 해외투자 등 세 개 분야로 나뉘며, 보증은 프로젝트 관련 이행성 보증, 채무 보증, 기타 보증 등 세 개 분야로 나뉜다.

103) *Ibid.*, p. 20.

104) *Ibid.*, p.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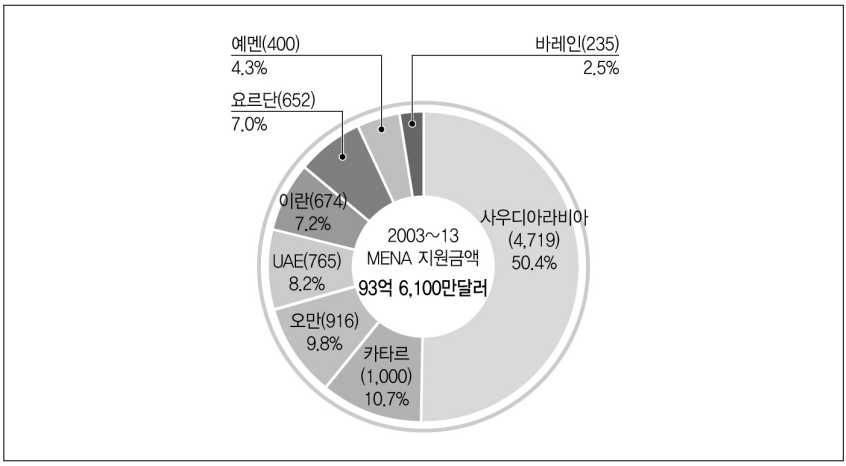
105) *Ibid.*, p. 20.

스크에 민감한 상업은행에 리스크 절감 효과를 주는 동시에 상업은행과의 동반진출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비중은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금융 보증은 2012년 대비 16.8% 감소한 2조 2,000억 원(20억 달러)으로 전체 보증의 9.6%를 기록하였다.[106]

2003~13년 기간 수출입은행이 승인한 중동지역 PF 사업은 총 21개 프로젝트, 93억 6,100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3 참고).[107] 그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업에 지원한 금액이 47억 1,900만 달러로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며, 카타르(10.7%), 오만(9.8%), UAE(8.2%), 이란(7.2%) 순으로 지원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참여한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젝트는 석유화학, 발전, 천연자원 개발 등 다양한 플랜트 부

그림 4-13. 수출입은행 MENA 지역 PF 승인(2003~13)

(단위: 백만 달러)



자료: 김영기(2013), p. 12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106) 2013년 수출입은행은 프로젝트 관련 보증, 금융 보증(financial guarantees) 9.6%, L/C (Letter of Credit, 신용장) 관련 등 기타 보증 12.7%를 제공했다(*Ibid.*, p.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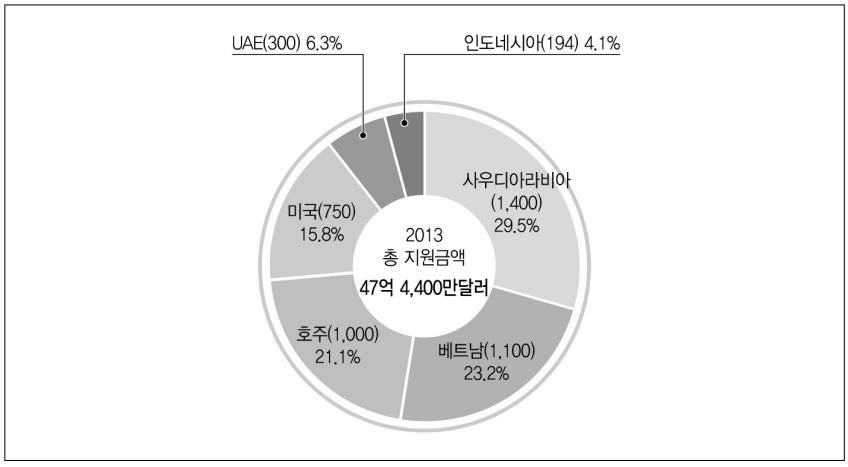
107) 김영기(2013), p. 12.

문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국가에서 수출입은행의 주력 참여 사업은 카타르 가스 개발 사업, 오만 및 UAE의 발전 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 수출입은행은 7개 PF 사업에 총 47억 4,400만 달러를 승인하였다(그림 4-14 참고). 그 중 3개의 프로젝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다라(Sadara) 석유화학설비 및 마덴(Maaden) 인산염 생산설비 사업, UAE의 에말(EMAL) 2단계 복합화력발전 사업 등 중동지역 사업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규모가 각각 13억 6,000만 달러, 3억 4,000만 달러였으며, 총 지원 규모는 17억 달러로 전체의 35.8%에 달하였다.[108] 국가별로 분석해보면 사다라 프로젝트에 10억 달러의 대출을 승인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승인 금액 14억 달러, 전체 지원의 29.5%

그림 4-14. 수출입은행 PF 승인(2013)

(단위: 백만 달러)



자료: KEXIM(2014), p. 23.

108) KEXIM(2014), p. 23.

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사다라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사업이라는 상징성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닌 경제 규모 및 정치적 영향력에 힘입어 향후 중동 지역 내 우리 기업의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활동에 비해 자산 규모나 정부의 지원 비중 등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2013년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자산 규모는 9조 2,500억 원이고 재정자금 지원 비중은 13.1%로 타국 ECA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표 4-9 참고). 그러나 수출입은행이 안정적인 신용도(S&P 등급 A+)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출입은행법」 제37조에 따라 결산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2013년 말 기준 2조 원)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보전해주기 때문이다.[109]

그러나 최근 건설 · 플랜트 프로젝트의 대형화 및 고위험화 추세로 인해 ECA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었다. 이에 2014년 1월 자본금 및 채무보증 확대, 투자업무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수출입은행법」이 시행되었다.

우선 개정된 「수출입은행법」은 자본금을 기존의 9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하였다.[110]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1998년 4조 원으로 책정된 이후,[111] 2009년까지 8조 원을 유지해왔다.[112] 그러나 해외 건설 · 플랜

109) Bloomberg(검색일: 2014. 8. 5);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12307호(2014. 1. 21. 타법개정)」.

110)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12270호(2014. 1. 21. 일부 개정)」.

111)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5560호(1998. 9. 16. 일부 개정)」.

112)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9355호(2009. 1. 30. 일부 개정)」.

표 4-9. 주요국 ECA

구분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JBIC	NEXI	CHINA EXIM	US EXIM
국가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중국	미국
설립연도 및 전신	1976년	1992년 수출보험공사 설립	1950년 일본수출입 은행 설립	2001년	1994년	1934년 워싱턴 수출입은행 설립
총 자산[1]	61조 원 (582억 달러)	3조 3,326억 원	14조 4,303만 엔 (170조 원)	3,687억 엔 (4조 3,507억 원)	1조 5,589억 위안 (271조 828억 원)	201억 달러 (22조 원)
재정자금 지원비중[2]	13.1%	100% (무역보험기금)	93.6%	N/A	47.8%	100%
지원 범위	대출, 보증	보증, 보험	대출, 보증	보험	보험, 보증	대출, 보증, 보험

주: 1) 2012년 말 기준임.
2) 재정자금(government funds)은 정부 출자를 의미함.
3) JBIC 및 NEXI(2013년 3월 말 기준, 100엔당 1,180.13원), SINOSURE(2012년 말 기준, 위안당 173.89원), US EXIM(2013년 9월 말, 달러당 1,098.67원)을 제외하고 2013년 말 기준임.
4) 2013년 평균 달러당 환율은 1,095.04원임.

자료: 전부강(2014), p. 206; KEXIM(2014), p. 8; KSURE(2014), p. 51; China EXIM(2013), p. 38; US EXIM(2014), p. 60; JBIC(2013), p. 14; NEXI(2013), p. 25.

트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2014년 15조 원으로 자본금을 확대하였다.

또한 투자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직접투자인 지분투자와 간접투자인 펀드투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였다. 지분투자의 경우 개정 이전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연간 지분투자 총량만 승인 받도록 완화되었다. 프로젝트가 대형화됨에 따라 ECA 금융지원 수요도 보증 및 대출에서 지분투자로 확대되어 지분투자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펀드투자의 경우 개정 이전에는 수출입은행의 지분율 한도가 펀드 규모의 15%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25%로 확대되었고, 펀드투자 지원분야에 대한 제한도 폐지하여 다양한

펀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외투자가 수출입은행의 주요 업무로 규정되면서 대출 · 보증 등 기존 업무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채무보증 범위도 확대되었다. 기존 채무보증 대상 사업은 거래 규모 1억 달러 이상 및 대출 비중 55% 이상이었으나, 개정 이후 사업 규모 제한이 폐지되었고 대출 비중도 50% 초과로 완화되었다. 보증 대상 또한 금융기관에서 연기금 · 보험사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채무보증이 제한되었던 1억 달러 이하의 중소 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와 같이 「수출입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도 존재한다. 먼저 자본이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선진국 ECA에 비해 아직까지 적은 수준이며 금융 조달 조건도 불리하다. 자본금을 6조 원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의 자산은 61조 원으로 JBIC의 14조 4,303만 엔(약 170조 3,000억 원)이나 China EXIM의 1조 5,589억 위안(약 271조 830억 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표 4-9 참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국제통화인 달러와 엔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 금융 조달 조건도 유리하다. 우리나라의 조달금리가 타국 ECA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차입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한다. 만약 한국 ECA의 금융지원 대상이 프로젝트 회사의 한국산 기자재(Korean contents) 수입도 포함할 경우, 한국 ECA의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ECA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수출 감소로도 이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 조달 조건이 개선되어야 하지

만 국가신인도가 획기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조달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동안 채무보증이 제한되었던 1억 달러 이하의 중소 규모 사업에 대한 법적 제한도 완화되었으나 중소 규모 투자에 대한 심사방식 개선, 전문인력 보충 등 관련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금융 지원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사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 심사, 위험 관리 등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은 비슷하다. 따라서 중소 규모 사업보다는 비용 대비 수익이 큰 대규모 사업을 선호하게 된다.

또한 중소 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시 수출입은행 단독융자보다 타국 ECA 또는 MDB와의 협조융자를 통해 자금을 제공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수출입은행의 입장에서는 협조융자를 통해 사업 대상 국가 및 프로젝트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금융 조달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절차도 복잡해지고 조달비용도 증가하게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2)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업무는 1968년 제정된 「수출보험법」에 따라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행하였으나 1977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다.[113] 수출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1992년 해당 업무를 독립적으로 전담하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되었다. 이후 2010년 「수출보험

113) 「수출보험법, 법률 제2063호(1968. 12. 31. 제정)」.

법」이 수출과 수입을 포괄하는 「무역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가 출범하였다. 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114]

무역보험공사의 주요 업무는 간접적인 여신 제공과 기업 및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 경감이다. 수출입은행은 기업에 직접적인 여신을 제공하는 은행이지만, 무역보험공사는 자사의 보증 아래 국내외 상업은행이 대출하는 구조의 간접적인 여신을 제공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이다.

무역보험공사의 지원 규모는 우리나라의 대외거래 증가와 맞물려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9년 165조 원이었던 무역보험 사업규모는 5년간 연평균 5.4% 증가하여 2013년에는 203조 7,000억 원을 기록하였다.[115] 그 중 보험책임이 소멸되지 않은 유효계약액(outstanding commitment, outstanding amount)은 2013년 98조 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가 28조 9,000억 원(29.2%)으로 가장 큰 규모의 유효계약액을 기록하였으며, 유럽과 중동은 각각 18조 6,000억 원(18.8%), 17조 8,000억 원(18.0%)을 기록하였다. 북미(10.6%), 오세아니아(4.8%), 아프리카(3.0%)의 유효계약액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2012년 대비 각각 20.5%, 95.4%, 27.4% 증가하여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유효계약액 규모가 큰 아시아, 유럽, 중동은 전년대비 각각

114) 「무역보험법, 법률 제10228호(2010. 4. 5. 일부 개정)」.

115) KSURE(2014), p. 18.

9.9%, 1.6%, 0.2% 감소하여 무역보험공사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의 전체 지원은 크게 수출보험과 수입보험으로 나뉜다. 수입보험은 원유, 철 등 국가 경제에 중요한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선급금 미회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이는 피보험 대상에 따라 수입자용 수입보험과 금융기관용 수입보험으로 분류된다. 수출보험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외거래 시 발생 가능한 불가항력 위험, 수입국의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무역보험공사의 업무 중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이 있는 것은 수출보험 업무이며 이는 결제기간 2년을 기준으로 단기성 종목과 중장기성 종목으로 나뉜다.[116]

최근 프로젝트의 대형화 · 장기화 · 고위험화 추세에 따라 중장기수출보험 및 해외사업금융보험 등 중장기 종목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해당 보험은 플랜트 건설이나 선박 건조 등의 장기 · 대형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금융을 조달하여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13년 중장기수출보험과 해외사업금융보험의 유효계약액은 각각 전년대비 13.1%, 10.2% 증가한 30조 원과 11조 1,000억 원을 기록하였다.[117] 중장기 종목 전체 유효계약액 또한 상기 보

116) 수출보험은 단기성・중장기성 종목 외에도 환변동보험, 신뢰성보험,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해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 등 기타 보험종목 및 서비스가 있다. 본고는 거래 자체와 관련된 단기성・중장기성 종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지원사업, https://www.ksure.or.kr/trade/export/Export01.jsp (검색일: 2014. 8. 14)).

117) KSURE(2014), p. 26. 유효계약액(outstanding commitment, outstanding amount)은 보험계약금 중 보험책임이 소멸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용어집 DB, 검색일: 2014. 7. 28).

험 지원 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3.8% 증가한 54조 7,000억 원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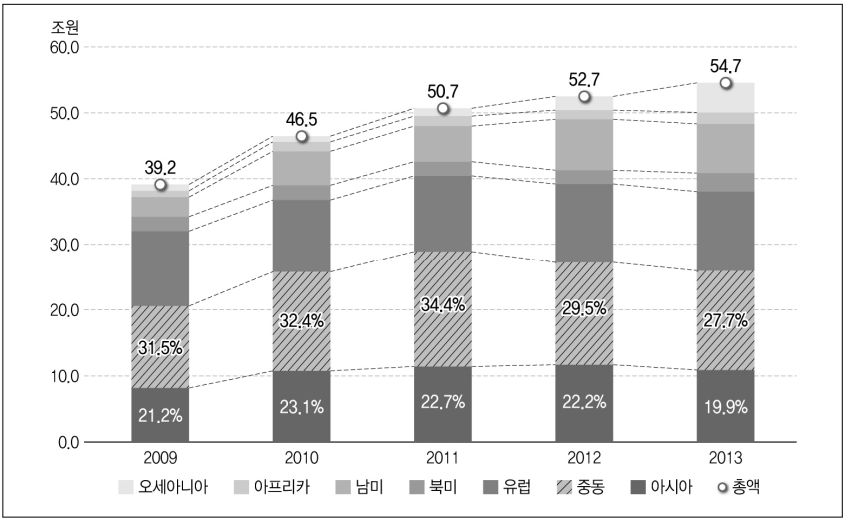
중장기 종목의 지원 대상을 산업별로 분석해보면 플랜트와 조선이 각각 25조 1,260억 원, 18조 4,430억 원으로 전체의 45.9%와 33.7%를 차지하였다. 플랜트 부문은 2012년 대비 1.3% 감소하며 소폭 약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전체 중장기수출보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지원은 5조 4,380억 원으로 전체의 9.9%에 불과하지만 2013년 호주 로이힐(Roy Hill) 철광산 프로젝트 수주에 힘입어 전년대비 24.6%의 증가율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플랜트 부문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내 플랜트 · 조선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중동지역이 전체 지원의 27.6%인 15조 1,000억 원을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장기 종목의 지역별 비중은 중동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4-15 참고). 무역보험공사가 위험 분산 및 다양한 수익원 확보 등의 목적으로 지원 대상을 다변화함에 따라 북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였다.[118] 그러나 여전히 중동을 비롯하여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해온 유럽 및 아시아에 대한 지원이 전체 중장기 종목의 6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동지역은 건설 · 플랜트 사업이 많고 사업 기간도 길기 때문에 2009~13년 기간 중 중동지역 지원 비중이 30% 내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기금배수에 따른 재무건정성 악화와 국내 해외건설 투자가용자본 부족은 무역보험공사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한

118) KSURE(2014), p. 26.

그림 4-15. 지역별 중장기 종목 유효계약액(2009~13)



자료: KSURE 2010 p. 27, 2011 p. 26, 2012 p. 21, 2013 p. 25, 2014 p. 28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다. 무역보험공사의 사업 목표가 대외거래 시 발생가능한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고나 미회수채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표 4-10]과 같이 무역보험공사의 기금배수가 2009년 50.7배에서 점차 악화되어 2012년 92.4배까지 상승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다. 2013년 87.5배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현재 보유한 기금 규모에 비해 인수한 위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여 재무건전성이 다소 악화되었다.[119]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누적 보험사고율이 기타 보험기금의 1/10 수준이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흥국의 동시다발적 사고 가능성을 고려하면 개선되어야 한다.[120] 따라서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

119) 기금배수는 보험책임 잔액(유효계약액)을 기금총액(현재 보유한 자본금)으로 나눈 것으로 무역보험기금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기금배수가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은 낮다.

표 4-10. 무역보험공사 기금배수(2009~13)

(단위: 조 원, 배)

	2009	2010	2011	2012	2013
유효계약액(A)	87.6	90.4	93.5	97.1	98.9
기금총액(B)	1.7	1.2	1.0	1.1	1.1
기금배수(A/B)	50.7	78.3	91.5	92.4	87.5

자료: KSURE 2010 p. 26 p. 46, 2011 p. 17 p. 44, 2012 p. 46, 2013 p. 19 p. 46, 2014 p. 18 p. 5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금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외거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부 대출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해외 건설 · 플랜트 부문에 투자할 자본을 육성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조성 중인 PF 관련 펀드의 목적은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지분 투자이다. 그러나 PF 금융구조를 살펴보면 투자금 비중이 20~30%인 데 반해 차입금은 70~80%에 달한다. 국내 상업은행은 저리의 엔화자금을 확보한 일본계 초대형은행(mega bank)에 비해 규모도 작고 조달금리도 낮으며 인력도 부족하다. 무역보험공사가 국내 상업은행이 보증부 대출에 참여하도록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 육성에 필요한 법제 개편 등 비금융적 환경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120) 무역보험공사의 1992~2012년 기간 누적 보험사고율은 0.4%로 신용보증기금의 5%의 1/10 수준이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 등에 적용되는 적정기금배수인 20배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KPMG가 동시다발적 사고 가능성을 감안하여 50배의 기금배수를 권고하였다(한국무역보험공사 2013, p. 8)

나. 상업은행

한국 ECA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비해 국내 상업은행의 PF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2013년 8월 기준 국내 상업은행이 해외 PF에 참여한 사례는 총 3건, 11억 달러로, 2012년 정책금융기관이 지원한 389억 달러의 2.8% 수준으로 나타났다.[121] 국내 상업은행의 해외 PF 참여가 저조한 핵심 원인은 보수적인 투자 성향과 낮은 금융 조달 능력 때문이다. 금융 조달 능력은 금리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국내 상업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으로 인해 장기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시장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를 조달할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 및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조달경쟁력이 높아진다. 2014년 8월 기준 한국의 S&P(Standard & Poor's) 신용등급은 A+로 미국(AA+), 일본 · 중국(AA-)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비해 조달능력이 낮다고 볼 수 있다.[122] 또한 신용등급이 AA-로 같은 일본과 중국이라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경험, 국제통화 여부 등에 따라 일본이 중국에 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23]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도도 조달경쟁력의 중요한 변수이다. 국내 상업은행 중 일본 은행보다 신용도가 높은 은행도 있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 30년간 국제시장에서 저금리로 조달해온 실적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내 상업은행보다 조달비용이 낮다.

---

121) 관계부처 합동(2013), p. 3.

122) Bloomberg(검색일: 2014. 8. 5).

123) 일례로 2013년 6월 기준 5년 만기 조달금리는 일본이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은행간대출금리)+3bp(basis point, 0.01%포인트)로 한국의 Libor+99bp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관계부처 합동 2013, p. 3).

또한 국내 상업은행은 투자 성향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해외 사업에 대한 투자를 꺼린다. 국내 상업은행은 일반적으로 3~5년 미만의 단기 대출 비중이 높지만 해외 PF 사업은 대부분 장기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

한편 해외 건설 · 플랜트 사업이 대형화되면서 금융 조달 능력이 계약 체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 자문 및 주선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 금융자문사는 사업타당성 및 사업구조 검토, 재무모델 작성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사업의 구조를 세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124] 금융자문 분야는 프로젝트 및 금융 조달 구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영역이지만 소수의 선진국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 및 컨설팅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표 4-11]과 같이 영국의 언스트앤영(Ernst & Young),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PricewaterhouseCoopers), 네덜란드의 KPMG, 프랑스의 크레딧에그리꼴(Credit Agricole) 및 BNP 파리바(BNP Paribas) 등 금융자문 경험

표 4-11. 금융자문사(Advisory) 순위(2013)

(단위: 건, 백만 달러)

수주 기준				금융 종결 기준		
순위	금융자문사	신규(total)	누적 (overall)	순위	금융자문사	규모
1	Ernst & Young	90	425	1	NM Rothschild	20,297
2	PwC	90	239	2	Royal Bank of Scotland	19,286
3	KPMG	64	64	3	Greengate	13,200
4	Credit Agricole	32	46	4	Societe Generale	11,680
5	BNP Paribas	25	69	5	PwC	11,649

자료: PFI(2014a p. 73, 2014b pp. 53-5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24) 관계기관합동(2012), p. 6.

과 지식을 확보한 소수의 선진국 금융 및 회계감사 컨설팅 기업이 해당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2013년 이들 상위 5개 금융자문사의 수주 비중은 전체의 62.6%를 차지하였다.

금융주간사(Mandated Lead Arranger)는 금융 주선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은행으로서 사업의 재무모델 검증, 대주단 구성, 금융계약 실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125] 2013년 금융주간사 순위를 보면 일본계 은행들이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PF 대출을 선도하였다(표 4-12 참고). 특히 미쓰비시 도쿄 UFJ은행의 대출규모는 114억 달러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지역별로도 미주 1위, 아시아 · 태평양 및 유럽 · 중동 3위에 올라 세계 PF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SMBC: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미즈호(Mizuho) 은행도 2012년

표 4-12. 금융주간사(Initial Mandated Lead Arrangers) 순위

(단위: 백만 달러, %, 건)

2013년					2014년 상반기				
순위	금융주간사	규모	비중	거래	순위	금융주간사	규모	비중	거래
1	미쓰비시도쿄UFJ	11,430.4	5.6	108	1	BNP Paribas	5,825.0	5.5	33
2	State Bank of India	10,090.1	5.0	20	2	SMBC	5,515.1	5.2	46
3	중국개발은행	8,312.0	4.1	6	3	미쓰비시도쿄UFJ	4,947.7	4.7	58
4	SMBC	7,923.8	3.9	80	4	Credit Agricole	3,746.4	3.5	40
5	미즈호 은행	7,443.8	3.7	60	5	미즈호 은행	3,560.7	3.4	39
6	산업은행	5,659.1	2.8	16	29	산업은행	889.6	0.8	8
45	KB금융그룹	957.0	0.5	3	42	KB금융그룹	467.1	0.4	1
62	우리금융그룹	579.4	0.3	1	42	신한금융그룹	467.1	0.4	1
68	기업은행	506.6	0.3	2	52	NH농협금융지주	328.5	0.3	2
86	외환은행	415.0	0.2	1	54	외환은행	307.5	0.3	1
114	NH농협금융지주	246.2	0.1	2	180	하나금융그룹	2.3	0.0	1
총액		204,026.6	100.0	584	총액		105,708.0	-	274

자료: PFI(2014a pp. 50-51, 2014b pp. 53-5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25) 관계기관합동(2012), p. 2.

3위와 4위에 이어 2013년에도 4위와 5위를 기록하며 세계 PF 시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은행을 비롯하여 인도의 SBI(State Bank of India)와 중국개발은행도 자국 내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및 금융 주선 실적에 힘입어 금융주간사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산업은행을 제외한 기타 국내 상업은행의 금융 주선 실적은 전 세계 PF 거래의 0.1~0.5%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6개 상업은행의 대출 규모는 전 세계 PF 대출 총액의 4.1%(84억 달러)인 반면 일본 3대 은행은 14.6%(298억 달러)로 국내 상업은행의 3.6배에 달하는 융자를 제공하였다. 2014년 상반기에는 국내 상업은행의 금융 주선 업무가 더욱 위축되어 전 세계 PF 대출 시장에서 산업은행의 비중이 2013년 2.8%에서 0.8%로 감소하였고 순위도 6위에서 29위로 하락하였다.

또한 국내 상업은행이 해외 프로젝트의 금융 조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원인 중 하나는 중동 현지 점포가 부족하여 현장 밀착형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3년 말 기준 국내은행이 진출한 중동국가는 바레인과 UAE 2개 국가에 그쳤다(표 4-13 참고). 중동 현지에 진출한 국내 은행은 외환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4개 은행이지만 상업은행은 외환은행과 우리은행뿐이었다. 바레인에는 외환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지점 1개를 설립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국내은행 점포는 총 2개이다. UAE에는 앞서 언급한 4개 은행이 모두 사무소 1개를 설립하였고 외환은행이 지점 1개를 추가 설립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국내은행 점포는 총 5개이다. 이와 같이 중동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수주하는 해외건설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국내 상업은행의 중동 점포는 부족한 실정이다.

표 4-13. 국내은행 중동 점포 현황(2013년 말 기준)

(단위: 개)

	국민	신한	외환	우리	하나	부산	대구	기업	농협	산업	수출입	합계
바레인	-	-	지1	지1	-	-	-	-	-	-	-	지2
UAE	-	-	지1, 사1	사1	-	-	-	-	-	사1	사1	지1, 사4
지점	5	8	14	14	4	1	1	6	2	8	-	63
현지법인	4	9	10	6	2	-	-	1	-	5	4	41
사무소	3	3	6	4	3	1	-	3	2	8	15	48
합계	12	20	30	24	9	2	1	10	4	21	19	152

주: 지는 지점, 사는 사무소를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2014),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7836&no=10637&s_title=&s_kind=&page=1 (검색일: 2014. 10. 4).

이에 따라 중동 지역에 대한 이해와 현지 프로젝트 경험을 갖춘 금융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내은행의 현지 점포가 증가한다면 현장 밀착형 영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국내 본점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국내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사례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 사업주로 참여하는 기업은 사업 전반에 관여하기 때문에 도급만 수행하는 EPC 업체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연계 산업의 동반진출 및 생산유발을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 커진다. 최근 국내 EPC 기업은 해외 건설 · 플랜트 시장에서 저가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 터키 등 신흥국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험한 유럽, 미국, 일본 기업들은 기존의 EPC 위주에서 탈피하여 사업주로 진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사업주는 사업 발굴(deal

sourcing), 수익성(bankability) 평가, 리스크 관리, 금융 조달 구조 설계, 투자자 및 대주단 모집, 운영 · 정비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공기업은 국내 인프라 개발, 전문지식, O&M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기업 또한 다양한 계열사, 해외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사업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는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업이다. 한국전력공사는 1995년 필리핀 말라야 화력발전소(Malaya Thermal Power Plant) 성능복구 · 운영 사업에 사업주로 진출한 것을 계기로 투자개발형 사업에 진출하였다. 또한 1999년 필리핀 일리한(Ilijan) 가스복합 화력발전소를 수주하면서 국내 최초로 해외발전소를 건설하였으며, 동 사업에 9,100만 달러를 출자하여 국내 최초로 PF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126]

한국전력공사는 풍부한 해외 사업 경험을 토대로 중동지역 발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2년 발전 부문 디자인 기업 12위(1억 8,800만 달러)와 원자력 플랜트 기업 1위(1억 7,52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127] 2010년 이후 수주한 총 5건의 해외 사업은 발전 규모 3,896MW, 사업비 53억 3,600만 달러에 달하였다. 그 중 3건이 UAE 슈웨이핫 3(Shuweihat 3) 가스복합발전소(2010년), 요르단 IPP3 디젤발전소(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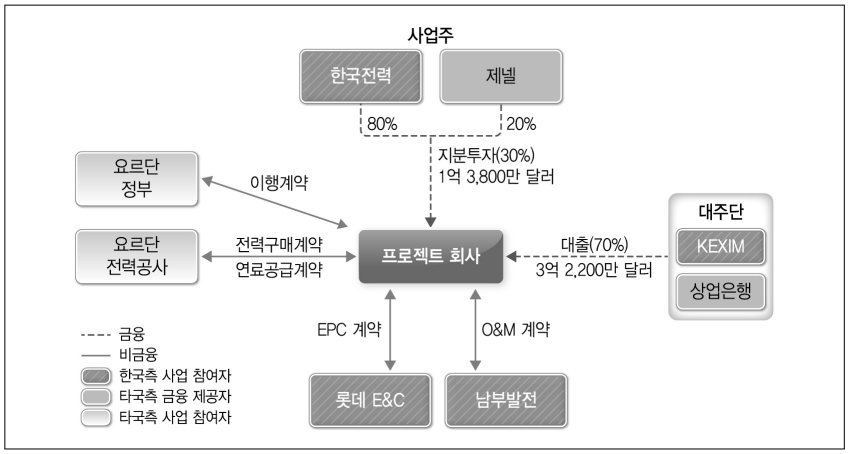
126) 산업자원부(2004), http://www.mke.go.kr/motie/ne/rt/press/bbs/bbsView.do?bbs_seq_n=5410&bbs_cd_n=16 (검색일: 2014. 7. 18). 전체 사업 규모 7억 900만 달러 중 자본금과 차입금 비중이 각각 25.1%(1억 7,800만 달러), 74.9%(5억 3,100만 달러)였으며, 한전은 전체 자본금의 51.1%인 9,100만 달러를 출자하였다.

127) ENR(2013), p. 15, p. 17.

년) 및 푸제이즈 풍력발전(2013년) 등 중동에서 수주한 사업이다.[128]

요르단 알 카트라나(Al Qatrana) IPP 2 사업은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가 발주한 373MW급 가스복합 화력발전사업으로 2008년 한국전력공사-제넬(Xenel) 컨소시엄이 수주하였다. 동 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중동지역에서 최초로 수주한 발전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129] 총 사업비 5억 달러를 출자 30%, 차입 70%의 구조로 조달하였다(그림 4-16 참고). 한국전력공사는 최대주주로서 자본금의 80%를 투자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넬이 나머지 20%를 투자하였다. 차입금은 프로젝트 회사가 수출입은행, BNP 파리바, KfW(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에서 조달하였다. 알 카트라나 사업의 EPC 및 O&M 업체에는 롯데E&C(Engineering &

그림 4-16. 요르단 알 카트라나(Al Qatrana) IPP 2 프로젝트 구조



자료: 알 카트라나 현지 법인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2014. 8. 20, 요르단 암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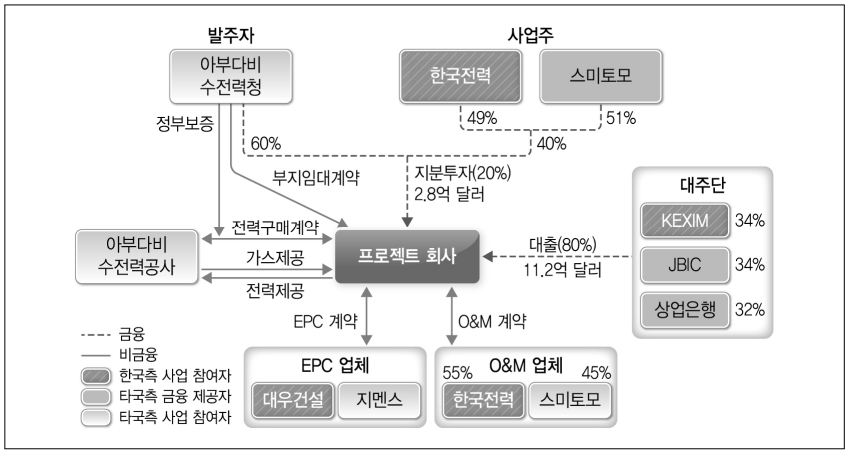
128) 김효종(2014), p. 4.

129) 한국전력(2008), http://cyber.kepco.co.kr/kepco/PR/ntcob/ntcobView.do?boardCd=BRD_000117&menuCd=FN06030103&boardSeq=8506941 (검색일: 2014. 8. 28).

Construction)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남부발전이 선정되었다. 알 카트라나 발전소는 2011년 두 차례의 상업운전을 마쳤으며, 2013년 말 요르단 발전용량의 약 12%를 생산하고 있다.[130)]

UAE 슈웨이핫3 IPP 사업은 아부다비 수전력청(ADWEA: Abu Dhabi Water & Electricity Authority)이 발주한 1,600MW급 가스복합발전사업으로 2010년 한국전력공사-스미토모상사(Sumitomo Corporation) 컨소시엄이 수주하였다. 총 사업비 14억 달러를 출자 20%, 차입 80%의 구조로 조달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와 수출입은행은 각각 출자(19.6%)와 대출에 참여하였다(그림 4-17 참고). 한국전력공사는 사업주이자 O&M 업체로 2038년까지 25년간 약 4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131)]

그림 4-17. UAE 슈웨이핫3(Shuweihat 3) 프로젝트 구조



자료: 김효종(2014), p. 27을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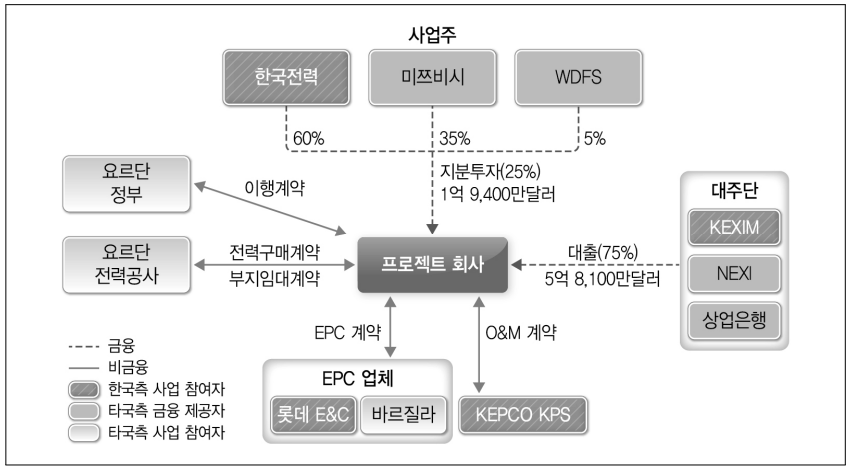
130) 알 카트라나 현지 법인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2014. 8. 20, 요르단 암만).

131) 한국전력(2011), http://cyber.kepco.co.kr/kepco/PR/ntcob/ntcobView.do?boardCd=BRD_000117&menuCd=FN06030103&boardSeq=8507182 (검색일: 2014. 8. 22).

또한 대주단과 EPC 업체에 각각 수출입은행과 대우건설이 참여하여 동 프로젝트에 한국 ECA 및 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요르단 알 마나커(Al Manakher) IPP 3 사업은 요르단전력공사가 발주한 600MW급 세계최대 디젤내연 발전사업으로 2012년 한국전력공사, 미쓰비시 상사(Mitsubishi), 바르질라 그룹(WDFS: Wärtsilä Development & Financial Services) 컨소시엄이 수주하였다. 총 사업비 7억 7,000만 달러를 출자 25%, 차입 75%의 구조로 조달하였다(그림 4-18 참고). 한국전력공사는 최대주주로서 지분투자의 60%를 담당하였고, 일본 미쓰비시 상사와 핀란드 바르질라 그룹이 각각 35%, 5%를 투자하였다. 수출입은행은 일본수출보험공사(NEXI), 국제상업은행 등과 함께 프로젝트 회사에 대출을 제공하였다. 한편 동 사업의 EPC 및 O&M 업체로 국내기업인 롯데E&C와 한전KPS(KEPCO Plant Service & Engineering)가 선정되었다. 특히 알 마나카 발전소의 O&M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PS

그림 4-18. 요르단 알 마나커(Al Manakher) IPP 3 프로젝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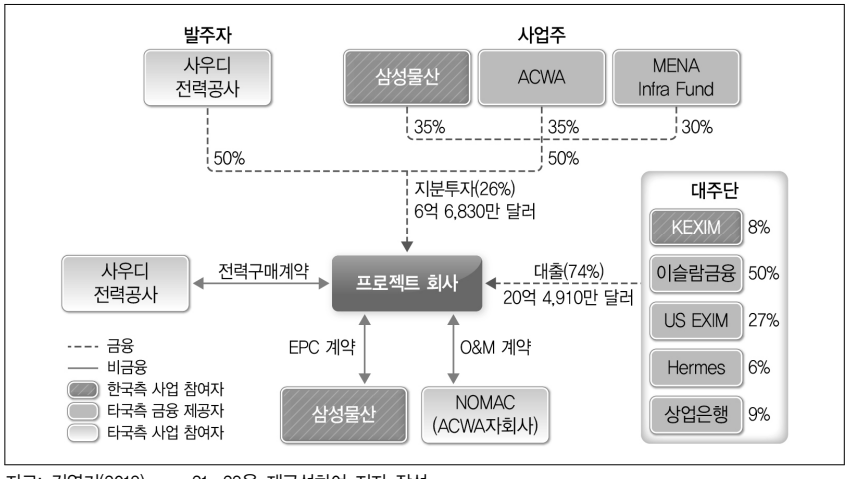


자료: 알 마나커 현지 법인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2014. 8. 19, 요르단 암만).

가 담당하여 상업운전 이후 25년 동안 약 102억 달러의 매출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132] 2014년 8월 현재 241MW 규모의 1단계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으며, 9월 내 2차 및 3차 상업운전을 마칠 예정이다.[133]

삼성물산도 중동지역 투자개발형 사업인 쿠라야(Qurayyah) 프로젝트에 사업주로 참여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2011년 사우디전력공사(SEC: Saudi Electricity Company)가 발주한 세계 최대 규모의 4,000MW급 가스복합 화력발전사업이다. 삼성물산은 SEC, ACWA, MENA 인프라 펀드(Infra Fund)와 함께 투자자(17.5%)인 동시에 EPC 업체로 참여하였다(그림 4-19 참고). O&M은 사업주 중 하나인 ACWA의 자회사 NOMAC이 담당하며, 프로젝트 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SEC가 20년간 구매하는 계약

그림 4-19. 사우디아라비아 쿠라야(Qurayyah) 프로젝트 구조



자료: 김영기(2013), pp. 21~23을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132) 한국전력(2012), http://cyber.kepco.co.kr/kepco/PR/ntcob/ntcobView.do?boardCd=BRD_000117&menuCd=FN06030103&boardSeq=8507218 (검색일: 2014. 8. 28).

133) 알 마나커 현지 법인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2014. 8. 19, 요르단 암만).

을 체결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28억 달러를 출자 및 대출 각각 25%, 75%를 통해 조달하였다.[134] 대주단에는 수출입은행 및 US EXIM, 율러 헤르메스(Euler Hermes) 등 ECA와 HSBC, KfW, SC, SMBC, 미즈호은행 등 국제상업은행, 그리고 이슬람금융기관이 참여하였다. 해당 프로젝트의 특징은 현지 상업은행이 이슬람금융을 통해 10억 2,500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였으며, 이 규모가 전체 차입금의 50%를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중동지역 건설 · 플랜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이슬람금융에 대한 이해도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국전력의 사례를 보면 풍부한 국내외 인프라 개발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업의 최대주주로 참여하며 금융 주선을 비롯한 업체 결정권도 확보하였다. 또한 국내 인프라 운영 및 유지보수 경험, 전문지식을 확보하여 고부가가치 분야인 O&M도 주도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도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다양한 계열사를 통한 제품 구매 능력을 바탕으로 투자개발형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지역 투자개발형 부문에서 국내 대기업은 유럽 및 일본 기업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고 금융 조달 능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우리 기업이 강점을 보이는 플랜트 부문에서도 선진국 기업에 비해 발주처와의 협상력, 사업관리 능력, 위험관리 능력, 금융 조달 능력 등이 비교 열위로 나타났다.[135] 따라서 향후 국내 대기업이 전 세계적인 투자개발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

134) 김영기(2013), p. 21, p. 23. 총 사업비는 28억 100만 달러이고, 금융 조달 규모는 27억 1,740억 달러로 나타났다.

13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해외건설협회(2008), p. 248.

발굴 및 관리 능력을 육성해야 함은 물론 국내 수출신용기관 및 상업은행이 금융 조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동성 확보와 위험 저감 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소결

우리나라의 대중동 진출은 주로 건설 · 플랜트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사상 최대인 71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2014년 상반기 중동지역 건설 · 플랜트 시장에서 2013년 지연되었던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가 본격화되어 우리 기업의 수주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2014년 1~6월간 국내 기업의 중동지역 건설 수주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30.5% 증가한 247억 달러였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수주 규모도 21.5% 증가한 37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136]

그러나 해외건설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65년 이후 2014년 8월 현재까지 우리 기업이 중동에서 수주한 건설 · 프로젝트는 단순도급형 88.6%, 시공자 금융주선형 7.4%로 도급형 사업이 전체의 96.0%를 차지하여 고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우리 기업의 수주가 집중된 단순도급형 사업에서도 중국 · 터키가 저가 노동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우리 기업의 사업 대

136)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통계 DB(검색일: 2014. 7. 23).

상은 시공자 금융주선형과 투자개발형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해외 건설 · 플랜트 프로젝트의 대형화 및 고위험화 추세에 따라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9년 UAE 원전 수주 경험을 통해 해외건설 · 플랜트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주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2011년 이후 해외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ECA, 관련 협회 등 다양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전 방위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2013년 8월 해외건설 · 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에서 금융 조달 유형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정책이 발표되었다. 해당 방안은 중소 · 중견 기업의 비중이 높은 단순도급형 사업에는 보증여건 개선,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시공자 금융주선형 사업에는 차입금 조달 능력 확충, 우리 기업의 지분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에는 자본금 조달 능력 확충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정책금융지원 부문에서 ECA의 자본 및 기금 확충, 투자개발형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 추가 조성 등을 통해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민간금융기관의 보수적 투자 성향, 해외 투자 경험 부족을 고려한 우선상환제를 도입하여 국내 상업은행과의 해외 투자 동반 진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CA 자본 추가 확충, 초대형은행 설립 환경 조성, 중동자금 활용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ECA 자본금 추가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수주를 지원해야 한다. 현재 ECA의 자본금 증가에 비해 누적 지원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및 무역보험공사의 기금을 추가적으로 증대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상업은행도 대규모 차입금 조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향후 우리 기업이 진출해야 하는 시공자 금융주선형 사업은 EPC 업체의 금융주선 능력과 더불어 은행의 차입금 조달 능력이 수주의 관건이 된다. 투자개발형 사업도 일반적으로 투자금 규모에 비해 차입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차입금을 제공할 수 있는 초대형 은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상업은행이 초대형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중동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ECA 자본 추가 확충, 초대형은행 설립 등은 정부 예산 부족 및 이해관계자 간 의견차이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시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자금의 가용성 측면을 고려할 때 국내 자본을 육성하는 것보다 중동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단기간에 협력이 가능하다. 또한 중동자금은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2000년대 후반 고유가에 힘입어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했다는 강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동자금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중동 개발 또는 제3국 공동진출 등을 모색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국토해양부는 중동 국부펀드인 카타르홀딩(Qatar Holding), 인베스트 AD(Invest AD)와 각각 제3국 공동투자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2014년에는 '제1차 한-카타르 제3국 공동진출 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제3국 공동진출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 향후 우리 정부는 국내 공기업의 자원 개발 및 운영 · 유지보수 능력, 대기업의 프로젝트 발굴 능력 등을 내세워 중동 국가와 제3국 공동진출이 실행되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제5장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1.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종합
2. 한·중동 금융협력의 정책 비전 및 목표
3.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1.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종합

앞서 분석된 내용을 장별로 살펴보면, 2장에서는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 측면에서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산업환경 측면에서는 석유 고갈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GCC 산유국들의 산업다각화 정책 강화가 가장 핵심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이 국가들은 석유 부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 부문의 투자 및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자국민 고용 우선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비중과 고용 규모를 늘리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GCC 정부는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환경 측면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후의 고유가를 바탕으로 GCC 정부 및 은행들이 역내 투자를 늘리고 있다. 중동지역의 국부펀드도 역내 개발 목적의 투자를 늘리면서 자회사 등을 통해 투자전략을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동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 유럽계 은행의 참여가 위축되면서 각국의 수출신용기관이나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참여가 증가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중동지역에서의 산업 및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부펀드나 수출신용기관 및 다자개발은행과의 금융 협력을 통한 금융 조달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투자지원 전략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세계은행 그룹에 속해 있는 IFC는 민간 부문 위주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

는 기관으로 중동지역에서도 민간 부문 육성 및 기업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IFC가 주도적 역할을 한 요르단의 퀸 알리아 국제공항 프로젝트는 중동지역 내 최초의 공항 부문 민관협력사업(PPP) 프로젝트로 IFC가 장기 대출에 참여함으로써 프로젝트의 국가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자금 조달의 촉매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ADIC과 누르(Noor)는 각각 UAE와 쿠웨이트의 투자회사로서 지분 투자를 실시하여 GCC 이외의 국가에 공동 투자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이슬람개발은행(IDB)은 이슬람 회원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이슬람금융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슬람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인프라 건설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대한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의 개발펀드 및 다자 개발금융기관과의 금융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슬람개발은행의 주요 투자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지부티 도랄레 컨테이너 터미널 프로젝트는 두바이 국영기업인 DP 월드(World)와 지부티 정부의 합작투자로 이루어졌으며, 이슬람개발은행과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두바이 이슬람 은행 등 다양한 은행들이 이슬람 금융 방식으로 대출에 참여하였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일본 기업의 수출입금융이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신용기관이다. 주로 자원 및 에너지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이 늘고 있으며, 중견 ·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일본국제협력은행의 기본 전략으로서 민간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분 투자, 현지 통화 조달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 수단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카타르의 바르잔

가스전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총비용이 102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차입금 중 1/3 이상을 수출신용기관이 담당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EPC 업체와 수출신용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4장에서는 중동지역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국내 기업의 진출 시장은 주로 건설 및 플랜트 시장으로 1970년대 초반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비중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전체 투자진출 금액 대비 1.5%의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주로 해외건설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3~4년 동안 국내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 상업은행의 금융지원 역량 강화, 중동자금 활용 확대, 사모펀드 설립 등에 관련된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아직도 전문인력 부족, 시중 상업은행의 참여 한계, 펀드 활용도 미흡, 제3국 공동 진출 여력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5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중동지역에서의 산업 및 금융환경 변화, 해외개발금융기관의 사례 연구, 국내 금융지원 정책의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향후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관련 정책은 주로 국내 기업의 수주능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동지역 간의 금융협력에 기반한 중동지역으로의 투자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협력의 정책 비전 및 목표와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중동 금융협력의 정책 비전 및 목표

가. 정책 비전

한·중동 금융협력의 정책 비전은 앞서 제시한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사례, 국내 진출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중동지역의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중동지역은 유동성이 비교적 풍부한 산유국뿐만 아니라 자원이 부족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비산유국도 포함된다. 산유국이나 비산유국 모두 우리나라와 산유국 간의 금융협력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비산유국의 경우에는 다자 개발금융기관과의 협력관계까지 고려한 제3국 공동 진출이라는 형태로 투자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금융협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금융 부문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중동 진출 기업의 금융 조달 능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물 부문에서도 국내 민간 부문 중소·중견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전문인력의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반면 중동 국가들은 재정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은 채 산업다각화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협력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인프라 개발 등 민간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금융협력이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배경은 개발 프로젝트의 자금 규모와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다양한 재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협조융자(co-financing) 또는 혼합 금융(mixed financing)을 통해 막대한 자금

을 조달해야 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수많은 위험요인을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위험 공유(risk sharing)를 통해 경감시켜야 하기 때문이다(표 5-1 참고).[137] 이제는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수출금융이나 은행으로부터의 대출만으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두 번째는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저소득국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에는 국가 위험(country risk)에 대한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내란, 폭동, 국유화, 몰수, 환거래 제한 등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표 5-1 참고). 이때 다자 간 국제개발은행이나 여러 나라

표 5-1. 프로젝트 위험의 구분

구분		내용	위험 관리방안
상업 위험 (사업위험)	사업주 신용위험	사업주의 계약 불이행	사업타당성, 신용도 조사, 컨소시엄 구성
	재무 위험	유동성 부족, 이자율 변동, 환율 변동	고정금리 스왑계약, 환리스크 헷지
	공사완공 위험	완공 지연, 설계 변경, 공사비 초과	공사완공 보증, 일괄 발주계약, 지체보상금
	환경 위험	탄소배출량 등 환경기준 위배	실사, 검증된 기술 적용 Equator 기준 적용
	원료/연료 조달위험	원료/연료 부족, 원료/연료 품질 악화	원료/연료 공급계약
	운영위험	생산량 부족, 품질 불량	유지보수계약
	매출 위험	시장환경 변동, 판매 부진, 판매가격 하락	장기구매계약(구매량, 구매단가), 정부 보증
정치 위험	정치적 변동	내란, 폭동, 국유화, 몰수	정부 보증, 정치적 위험 보험, 투자보장협정, 송금 정부보증
	법률/제도환경	제도 변화, 규제환경 변화	
	환전/송금	환전 및 송금 규제	
불가항력 위험		홍수, 지진, 자연재해	보험

자료: 반기로(2009), pp. 81~98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137) 이에 따라 대규모 인프라 및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자금 조달과 위험 공유에 유리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의 수출신용기관 또는 현지 금융기관을 금융협력 패키지에 참여시킴으로써 민간 부문의 투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의 투자 진출과 관련이 있다. 최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해외에 플랜트를 건설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 조달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양국의 금융협력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상이한 이해관계의 조정, 위험요인의 공유 등이 이루어지고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 인센티브가 공동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금융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 부문의 동력 창출, 중동 진출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 확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정책 목표

앞서 제시한 정책 비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실천과제의 도출과 실천과제 간 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금융 역량(capability)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역량이 취약한 배경에는 국내 금융산업에 관련된 제도적 또는 산업구조적 문제점이나 전문인력 및 경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금융 제도와 산업구조에 관련된 문제점은 국내 금융산업 전반

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연구과제로 미루고, 본 연구에서는 전문 인력 및 경험 부족을 보완하면서 금융 조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 중에서 글로벌 금융역량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이 기관들이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국내 글로벌 금융 역량을 제고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반면 민간 금융기관들은 해외 프로젝트 시장 진입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경험, 네트워크 등이 크게 부족한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반적인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발금융이나 지역연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은 물론 금융 및 지역 전문가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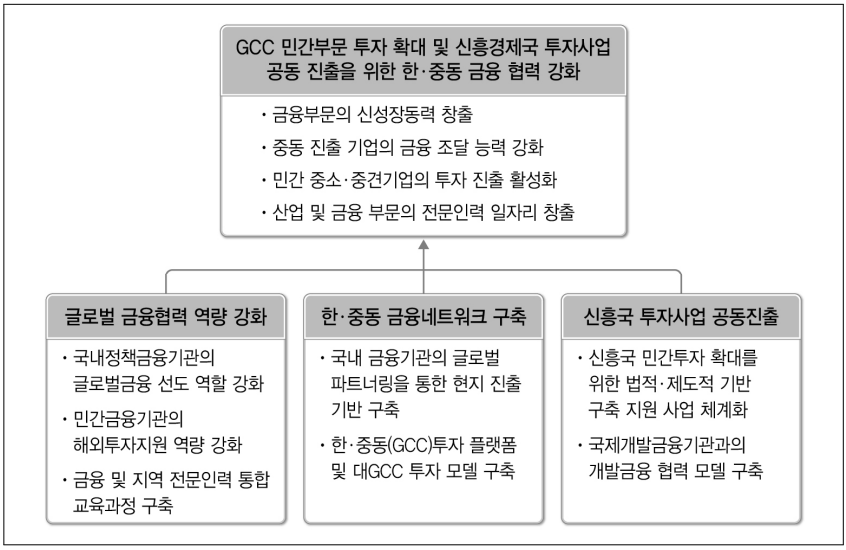
둘째,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한 · 중동 금융협력에 주목하는 것은 중동지역으로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 없는 금융기관의 진출은 의미가 제한될 것이다. 또한 민간 부문이 투자하려고 해도 실질적인 금융 조달이 어렵다면 국내 기업의 투자 진출은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이 두 가지 영역을 연결시키기 위한 정책목표로서 한 · 중동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책과제가 고려될 수 있다. 하나는 현지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1~2개의 지점이나 현지 은행의 데스크 정도로는 중동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전략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현지에서 발주되는 민관협력

사업이나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진출사업에 관련된 정보 공유와 전문인력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현지의 산업 및 기술 수요와 국내 기업의 공급 역량을 매칭시킬 수 있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대GCC 투자 모델을 구축한다면 중동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시행착오를 많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GCC 국가 이외의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신흥경제국을 대상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공동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GCC 국가들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하여 신흥경제국의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흥경제국에 투자 진출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 회수 위험 등을 포함한 국가 위험이다. 이러한 국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 회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참여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정책금융기관이나 상업은행이 국제금융기관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동반 투자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정책 비전과 목표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5-1]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정책목표는 각각의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개별적인 정책 방안으로는 최종적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관계와 공동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각각의 정책 목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그림 5-1. 정책 비전 및 목표



자료: 저자 작성.

3.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가. 글로벌 금융협력 역량 강화

1)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글로벌 금융 선도 역할 강화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제상업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참여가 위축되자 국가별 공적수출신용기관이나 개발금융기관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4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수출신용기관도 국제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수출신용기관의 장점은 비교적 유동성이 풍부하고 외화 조달 비용이 낮으며, 만기를 장기로 설정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국내 시중 상업은행은 아직까지 전문인력과 경험의 부족으로 글로벌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의 참여도가 매우 낮고 현지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 조달 경쟁력이 저조한 실정이다. 향후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 ·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민간 금융 부문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지만, 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글로벌 금융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신용기관을 비롯한 국내 정책금융기관이 해외 진출기업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역할은 해외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규모와 방식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공적수출신용(official export credit)은 민간 부문의 무역금융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대출(direct loan), 보증(export credit guarantee), 보험(export insurance)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럽계 국제상업은행의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수출신용기관의 금융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138] 국내 수출신용기관도 OECD의 협약에 구속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즉 수출과 연계되지 않는 대출 상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외 M&A 사업에 대한 파이낸싱 자금이나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등 중장기 대출상품의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대규모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외 금융기관의 협조융자 주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위험 평가, 시장 및 경쟁환경 분석, 사업 타당성 분석 등에 기초하여 원리금상환능력(bank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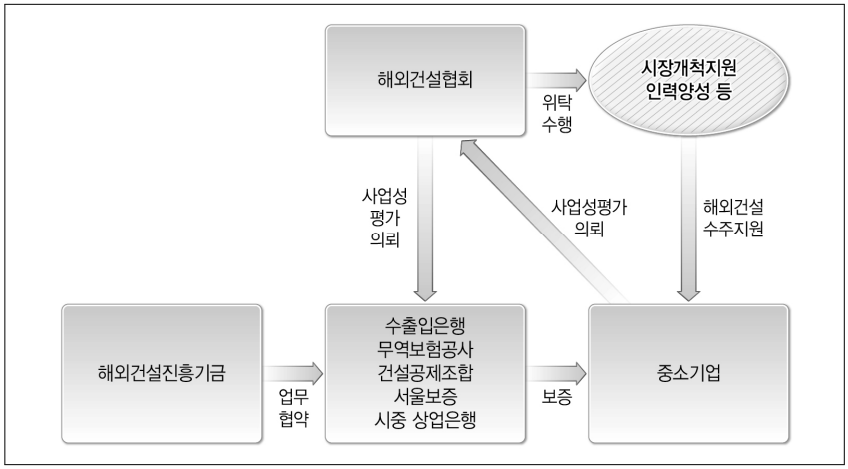
138) 최봉석(2012), pp. 13~14.

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설계 능력과 협조 융자(co-financing)에 따른 대주단 구성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또한 다자 개발금융기관, 해외 수출신용기관,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상업은행, 사업주 등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금융 주선 기능의 강화는 향후 국내 투자개발기업의 금융조달 전략(financing strategy)을 함께 수립하고 국내 금융자문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세번째는 전체 대출 규모 대비 지분 투자 비중을 더욱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프로젝트당 지분 투자 규모는 작다고 하더라도 수출입은행의 지분 투자는 당해 프로젝트의 위험 감소 및 여타 재원 조달의 촉매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다. 특히 국내 상업은행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글로벌 금융에서의 공적 부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네 번째,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즉 중동지역에 수출하는 기업이나 투자 진출을 원하는 기업 또는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중소건설기업의 경우에 대출이나 보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대부분 국내 상업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는 분야이나 중동지역 경제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과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현지 금융기관과 수출입은행 간 전대 한도의 상향 조정, 중소기업의 매출 채권 매입 강화,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 제공 확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를 더욱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건설 중소기업에 고유한 이행성 보증서(contractual bonds) 발급의

그림 5-2. 해외건설진흥기금 지원 구조 개념도



자료: 정창구(2013), p. 16.

문제는 해외건설진흥기금의 재설립을 통해 수출신용기관이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보증 발급 관행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면 중소기업의 해외 사업 수주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그림 5-2 참고).[139]

2)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지원 역량 강화

국내 상업은행은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국내 금융시장의 포화 및 시장점유율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수익기반을 다각화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해야 하는데, 해외진출은 수익 다각화 방안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영업 경쟁력 취약, 브랜드 인지도 미흡, 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해외 진출에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139) 정창구(2013), pp. 15~20.

또한 자금 조달의 규모나 비용, 대출기간 면에서의 경쟁력 미흡, 프로젝트 리스크 분석 및 관리 능력의 부족 등으로 글로벌 프로젝트 시장에의 진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상업은행이 국제적인 금융자문사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차기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국내 수출신용기관과 연계하여 국산 콘텐츠 조달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국산 콘텐츠 조달에 따른 부가가치 규모를 고려하여 정책금융기관의 마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증 또는 보험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보일러, 엔진, 터빈 등 고가 제품 채용 시 부가적인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금융업과 기계제작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40]

둘째, 국가 위험과 프로젝트 위험의 경감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 간 협조 융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프로젝트 시장에서의 경험을 축적하고 상호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금융기관 내에 전문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외국 전문가를 영입하여 국제금융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신속하게 학습하고 국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외화자

140) 알 마나커 현지 법인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2014. 8. 19, 요르단 암만).

금 조달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141] 이는 국내 금융시장의 외환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3) 금융 및 지역 전문인력 통합 교육과정 구축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건설 관련 업무 이외에도 입찰, 계약, 프로젝트 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투자개발기업으로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 발굴, 금융 조달, 리스크 관리, 법률 등 보다 많은 전문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부족은 국내 글로벌 금융역량의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사업구조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금융, 법률, 기술 등의 자문회사가 프로젝트 비용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42] 그러나 전문인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자문회사를 육성할 수가 없고, 결국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외국 회사로 유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전문인력의 수급을 고려한다면 프로젝트 관련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 현재 금융인력에 대한 교육은 주로 한국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건설 인력에 대한 교육은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등에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분야별로 교육과정이 분산되어서는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141) 서병호(2011), pp. 7~8. 여기서 다양한 외화자금 조달 채널로는 채권과 유동화증권의 현지 발행, 현지 외화 예수금 수취 등을 들고 있다.

142) 알 마나커 현지 법인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2014. 8. 19, 요르단 암만).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해외 현장에서의 인턴십 등을 통한 실무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 부문을 포함한 프로젝트 관련 전문인력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이슬람 금융이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주요한 자금 조달원으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의 활용은 샤리아에 부응하는 투자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중동 정부 및 기업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이해는 지역에 대한 이해 없이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 프로젝트 관리, 법률 등의 전문인력 양성과정에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통합되어야 한다. 현지에 파견되는 국내 인력이 현지 언어 및 문화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면 현지 정책담당자, 기업, 근로자 등을 상대하기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나. 한 · 중동(GCC) 금융 네트워크 구축

1)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한 현지 진출 기반 구축

국내 시중 상업은행들은 대부분 국내 금융시장의 한계를 고려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출한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중동지역은 국내 기업의 진출 규모에 비해 국내 금융기관의 브랜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현지 진출 경험이 미흡하여 현지 시장 진입을 꺼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이 현지에서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면서 단계적으로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

내 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마케팅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전략적으로 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해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현지 은행과의 합작 또는 제3은행의 공동 인수, 특정한 부문에서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보다 리스크와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현지 은행 간, 현지 감독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도 용이하다.[143] [144]

해외 진출 초기에는 현지에서의 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하여 현지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소매 영업활동을 벌이기가 곤란하다. 현지 소매금융은 보조금, 경제습관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고 이슬람 금융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어 국내 은행이 접근하기에는 어렵다. 또한 현지 소매금융을 위한 은행업 면허 취득이 용이하지 않다. 현지에 진출한 대기업의 경우에도 국제적 신용도가 높고 전 세계 지점의 자금 통합관리가 가능한 글로벌 은행을 선호하기 때문에 진출 초기에 대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145] 따라서 현지 소매금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도매금융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초기에는 글로벌은행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기업금융이나[146] 중소형 플랜트[147] 건설 등과 관련된 중소형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

143) 서병호(2011), pp. 22~24.

144) 글로벌 은행의 해외진출 사례에 대해서는 조강래, 박종훈(2007), 김훈, 강정미, 유종민(2007) 참조.

145) 구정한(2014), p. 5.

146) 구정한(2014), p. 7.

147) 현지에 안정적 수요기반이 있고, 투자금 회수가 빠른 의약 및 의료품, 의료기기, 정보기기, 발전 설비, 변합기, 전력 케이블, 식품가공설비, 포장재, 운송용기, 자동차부품, 제지, 플라스틱 가공제품, 건설자재 등 1,000만 달러 미만의 플랜트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148] 이때 일본이나 유럽의 수출신용기관이나 개발금융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이자율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채권을 인수하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 · 중동(GCC) 투자 플랫폼 및 대GCC 투자 모델 구축

중동 지역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많은 공업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면서 산업다각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149] 또한 중국산 제품과는 달리 고가의 서구 제품과 유사한 품질을 가지면서 가격 수준은 낮은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데다 한국 산업발전의 경험을 도입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시장 조건은 국내 생산시설의 이전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현지 수요에 맞는 국내 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금융 조달 측면에서도 GCC 투자시장은 선진적인 금융기관 및 투자기관이 선점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매우 경쟁적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이 진입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정부 관료를 포함하여 중동지역의 다양한 종류의 금융기관 및 투자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제정책, 정치적 상황, 법률 및 제도 등의 변화, 인프라 구축 계획이나 프로젝트 발주 정보 등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지 은행과의 제휴는 현지 관습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하고 정치적 위험을 감

148) 서병호(2011), p.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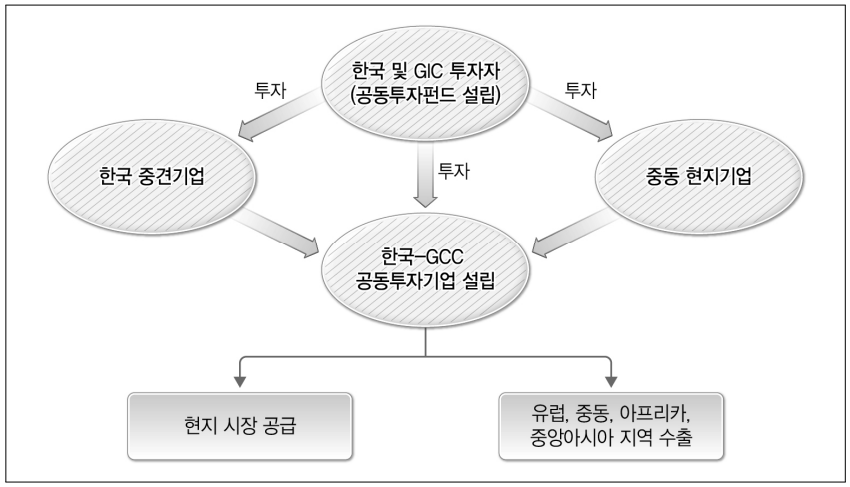
149) 본 연구의 2장 참조.

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제휴 또는 협력 기관들과 투자 서밋(investment summit)이나 투자 포럼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게 되면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적인 투자 모델을 구축하여 이에 기초한 성공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4장에서 설명된 걸프투자공사(GIC: Gulf Investment Corporation)에 따르면, 한국 중견기업의 경험과 기술을 중동 현지기업과 결합한다면 안정적으로 사업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림 5-3 참고).

향후에는 자원개발, 교통 · 물류 등 공공인프라, 발전 · 담수 플랜트, 중소제조업, 서비스업(환경, 보건의료, 교육 등) 등 부문별 모델 구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투자자를 물색할 수도 있다(표 5-2 참고). 부문별 모델은 투자자 모집에 제한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해관계자들의

그림 5-3. 걸프투자공사(GIC)의 투자 모델 개념도



자료: 걸프투자공사 관계자(Malek Al-Ajeel, Head of Business Development)와의 인터뷰 내용(2014. 6. 10, 쿠웨이트 쿠웨이트 시티)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5-2. 투자사업의 종류

	부문	투자 및 계약형태	사업 내용	금융 조달방식
자원개발	석유, 가스, 석탄 등	생산물분배계약, 서비스계약	시추, 채굴	프로젝트 파이낸스 매장량기초금융
공공인프라	항만, 도로, 상하수도	BOT, BOO	인프라 건설, 공공서비스 운영	프로젝트 파이낸스
플랜트	발전소, 담수시설 (IPP, IWPP)	BOT, BOO	플랜트 건설, 전력생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중소제조업	소비재, 건설자재	M&A, 신규 투자	중소플랜트 건설, 제조, 수출	중소 규모의 플랜트 건설을 위한 수출신용 및 운전자금 조달
서비스업	폐수처리 등 환경산업, 병원	M&A, 신규 투자	중소플랜트 건설, 서비스	

자료: 김상진(2014), p. 130을 토대로 저자 작성.

관심을 제고하고 보다 적합한 투자 방식을 고안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투자 분야의 특성에 따라 정책 인센티브를 차별적으로 부여할 수 있어 정책의 유연성을 추구할 수 있고, 사업 발굴이나 재원 조달, 국산 콘텐츠 연계, 운영 등에 관련된 맞춤형 정책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신흥경제국 투자사업 공동 진출

1) 신흥국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중동지역의 신흥경제국은 어느 지역보다도 재정수입과 고용의 공공 부문 집중도가 크다. 대표적으로 산유국은 재정수입의 석유 및 가스 판매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고, 비산유국은 국제 원조가 재정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고용 면에서도 공공 부문의 임금 수준이나 근로환경이 민간 부문보다는 더 양호하기 때문에 현지 국적의 국민들은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공공 부문으로의 쏠림 현상은 민간 부문

의 확대를 통한 산업다각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더욱이 자원이 부족한 비산유국의 경우는 자본 부족으로 인해 민간 부문 육성을 위한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흥경제국의 정부는 해외 자본을 활용하여 인프라를 건설하는 민관협력사업(PPP)을 추진하고 있다.[150] 즉 신흥경제국의 재정능력과 시설운영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관협력사업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사업은 해외 민간 부문의 기술과 효율적 경영기법 등을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해 신흥경제국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151] 민관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전기, 수도, 교통, 운송, 통신, 상하수도 등 공공인프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BOT 또는 BOO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차이는 민간 부문에서 건설, 금융 조달, 운영(20~30년) 등을 담당하고, 사업권 계약(concession)이 종료될 때 자산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가(BOT 방식) 또는 계속 유지하는가(BOO 방식)에 달려 있다. 민관협력사업은 현지 정부의 계약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지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이러한 민관협력사업의 수요는 국내 기업에게는 현지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내 경제성장과정에서 축적된 국내 기업의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150) 일반적으로 민관협력사업은 민간 부문의 투자를 통해 공적으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이다. 맹준호(2012), p. 3.

151) Kim(2014), pp. 41-43. 또한 민관협력사업은 사업의 리스크를 민간 부문으로 이전시키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한다. 하나는 민관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 필요한 법적 및 제도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환전 및 송금 규제, 국유화 또는 몰수 위험, 계약 이행 위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국내 기업이 단순히 EPC 계약하에 엔지니어링, 조달, 시공 업무만을 전담할 것이 아니라 투자개발기업으로서 민관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면서 시공 이후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까지 주관하려고 한다면 금융 조달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 두 번째 조건은 다음 항목에서 다루고 여기에서는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첫째 조건의 충족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 사업환경, 산업정책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민간 부문 확대를 위한 투자 환경 조성과 관련이 있다. GCC 지역은 이미 이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완전경쟁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신흥국의 민간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는 이러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민관협력사업은 [표 5-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면 민관협력사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1990년대부터 이러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왔다.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고,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었다. 2005년 1월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와 사업범위가 도로, 철도, 항만 등 경제적 기반시설에서 학교, 주

표 5-3. 프로젝트 단계별 주요 업무, 계약 및 사업 주체

<table>
<tr><th></th><th colspan="2">기획단계</th><th>설계단계</th><th>건설단계</th><th>운영 및 유지보수단계</th></tr>
<tr><td>주요 업무</td><td colspan="2">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수립
지분 투자/금융 조달</td><td>기본설계
상세설계</td><td>자재구매 · 조달, 시공</td><td>운전
유지보수</td></tr>
<tr><td>주요 계약</td><td colspan="2">양허사업권(자원개발)
금융 · 법률자문계약
토지임대계약
수출신용(보증/보험)
정치위험보험</td><td colspan="2">EPC 계약
(설계계약, 시공계약 포함)</td><td>원료/연료공급계약
구매계약
서비스계약
유지보수계약</td></tr>
<tr><td rowspan="2">사업 주체</td><td rowspan="2">금융 · 법률 · 환경자문사 / 대주단(상업은행, ECA, MDB 등)</td><td></td><td>시공업체</td><td rowspan="2">연료공급업체, 생산물 구매업체, O&M 업체</td></tr>
<tr><td colspan="2">EPC 업체</td></tr>
<tr><td colspan="5">사업주(sponsor/developer) - 프로젝트 회사</td></tr>
</table>

자료: 김효종(2014), p. 48을 토대로 저자 작성.

택, 문화시설 등 사회적 기반시설로 확대되었고 기존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 이외에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기존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로 개편하였다.[152]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험과 법적, 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면 신흥경제국에서의 민관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국내 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의 위험 경감을 위해 국내 KOICA 또는 EDCF 자금을 활용하여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개발금융기관과의 개발금융 협력 모델 구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관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금

152) 김재형, 이승연(2013), pp. 16~18. PIMAC의 업무와 조직 등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융 조달 능력이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금융 조달 능력은 기본적으로 수출신용기관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시중 상업은행의 금융지원 능력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금융 조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금융기관과 어떤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개발금융기관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조달 규모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촉매 또는 앵커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국제상업은행의 프로젝트 참여 유인으로서 신디케이션(syndication) 구성을 용이하게 한다. 이는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참여에 따라 프로젝트의 위험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다자 개발금융기관과 국가 및 사업 위험, 사업 타당성, 지원정책, 규모, 금융 조달 계획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153]

둘째, 다자 개발금융기관은 신흥국의 개발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많은 신흥국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 정보를 갖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신흥국 진출이라는 관점보다 '개발'을 통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다자 개발금융기관과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ODA 자금을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자금과 연계하여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의 재원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154] 이때

153) 권태균 초청연구위원의 자문 내용(2014. 5. 29, 연구중간심의회)에 기초함.

154) 2011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개발협력

의 ODA 자금은 컨설팅 사업이나 공공성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투입하여 민간 부문 중심의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와 패키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내외 정책금융기관, 개발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발주처, 건설기업 등이 민관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성공사례, 향후 발주계획,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공동 사업환경 조사 및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컨설팅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면 네크워크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사업 발굴 및 리스크 분석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글로벌 인프라협력회의(GICC)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동지역에 특화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앞서 언급한 자원개발, 인프라 등 투자사업별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주요 어젠더로 논의된 바 있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구정한. 2014.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 전략에 있어서의 시사점”.『주간금융브리프』, 23권 13호.

국토해양부. 2010.「해외건설진흥계획」.

관계기관합동. 2012.「「제2의 중동붐」에 대비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3.「해외 건설 · 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 -맞춤형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2012. “제2의 중동 붐을 활용하기 위한 MENA 지역 프로젝트 동향 및 시사점.” 보도참고자료. (4월 19일)

김상진. 2014.「해외프로젝트와 무역보험」. 해외건설 금융실무과정 교육자료. 해외건설협회. (7월)

김상환 · 장원창. 2000.「우리나라 공적수출신용기관 기능 재정립과 장기발전방향」. 한국금융연구원.

김재형 · 이승연. 2013.『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제도적 정비 및 정책 성과로부터의 교훈』. 기획재정부 · 한국개발연구원.

김영기. 2013.「중동지역 금융지원 사례 및 시사점」. KIEP-이슬람법학회 공동 세미나 자료. (11월 22일)

김효종. 2014.「디벨로퍼 입장의 PF와 최근 동향」. 해외건설 금융실무과정 교육자료. 해외건설협회. (7월)

김훈 · 강정미 · 유종민. 2007.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맹준호. 2012.「개도국 민관협력(PPP) 사업의 이해」,『EDCF Issue Paper』, Vol. 1. No. 1.

「무역보험법, 법률 제10228호(2010. 4. 5. 일부개정)」

박영호 · 장종문 · 전혜린 · 김영기. 2013.『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 · 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형원 · 김태엽 · 김운중 · 유수종 · 김수야 · 한용석 · 이홍배. 2005.『해외건설 투자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방안』. 해외건설협회.
반기로. 2009.『프로젝트 파이낸스』. 한국금융연수원.
서병호. 2011.『국내 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및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수출보험법, 법률 제2063호(1968. 12. 31. 제정)」
신한파이낸셜그룹. "글로벌인프라펀드를 활용한 해외 프로젝트 진출 방안."
양오석 · 손성현. 2012.「GCC국가 이슬람은행과 일반은행 수익성 결정요인 비교연구」.『한국이슬람학회 논총』, 제 22권, 2호, pp. 217~256.
「외국환거래법, 법률 제11407호(2012. 3. 21. 개정)」
유재준. 2012.「LNG플랜트사업 현황과 전망」.『가스신문』. (5월 30일)
윤동일. 2013.「글로벌 협력펀드를 통한 중소 · 중견기업의 새로운 해외진출 파이낸싱 전략」. 2013 신흥시장 포럼 자료. KOTRA. (10월 1일)
이권형 · 손성현. 2012.『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와 위험요인』. 전략지역심층연구 12-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부강. 2014.「공적수출신용기관의 자금지원 제도와 활용 사례」. 해외건설 금융 실무과정 자료. 해외건설협회. (7월 11일)
정창구 · 손태홍 · 김효은 · 가정준 · 김봉철 · 최요섭 · 박재형 · 최석준. 2010.「MDB 투자 및 개발차관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 해외건설협회 · 한국외대.
정창구. 2013.「해외건설 보증지원 확대방안」. 해외건설 6,000억불 시대의 추진전략 세미나 자료. 해외건설협회. (12월 6일)
조강래 · 박종운. 2007. "주요 선진국 은행의 해외 진출 경험과 시사점". 한국은행.
주동주 · 김계환 · 민혁기 · 민영진 · 빙현지. 2012.「중동 GCC 산업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 산업연구원.
최봉석. 2012.『주요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자원개발 지원정책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해외건설협회. 2008.「투자개발형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민 · 관 협력 활성화 방안」. 국토해양부.
한국무역보험공사. 2013.「미래연「정책금융체제 개편방향」보고서 검토」.
한국수출입은행. 2012.「주요 ECA의 지원제도 및 운영현황」.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2122호(1969. 7. 28. 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5560호(1998. 9. 16. 일부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9355호(2009. 1. 30. 일부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12270호(2014. 1. 21. 일부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12307호(2014. 1. 21. 타법개정)」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2855호(1975. 12. 31. 제정)」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9545호(2009. 3. 25. 일부개정)」
KB Investment. 2014. "한국-GCC 경제 협력 펀드(KGF) 출자제안서."

[영문자료]

Anwar, Sofia, Shabir Ghulam, Hussain Zakir. 2011.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Time Series Analysis from Paki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3(1).

China EXIM(The Export-Import Bank of China). 2013. "The Export-Import Bank Of China Annual Report 2012."

ENR. 2005. Top Global Sourcebook.

_____. 2006. Top Global Sourcebook.

_____. 2007. Top Global Sourcebook.

_____. 2008. Top Global Sourcebook.

_____. 2009. Top Global Sourcebook.

_____. 2010. Top Global Sourcebook.

_____. 2011. Top Global Sourcebook.

_____. 2012. Top Global Sourcebook.

_____. 2013. Top Global Sourcebook.

IDB(Islamic Development Bank). 2013a. Annual Report 1433H(2012).

_____. 2013b. Islamic Development Bank Group in Brief.

_____. 2013c. 39 Years in the Service of Development.

_____. 2013d. “New container port raises Djibouti's international logistics profile.” IDB Success Story Series, No.10.

_____. 2014. Annual Report 1434H(2013).

IFC. 2011a. “IFC’s Experience in Financing Airports Queen Alia Airport: A Case Study.” Presentation Slides, (February 23.)

_____. 2011b. IFC Annual Report 2011.

_____. 2012. IFC Annual Report 2012.

_____. 2013a. IFC Annual Report 2013.

_____. 2013b. IFC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FY13 Achievements.

_____. 2014a. Partnering with the IFC.

_____. 2014b. IFC Annual Report 2014.

_____. 2014c. IFC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Fiscal Year 2014.

IMF. 2003. “External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

Invesco. 2013. Middle East Asset Management Study 2013.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3. 2013 Annual Report.

Kern, Steffen. 2012. “GCC financial markets Long-term prospects for finance in the Gulf region.” DB Research, (November 14.)

KEXIM(Korea Eximbank). 2014. 2013 Annual Report.

Kim, YoungKee. 2014. “The Effects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under Public-Private Partnership on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The Role of Private Finance in Comparison with Foreign Aid.” PhD Thesis. Kyung Hee University.

KPMG. 2013. Emerging trends in the Sovereign Wealth Fund landscape Middle East.

KSURE(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2010. Annual Report 2009.

_____. 2011. Annual Report 2010.

_____. 2012. Annual Report 2011.

_____. 2013. Annual Report 2012.

_____. 2014. Annual Report 2013.
Kuwait Central Statistical Bureau. 2012.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IGA. 2008. “MIGA and Islamic Finance: Doraleh Container Terminal Project, Djibouti.”
NEXI(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2013. Annual Report FY 2012.
PFI(Project Finance International). 2007. 2006 League Tables.
_____. 2008. 2007 League Tables.
_____. 2009. 2008 League Tables.
_____. 2010. 2009 League Tables.
_____. 2011. 2010 League Tables.
_____. 2012. 2011 League Tables.
_____. 2013. 2012 League Tables.
_____. 2014a. 2013 League Tables.
_____. 2014b. 1H 2014 League Tables.
Saleem, Qamar. 2013. Overcoming Constraints to SME Development in MENA Countries and Enhancing Access to Finance. IFC.
Standard Chartered. 2010. “Case Study: Doraleh Container Terminal Djibouti.” IFC Ports PPP Seminar(Cairo).
Griffith-Jones, Stephany and Ana Teresa Fuzzo de Lima. 2004. “Alternative Loan Guarantee Mechanisms and Project Finance for Infrastructure in Developing Countries.”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University of Sussex.
US EXIM(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2014. Annual Report 2013.
World Economy Forum. 2013.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2014.

[일문자료]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4.『2014 年次報告書』.

[온라인자료]

강현정. 2014. UAE 중소기업법 제정, 우리 기업은 어떤 기회가? KOTRA 두바이 무역관. (6월 27일)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Page=1&RowCountPerPage=10&ARTICLE_ID=5017055&ARTICLE_SE=20301 (검색일: 2014. 7. 21).

국토교통부. 글로벌인프라펀드.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435/DTL.jsp (검색일: 2014. 7. 28).

_____.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lst.jsp (검색일: 2014. 8. 11).

_____. 2013.「'글로벌인프라1호펀드' 4천억 원 규모로 확대」. 보도자료 (12월 26일)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4180 (검색일: 2014. 7. 28).

_____. 2014.「해외건설 상반기 375억불 수주... 역대 상반기 실적 최고치」. 보도자료 (7월 1일)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4180 (검색일: 2014. 8. 22).

국토해양부. 2010.「'글로벌인프라펀드'투자대상사업 발굴 지원」. 보도자료 (2월 8일)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155433709 (검색일: 2014. 7. 28).

_____. 2012.「해외건설, 반세기만에 5천억불 수주 이뤄내」. 보도자료 (6월 13일)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0399 (검색일: 2014. 7. 28).

금융감독원. 2014.「국내은행 해외점포 영업현황 및 감독방향」. 보도자료 (5월 2일)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7836&no=10637&s_title=&s_kind=&page=1 (검색일: 2014. 10. 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www.mosf.go.kr/news02.jsp (검색일: 2014. 8. 11).

_____. 2012.「제1차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 포럼[GIDF] 개최」. 보도자료 (10월 9일)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 Runno=

62&sub_category=131&hdnFlag=1&hdnDiv=189&&actionType=view&runno=4015029 (검색일: 2014. 7. 28).

산업자원부. 2004. 「한국-필리핀간 에너지협력 약정 서명」. 보도자료 (6월 4일) http://www.mke.go.kr/motie/ne/rt/press/bbs/bbsView.do?bbs_seq_n=5410&bbs_cd_n=16 (검색일: 2014. 7. 18).

손양숙. 2013. 「UAE, 알루미늄 자재 수요 급증」. 『Global Window』. (1월 27일)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48&UPPER_MENU_CD=M10147&MENU_STEP=3&ARTICLE_ID=5000146&ARTICLE_SE=20302 (검색일: 2014. 8. 22).

이삼식. 2014. GCC, 산업다각화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박차. KOTRA 두바이 무역관. (6월 13일) https://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6392 (검색일: 2014. 7. 21).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용어집 DB. https://www.ksure.or.kr/jsp/info/pop_GlsInq.jsp (검색일: 2014. 7. 28).

_____. 무역지원사업. https://www.ksure.or.kr/trade/export/Export01.jsp (검색일: 2014. 8. 14).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 DB. http://stat.kita.net/top/state/main.jsp?lang_gbn=null&statid=kts (검색일: 2014. 7. 8).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kr/work/banking/guar/guar_03.jsp (검색일: 2014. 7. 2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2014. 6. 13; 8. 13).

한국전력. 2008. “한전, 요르단 5억불 규모 발전사업 수주.” 보도자료 (7월 17일) http://cyber.kepco.co.kr/kepco/PR/ntcob/ntcobView.do?boardCd=BRD_000117&menuCd=FN06030103&boardSeq=8506941 (검색일: 2014. 8. 28).

_____. 2011. “한전, UAE 가스복합화력 발전사업 재원조달 성공.” 보도자료 (5월 16일) http://cyber.kepco.co.kr/kepco/PR/ntcob/ntcobView.do?boardCd=BRD_

000117&menuCd=FN06030103&boardSeq=8507182 (검색일: 2014. 8. 22).

_____. 2012. “한전, 세계최대 요르단 디젤내연발전소 수주.” 보도자료 (1월 31일) http://cyber.kepco.co.kr/kepco/PR/ntcob/ntcobView.do?boardCd=BRD_000117&menuCd=FN06030103&boardSeq=8507218 (검색일: 2014. 8. 28).

한국정책금융공사. http://www.kofc.or.kr/kofc/business/grow_01.jsp (검색일: 2014. 5. 23).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통계 DB. http://www.icak.or.kr/sta/sta_0101.php (검색일: 2014. 4. 2, 5. 21, 6. 11, 7. 23)

KDB인프라. 2014. “KDB인프라, GIF 투자약정식 개최.” (7월 1일) http://www.kinfra.co.kr/company_info/notice_view.asp?seq=115 (검색일: 2014. 7. 28).

Bloomberg. (검색일: 2014. 8. 5).

BP. Historical data workbook. http://www.bp.com/content/dam/bp/excel/Energy-Economics/statistical_review_of_world_energy_2013_workbook.xlsx (검색일: 2014. 3. 3).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About IFC. http://www.ifc.org/wps/wcm/connect/corp_ext_content/ifc_external_corporate_site/about+ifc/vision (검색일: 2014. 10. 14).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April 2014.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4/01/weodata/index.aspx (검색일: 2014. 6. 13).

Islamic Development Bank. IDB Group Open Data Initiative. http://www.isdb.org/irj/portal/anonymous?NavigationTarget=navurl://fe68ebaa6541fcf4c62134ea6d389185 (검색일 2014. 10. 14).

Islamic Development Bank, Principles of Operations. http://www.isdb.org/irj/portal/anonymous?NavigationTarget=navurl://91b765e29a0bbf4da579f0c 9bbf5f83f (검색일: 2014. 10. 14).

RasGas, Latest News. http://www.rasgas.com/Media/press_rasgas_barzan95percernintranets.html (검색일: 2014. 10. 21).

RasGas. Operations. http://www.rasgas.com/Operations/BarzanGasProject.html (검색일: 2014. 10. 21).

SAMA. 2013. Economic Reports And Bulletins, Statistical publications, Yearly Statistics. http://www.sama.gov.sa/sites/samaen/ReportsStatistics/statistics/Pages/YearlyStatistics.aspx (검색일: 2014. 8. 26).

SWF Institute, Fund Ranking. http://www.swfinstitute.org/fund-rankings/ (검색일: 2014. 3. 26).

UA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2013. Public Finance. http://www.uaestatistics.gov.ae/EnglishHome/ReportDetailsEnglish/tabid/121/Default.aspx?ItemId=2252&PTID=104&MenuId=1 (검색일: 2014. 8. 26).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db/dqBasicQuery.aspx (검색일: 2014. 9. 24).

World Bank. 2009. “Jordan - Queen Alia international airport.” Infrastructure advisory success stories (airports). Washington, DC: World Bank.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2009/06/11937352/jordan-queen-alia-international-airport

World Bank, Country and Lending Groups. http://data.worldbank.org/about/country-classifications/country-and-lending-groups#IDA (검색일: 2014. 10. 6).

World Bank,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http://ppi.worldbank.org/explore/ppi_exploreRegion.aspx?regionID=5 (검색일: 2014. 8. 26).

World Bank. Data & Research. Commodity Markets. Historical Data.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PROSPECTS/Resources/334934-1304428586133/pink_data_m.xlsx (검색일: 2014. 3. 3).

World Bank. Data. Domestic credit provided by financial sector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FS.AST.DOMS.GD.ZS (검색일: 2014. 5. 19).

World Bank. Data. http://data.worldbank.org/country/djibouti (검색일: 2014. 10. 14).

Zawya. Companies. Build Company List. http://www.zawya.com/cm/analytics/ (검색일: 2014. 3. 3).

Zawya. Companies. profile. Banque Saudi Fransi. http://www.zawya.com/middle-east/company/profile/4611/Banque_Saudi_Fransi/ (검색일: 2014. 12. 5).

Zawya. Companies. profile. Gulf International Bank. http://www.zawya.com/company/

profile/999399/Gulf_International_Bank_BSC/ (검색일: 2014. 12. 5).
Zawya. Companies. profile. National Bank of Abu Dhabi PJSC, http://www.zawya.com/company/profile/973342/ (검색일: 2014. 12. 5).
Zawya. Companies, profile. Saudi Hollandi Bank. http://www.zawya.com/company/profile/5368/Saudi_Hollandi_Bank/1040.SSE (검색일: 2014. 12. 15).
Zawya. Projects. Projects Monitor data. http://www.zawya.com/middle-east/projects/projectLookup.cfm (검색일: 2014. 3. 3).

[인터뷰 자료]

걸프투자공사 관계자(Malek Al-Ajeel, Head of Business Development)와의 인터뷰 내용(2014. 6. 10. 쿠웨이트 쿠웨이트 시티).
권태균 초청연구위원의 자문 내용(2014. 5. 29. 연구중간심의회).
알 마나커 현지 법인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2014. 8. 19. 요르단 암만).
알 카트라나 현지 법인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2014. 8. 20. 요르단 암만).
해외건설협회 지역2실 서면 인터뷰(2014. 8. 21).

Executive Summary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in the New Industrial and Financial Environment

Kwon Hyung Lee, Sung Hyun Son, and Jaeeun Park

The aim of the research is to suggest policy proposals for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in the changing industrial and financial environments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and 'Arab Spring' in the late 2000s and the early 2010s. Although it can be used in diverse frameworks, financial cooperation in the research means development of cooperative financing schemes for investment projects in the Middle Eastern countries and other emerging economies. It is expected that bilateral financial cooperation will help Korean companies including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to make direct investments in the region with job creation. This will also contribute to expansion of the private sector and reduction of the unemployment rate in the Middle Eastern countries.

Recently, industrial diversification has been promoted in response to post-oil era to lessen the degree of dependency on the oil sector in the region. The size of plant construction projects has been growing with increasing demands for financing capabilities. In the process, the role of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s) and export credit agencies (ECAs) has been augmented while European commercial banks have weakened financing the projects after the Eurozone crisis. Thu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government policies to activate financial cooperation with the Middle Eastern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sovereign wealth funds and Islamic banks as well as MDBs and ECAs

as Korean companies are suffering from shortage of financing sources. In the research, policy proposals for financial cooperation is divided into three fields as follows.

First, financial capabilities for global cooperation should be improved in the finance sector. Korean ECAs can play a leading role in enhancing those capabilities as they have accumulated human resources and experiences since the 1970s. Commercial banks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make their efforts to improve their capabilities for debt financing in overseas projects in cooperation with ECAs. It is also recognized that financial cooperation with the Middle Eastern institutions could be hampered by lack of experts in development finance with understanding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Middle East.

Second, financial networks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should be strengthened for information sharing and experts exchange, encompassing all the stakeholders related to cooperative financing. This can be developed into an investment platform finding investment opportunity in accordance with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demands in the region. It is also necessary for Korean banks to increase their presence in the region, building their brand values and mutual understanding.

Third, co-investment between Korean and GCC investors should be encouraged to develop new projects in the emerging economies in the Middle East, Africa, and Central Asia. Considering country risks in the emerging econom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implementing various contracts i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Moreover, co-financing models should be designed with help of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which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financing from other commercial banks and mitigating country risks.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4년

14-0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 정형곤 · 이재완 · 방호경 · 홍이경 · 김병연

14-02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 조종화 · 양다영 · 김수빈 · 이동은

14-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 임태훈 · 이동은 · 편주현

14-04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윤덕룡 · 김수빈 · 강삼모

14-05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김영귀 · 금혜윤 · 유새별 · 김양희 · 김한성

14-06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 서진교 · 김민성 · 송백훈 · 이창수

14-07 TPP 주요국 투자 및 서비스 장벽 분석: 협정문 및 양허 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덕 · 강준구 · 엄준현 · 이주미

14-08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 이승래 · 김혁황 · 이준원 · 박지현

14-09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이승래 · 박혜리 · 엄준현 · 선주연

14-10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 · 김윤옥 · 이민영 · 이성희

14-11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 김정곤 · 최보영 · 이보람 · 이민영

14-12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원 · 권 율 · 정지선 · 이주영 · 송지혜 · 유애라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이신애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4-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문익준 · 최필수 · 나수엽 · 이효진 · 이장규 · 박민숙

14-15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
김부용 · 박진희 · 김홍원 · 이형근 · 최지원 · 張 博

14-16 **중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
노수연 · 정지현 · 강준구 · 오종혁 · 김홍원 · 이한나

14-17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
오윤아 · 이 웅 · 김유미 · 박나리 · 신민금

14-18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곽성일 · 배찬권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이

14-19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이 웅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정미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4-2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
김보민 · 한민수 · 김종혁 · 이성희 · 고희채

14-22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14-23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제성훈 · 민지영 · 강부균 · Sergey Lukonin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14-2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방안** / 박영호 · 김예진 · 장종문 · 권유경

■ 2013년

13-01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최낙균 · 김영귀

13-02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 이동은 · 양다영 · 강은정 · 박영준

13-03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 정 철 · 이준원 · 김봉근 · 전영준

13-04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윤덕룡 · 송치영 · 김태준 · 문우식 · 유재원 · 채희율

13-05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영귀 · 배찬권 · 금혜윤

13-06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 서진교 · 오수현 · 박지현 · 김민성 · 이창수

13-07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 이동은 · 강은정 · 편주현 · 안지연

13-08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이승래 · 김혁황 · 강준구

13-09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 배찬권 · 선주연 · 김정곤 · 이주미

13-10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 문진영 · 김보민 · 이성희 · 김윤옥 · 홍이경 · 이민영

13-11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지원 · 서정민 · 문진영 · 송지혜

13-12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 정 철 · 박순찬 · 박인원 · 임경수

13-13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정여천 · 제성훈 · 강부균 · 최필수 · 김부용 · 김지연

13-14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문익준 · 이혁구 · 전재욱

13-15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조영관 · 엄구호 · 강명구

13-16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의 방향 / 정형곤 · 이유진 · 안병민

13-17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
양평섭 · 나수엽 · 남수중 · 이상훈 · 이혁구 · 유호림 · 조현준 · 최의현 · 장영석

13-18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
문익준 · 정지현 · 나수엽 · 박현정 · 이효진

13-19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
최필수 · 박영호 · 권기수 · 정재완 · 이효진

13-20 **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문익준 · 양다영 · 허 인

13-21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
양평섭 · 정지현 · 노수연 · 김부용 · 박현정 · 임민경 · 오종혁 · 김홍원 · 박진희 · 이상희

13-22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
김태윤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금 · 박나리 · 김유미

13-23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서영경

13-24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
강유덕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김준엽

13-25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
이 웅 · 송영철 · 초충제 · 최윤정

13-26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 이권형 · 곽성일 · 박재은 · 손성현

13-27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 박영호 · 장종문 · 전혜린 · 김영기

13-28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임태균

■ 2012년

12-01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한진희

12-02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 김준동 · 서진교 · 송백훈 · 안덕근

12-03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배찬권 · 김정곤 · 금혜윤 · 장용준

12-04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 서진교 · 정 철 · 이준원 · 정윤선

12-05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김영귀 · 김종덕 · 강준구 · 김혁황

12-06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 Sherzod Shadikhodjaev · 서정민 · 김민성 · 이재형

12-07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 서정민 · 정지원 · 박혜리 · 조명환

12-08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허 인 · 안지연 · 양다영

12-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이동은 · 편주현 · 양다영

12-10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헷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 · 박은선 · 강삼모

12-11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안지연 · 이동은 · 박영준 · 강은정

12-12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 강유덕 · 김균태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12-13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상 / 이창재 · 방호경 · 나승권 · 이보람

12-14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 권 율 · 정지원 · 정지선 · 이주영

12-15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12-16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
최필수 · 이상훈 · 문익준 · 나수엽

12-17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
문익준 · 박민숙 · 나수엽 · 여지나 · 은종학

12-18 중국 · 대만 · 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
이승신 · 양평섭 · 문익준 · 노수연 · 정지현 · 여지나

12-19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 이재영 · 이성봉 · Alexey Kuznetsov · 민지영

12-20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
김태윤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금 · 박나리

12-21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오윤아 · 허재준 · 강대창 · 김유미 · 신민금

12-22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조충제 · 송영철 · 최윤정 · 이 웅 · 정혜원

12-23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2-24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
한바란 · 최필수 · 윤서영 · 손성현 · 박재은 · 전혜린 · 이시욱

12-25 아프리카 건설 · 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 박영호 · 곽성일 · 전혜린 · 장종문

12-26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
정형곤 · 김병연 · 이 석

12-2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박복영 · 김종혁 · 고희채 · 박경로

12-2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정성춘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이우광

12-2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
강유덕 · 김균태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채희율

■ 2011년

11-01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
고희채 · 이준규 · 오민아 · 이보람

11-02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 이창재 · 방호경

11-03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
윤덕룡 · 오승환 · 백승관

11-04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
박복영 · 오승환 · 정용승 · 박영준

11-05 대외 위험요인 진단과 거시경제효과 분석 /
이동은 · 강은정 · 박영준

11-06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
허 인 · 안지연 · 양다영

11-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1, 2권) / 박복영 편

11-08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종화 · 박영준 · 이형근 · 양다영

11-09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
서진교 · 이준원 · 김한호

11-10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
강유덕 · 이철원 · 이현진 · 오현정

11-11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
조미진 · 김영귀 · 박지현 · 강준하

11-12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
김영귀 · 박혜리 · 금혜윤

11-13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김영귀 · 강준구 · 김혁황 · 현혜정

11-14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 장용준 · 서정민 · 김민성 · 양주영

11-15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김정곤 · 박순찬

11-16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 김상겸 · 박인원 · 박순찬 · 임경수

11-17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
권 율 · 정지선 · 박수경 · 이주영

11-18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11-19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 정형곤 · 방호경 · 나승권 · 윤미경

11-20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
박월라 · Sherzod Shadikhodjaev · 나수엽 · 여지나 · 마 광

11-21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 경협 방향 /
정형곤 · 김지연 · 이종원 · 홍익표

11-22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 김태윤 · 이재호 · 정재완 · 백유진 · 강대창

11-23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
박영호 · 전혜린 · 김성남 · 김민희

11-24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고희채

11-25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11-26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 이재영 · Sherzod Shadikhodjaev · 박순찬 · 황지영

11-27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
이승신 · 최필수 · 김부용 · 여지나 · 박민숙 · 임민경

11-28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손승호

11-29 한국·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
강대창 · 김규판 · 오윤아 · 이재호 · 신민금 ·
Siwage Dharma Negara · Latif Adam

11-30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
김진오 · 권기수 · 고희채 · 박미숙 · 김형주

11-31 중동 노동시장 현황 및 우리의 대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한바란 · 윤서영 · 박광순

이권형(李權炯)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영국 런던대학교(SOAS)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 · 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위원
(現, E-mail: kh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공저, 2013)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카타르의 주요산업』(공저, 2013) 외

손성현(孫聖鉉)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졸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 · 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원
(現, E-mail: shson@kiep.go.kr)

저서 및 논문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공저, 2013)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카타르의 주요산업』(공저, 2013) 외

박재은(朴在恩)

한동대학교 언론정보학 및 국제지역학 학사 졸업
미국 듀크대학교 정치학 석사 졸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 · 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원
(現, E-mail: jepark@kiep.go.kr)

저서 및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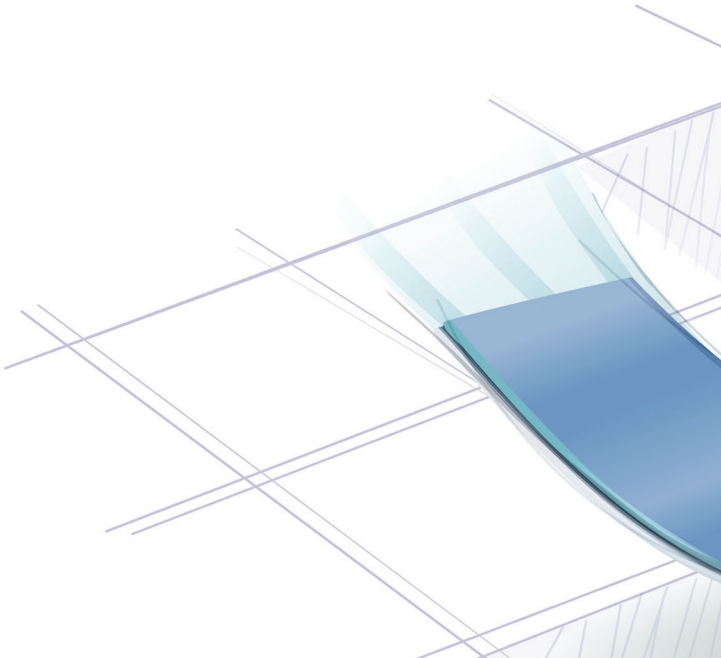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공저, 2013)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 이후 중 · 이란 관계 동향 및 시사점』(공저, 2013) 외

Policy Analysis 14-24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in the New Industrial and Financial Environment

Kwon Hyung Lee, Sung Hyun Son, and Jaeeun Park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대중동 금융지원 전략 및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내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 강화를 위한 한-중동 금융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중동 지역으로의 투자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금융부문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국내외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122, 1199
http://www.kiep.go.kr